제 6회 국어국문학과 주최
문예창작공모전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5학년도

제6회

국어국문학과 주최

문예창작공모전

응모분야

詩

국어국문학과 20121114 김화영

매미

살려주세요!
찻길 옆 은행나무에서 터져 나온 구조신호
일생을
어머니 품에 있다
간 곳, 햇볕으로 꾸며낸 유리독병
핀셋처럼 꽂힐
해를 피해
구조신호를 외치다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양치

밤이 피우는 담배연기에
지하 술집에서 뛰나오니
아차, 내 소리의 자음들은
떨어뜨리고 왔구나
자음 빠진 소리로 우짖다
고꾸라져 있으면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의 입을
열게 하시고
칫솔로 닦아내신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짐승의 마음에 비롯해 태어났고
이미 짐승이 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닦으신다
이빨이 이가 될 때 까지

국어국문학과 20121125 오은영

비오는 날

비오는 날이면
방한 칸
외로운 달팽이가 서식한다

얼굴이 타 버릴 것 같았던 지난 햇살
송글송글 창 밖에 맺힌 땀방울에
살 것 같은 숨을 돌리고
바닥에 몸을 뻗어 체온을 녹인다

온 방안을 가득 채운
눅눅한 공기

공급처에 다가서서
창문 몇 개 떠 있는 으쓱한 밤거리에
간신히 코끝이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얼굴을 마주한다

숨을 죽이고 확인하는 빗소리
토독토독 금세 박자를 타면서
긴장을 풀고 숨을 크게 들이킨다

코 속 가득히 스미는
농축된 수기(水氣)

밖으로 나가지 못한 팔이 아쉬워
방충망을 두드리며
손바닥에 닿지 못한 목축임을
마른 침으로 삼킨다

타버린 청춘

어제 밤
콘서트에서 환희 피어오른 불꽃

심장은 더 붉게 뛰었고
거대한 에너지 핵에 이끌려
뜨거운 빛 속으로 들어갔다

요동치는 감각
되새김과 동시에
멍한 공기를 타고 흐르는
뭔지 모를 애처로운 멜로디

그때 타버린 것인지
구멍 난 가슴 한 구석
움켜쥐고 있는 내 몸이
종이같이 거울 속에서 흐물거린다

용기를 내서 마주쳐 보는
흔들리는 눈빛
흐릿한 눈동자에
네모난 불빛이 켜진다

넘칠 듯이 흐르는 소식을 타고
온 세상의 하루를 다녔는데
그 속엔 내가 없다

매장된 에너지를 싣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독하게 항해를 마치고
옅은 빛을 진동하다
까만 우주 속에 스며든다

축복

바로 이 날
세상에 태어나 준 너를 기억해

한 결 같이 너를 위해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세상이 늘 그랬듯이
새로운 하루가
선물로써 도착했네

질서 정연한
지극히 평범해만 보이는
자연의 법칙에
부디 잊지 않기를

그 날 작지만
훗날 강하게 세상에 설
빛을 품은 아기를 위해

사랑으로 품어줬던 햇살과
정성으로 토닥여준 바람이
지금도 네 곁에 있음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지은 것들 중에 또 다른 것을
너를 위해 예비하셨네

오늘 네게 찾아올
수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삶의 첫 기억
모두의 축복을
한 아름 꺼내

다시 한 번
네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세상은
이처럼 너를
사랑하고 있기에

네가 창조함을 받은 날
이 땅에 내게 창조함을 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축복의 갈채를
꽃다발로 받기를

국어국문학과 20141129 이기일

나비

- '바다와 나비'를 읽고

꽃에 닿기 위해
견뎌냈던 비정상의 시간들

곱게 말린 날개는
그 얼마나 무색한가

허리에 시린 초생달은
꽃은 없었다고 비웃는다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도 없어
다시 흑백의 세상으로 날아든다

나풀나풀 나부끼듯

국어국문학과 20141138 한가희

지우개

일기장의 한 부분을
지우고
지우다

멍하니

얼마쯤 지났을까

책상 위로 분해된
지우개 조각들
어지럽게
널브러져있었다

지워도
지워도
잊혀지지 않기에

그때를 미워할 수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기에

지우개가 미운 거라며
잡아 뜯던
지우개를 놓아버렸다

울림

처음 기타를 배운
며칠 새

허공에 손끝을 대면
아직은 익숙지 않는 울림이
퍼져 나왔다

얼얼한 손끝에 스민
서툰 연주 하나

너를 만난
며칠 새

멍하니 허공을 보면
아직은 익숙지 않은
우리
마주잡은 손

차가운 손에 스민
서툰 마음 하나

따뜻한 울림 하나

국어국문학과 20151106 김용섭

달그림자

며칠을 톡톡대던 그곳에
사랑니가 옴폭 돋아났다.

톡톡거리던 그곳이 돋아날 때쯤
조각달이 떴다.

문득 떠오르는
유년의 이를 어루만지던 손길
달이 차오르도록 깊어지는 꿈길에
혹여나 꿈에서나마 마주할까

사실 이제 와서
그대 번호를 누가 쓰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저 보름달이 뜬 날 사라진
별밤에 쏟아지던 기억들만
조각달 끝에 걸려있더라.

국어국문학과 20151115 노이지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는 우주를 동경했다.
아버지와 별을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별을 세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바다를 동경했다.
아버지와 서핑을 하며
바다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은 혼자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우주 비행복을 입고
서핑보드에 누워 있으면
나는 코 묻은 철없는 아이인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된 지금, 나는 하늘을 동경한다.
하늘을 보며 누워 있으면
아버지의 눈을 보는 것 같다.

생

내 발자국 소리만이 동행인 지금
차가운 공기가 나를 세차게 흔든다.
허연 입김이 두 눈동자에 머물고
발끝부터 얼얼함이 스며들 때
나는 살아있다.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지금
오늘이 나를 부른다.
정처 없이 떠난 길 위에서
떡볶이 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
넥타이를 매고 뛰어가는 청년들
리어카를 몰고 걸어가는 할머니
그들과 눈을 맞출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마음까지 내려앉는 지금
파란 대문 집, 그 곳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두 다리를 재촉한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 그 두 눈이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품속이 반갑다.

오늘의 끝도, 내일의 끝도 반갑게만 느껴 질 때
나는 살고 싶다.

채광창 너머

채광창 너머로 본 아래층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분주히 움직이는 요리사들,
하얀 식탁보 위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요리들의 향연들이
그 날의 추억을 떠올리게끔 만들었다.

만약 내가 사랑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녀에게 짧은 손 편지 하나라도 써줬었다면
그녀가 추고 싶어 했던 춤을 함께 춰줬더라면
그녀가 내 손 을 놓을 때 다시 잡아줬더라면
지금쯤 그녀의 눈은 날 보고 있었을까.

잔잔한 음악이 귓가를 타고 내려왔다.
그녀의 손은 이제 그의 손과 함께
그녀의 웃음은 그의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도
저 멀리 반짝이는 미소는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채광창 너머로 본 아래층의 모습은 행복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흰색 행복이 감싼 그녀의 모든 것들이
그 날의 추억을 간직하게 만들었다.

국어국문학과 20151120 우정민

조각난 마음

살랑이며 다가와 나를 흔드는 사람
마음도 살며시 살랑 날 흔든다.

내게 다가와 따스하게 머물던 사람
마음도 따스하게 내게서 머문다.

한순간 일렁이며 날 삼켜버린 사람
마음도 한순간 일렁 날 삼킨다.

내게 머물다 슬며시 떠나가는 사람
마음도 슬며시 내게서 떠나간다.

그렇게 사람은 떠났다.
그렇게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마음도 떠났다.
그러나 많은 것을 남기여 놓고

국어국문학과 20151121 이성규

바람

바람이 불었다
그저 스쳐지나갔다
그냥 바람이겠지
그런줄로 알았다
너가 스쳐지났다

바람이 불었다
마냥 머물러있다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런줄로 알았다
내가 스쳐지났다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세은

안녕? 나의 쌍둥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 한단다
채 뜨지도 못한 눈으로
나를 향해 웃어주려 애 쓰던 그 모습을

네가 처음 나를 불러주던 때를 기억 한단다
옹알대는 미숙한 발음으로
누나가 아닌 누야라고 날 부르던 그 모습을

네가 처음 상처 받고 울던 때를 기억 한단다
친구의 장난에 속상했던 마음을
나에게 털어 놓던 그 모습을
그 맑은 눈이 눈물로 그렁그렁했던 그 모습을
난 기억 한단다

나는 그렇게 너의 매 순간을 기억 한단다
내 눈 속에 담고
내 기억 속에 담고
내 마음 속 사진첩에 담아서
네가 없는 나의 일상에서 꺼내보곤 한단다

나의 쌍둥아,
나는 그렇게 너희가 없는 내 일상에서
떨어져 있는 너희를 꺼내본단다
내 마음 속 사진첩에서
아주 고왔던 너희 모습들을

이제, 알아요.

그대의 아픈 혼잣말을
살기가 벅차다는 그 말을
왜 더 살뜰히 살피려 하지 않았을까
나로부터 비롯된 힘겨움에서 나온 혼잣말이었을 텐데

그대의 단단한 결심을
여자가 아닌 엄마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그 결심 뒤에 감춰진 눈물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
삶의 이유로 나를 두고 나서야 나온 결심이었을 텐데
수없는 눈물 끝에 다다른 결정이었을 텐데

그대의 미안함이 담긴 한숨을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담긴 그 한숨을
왜 제대로 보려하지 않았을까
왜 그저 다그치기에 바빴을까
그 버릇없는 다그침조차
미안한 맘에 제대로 꾸짖지도 못하는 그대임을 알았는데

이제, 알아요.
그 혼잣말도
그 결심도
그 한숨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대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할 만큼
내가 어리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내 손을 잡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이보게, 젊은이

이보게, 젊은이
자네 괜찮은가?
자네 그 축 쳐진 어깨 말이여.
괜찮은 건가?

이보게, 젊은이
기 죽어 있지 말게
사는 게 아니라 살아 내는 세상이라지 않는가
자네는 잘하고 있네.

이보게, 젊은이
자네 속상한가?
울음을 가득 담은 그 얼굴 말이네
괜찮은 건가?

이보게, 젊은이
너무 속상해 말게
이루기 어려운 꿈이라 하더라도
이루고픈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자네는 옳게 가고 있네.

국어국문학과 20151125 이정수

달

그대가 어떤 모습이든
난 늘 그대를
달로 바라보겠네.

때로는 커진다고 해도,
때로는 작아진다 해도,
난 그대를 달로 바라보겠네.

그대가 날마다
다른 이름과 모습을 보여도
난 그대를 달로 바라보겠네.

그대의 모습을
하루의 절반만 볼 수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바라보겠네.
달로 바라보겠네.

국어국문학과 20151129 장은영

맹인들

아무리 웃는 얼굴로 인사해도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울음을 터트려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내가 깊은 잠에 빠져도
만약 내가 하늘 높이 몸을 던져도
만약 내가 이 곳에서 사라져도
그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국어국문학과 20151131 정현아

만나러 가는 길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보이는건 빨간 불빛들

내가 서있는 곳은
검은 도화지
하얀선 위

사방이 막혀있어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대를 만나기위해
먼길을 달려갑니다

국어국문학과 20151136 구자헌

아빠, 달

그는 가만히 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들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며
마치 아버지처럼

그는 가만히 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마치 아버지처럼

그는 가만히 떠 있다
우리에게 해주는 것 없어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위해 모든 것을 주는
마치 아버지처럼

국어국문학과 20151141 정해성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너무 어렸다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서툴렀다

어림으로 인해 상처를 주었고
어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는 멈춰있었다
어른 아이일 뿐이었다.

우리라는 꽃은 여물지 못했다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2015학년도

제6회

국어국문학과 주최

문예창작공모전

응모분야

小說

병

국어국문학과 20111112 김주성

1.

내가 처음 보는 여자와 잠들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깨어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무언가 할 일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는 겨울 호수 주변의 안개처럼 흐리멍덩하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여자가 누워있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굴려 침대를 빠져 나왔다. 알몸이었고 거기에는 골무가 씌워져 있었다. 뭐랄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럴 정신은 있었나보지.

물을 찾아보았지만 냉장고조차 없었다. 세면대에서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쇠 맛이 났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여자아이는 어느새 이불을 그녀 쪽으로 끌어당긴 듯했다. 이런. 나는 어쩔 수 없이 스르륵 그녀 쪽으로 조금 더 기어들어갔다. 한기가 가득했다. 그 애와 몸을 바짝 붙이고 있지만 전혀 따듯하지 않았다. 매일 밤 침대에서 느낀 그런 차가움이 이불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결국은 그 익숙한 기운에 취해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어딘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해를 보며 담배를 피운 듯 했다. 이 한기에 오래 잘 수 있는 내가 이상한거지. 일어나서 골무를 빼내고 씻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마 내 생각보다 훨씬 마신 모양이었다. 티슈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일단은 누워서 어제의 기억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아 다시 추워짐을 느꼈다.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다. 몸에 물기도 대충 따듯한 바람을 불어 말렸다.

—01073201145

힐끗 전화번호를 다시 보았다. 티슈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대충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주워 입었다. 께름칙한 느낌이 들었다. 양말은 그냥 버려두고 나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패딩 점퍼를 주워 입고 앞섬을 여몄다. 티슈 조각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패딩에서는 냄새가 났다. 세탁소에 맡겨야하나 생각하며 모텔을 나왔다.

주차장을 통해 모텔을 나오는데 거기에 차가 있었다. 이런 미친. 그냥 거기 서서 오래된 똥차를 바라보았다. 휴우. 머리가 핑 하더니 토기가 덤벼들었다. 남의 차 옆에 그대로 들이부었다. 개같은. 개같은. 개같은. 침을 뱉고 입을 대충 비벼댔다. 개같은.

패딩을 열어 안주머니를 살폈다. 찬바람이 몸을 서늘하게 찌그러트렸다. 안주머니에는 열쇠가 있었다. 차 문을 열어보니 시트가 앞으로 바짝 붙어 있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불편해서 아마 뒤로 당겼을 것이다. 누구도 운전대에 나처럼 바짝 붙어서 운전하지는 않으니까. 경찰서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일까. 사고라도 났으면 좋았을걸.

원룸 지하 주차장에는 벌집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대자 벌들이 웅웅거리며 동요했다.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었다. 오늘 같은 날 벌 따위에 쏘이고 싶지 않았다. 주인과 몇몇 여자들이 벌집 문제로 자주 싸우곤 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차 문을 닫고 조심히

잠갔다.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갔다. 9999,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집에서는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났다. 무엇이 썩고 있는 것일까. 냉장고를 열었다. 형태가 없는 몇몇 과일과 차곡차곡 쌓여있는 반찬통이 있었다. 전 여자 친구가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다. 애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반찬통과 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녀의 생각을 나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헤어질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없었다. 나는 또 다시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약간의 쇠 맛이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서 보았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수학자처럼 가만히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일단 서랍 속에 접어 넣어 두었다.

2.

버림받은 아이였다. 부모는 이민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나는 사춘기를 겪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혼란한 시절이었다.

내게는 형이 있었는데, 사춘기랄 것도 없이 자라버린 사람이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가기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다가 나는 그쯤해서 눈 밖에 나 있었다.

부모에게 버려진다는 건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곳과 정신이 되돌아갈 수 있는 장소는 다른 문제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는 듯 느껴졌다. 열여섯 그쯤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드문드문했다.

그 남자가 나오는 악몽에 괴로워하다가 깨어났다. 그대로 잠들었다가 알람에 일어난 것이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따르르릉. 고통스러워 할 틈도 주지 않는 알람이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따르르ㅡ. 탁상의 알람시계를 끄고 침대에 누워 머리를 살짝 눌러보았다. 지끈거리기는 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알람의 잔상이 방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관뒀었지. 이제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시계를 당장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차바퀴 아래 넣고 밟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듯 했다. 잘못 던져 나무에라도 걸리면 거기서 계속 울어댈 것이 아닌가.

통장을 들춰보았다. 거기에는 아직도 가난이란 숫자가 빽빽이 들어 차 있을 것만 같았다. 거기에는 오 천 만원 하고 십 몇 만원이 더 있었다. 가난은 어디에도 없었다. 방세도 이미 일 년치를 내고 난 후였다. 최종 목표치를 채운 것이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었다. 쓰레기에 먼지에 머리카락에 냄새까지 최악의 방이었다. 담배를 너무 피워서 천장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전날의 여파로 담배는 당연히 없었다. 머리카락을 쓸어 담다가 말고 다시 옷을 주워 입었다. 겉옷이라고는 이름표 달린 싸구려 양복 아니면 패딩뿐이었다.

또 검고 냄새나는 패딩을 입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알람시계도 함께였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전 여자 친구의 흔적이었다. 키티 시계라니. 꼴도 보고 싶지 않았다. 키티의 발 부분을 바퀴 고임목을 대듯 끼웠다. 딱 맞는 바로 그 크기였다. 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었다. 부르르 하는 진동이 울렸다.

브레이크를 떼면 시계는 발부터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살짝만 밟아도 상처가 난 엔진은 잔뜩 그르렁거렸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뗄 수가 없었다. 브레이크가 너무 가벼워서 살짝만 놓아도 차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반대편 벽에 부딪힐 것만 같았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시 걸었다. 차가 튀어나가는 상상을 하니 식은땀이 났다. 재수 없는 시계 같으니.

트렁크를 열어 시계를 던져 넣었다.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웠다. 담배를 사고 나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머리와 옷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죽머리는 내게 어울리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열어 보았다. 그 여자의 번호를 저장해 놓을 걸 하는 후회를 했다. 핸드폰과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구부정하게 몸을 수그렸다. 하지만 추위가 가시지를 않았다. 술이 떠다니는 배 속은 후끈후끈 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부분은 하얀 피부를 베인 기분이었다. 얼굴과 목이 빨개져갔다. 한 오 분쯤 걷다가 나머지 오 분은 뛰어서 원룸까지 들어갔다.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가며 생각했다. 내일은 청소를 해야지 시계도 박살내버리고 패딩도 맡기고 그 여자한테 전화….

3.

잠에서 깨고 보니 어디선가 전화가 와 있었다. 부재중 전화 2건. 두 사람이었다. 사장인가. 취해서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는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욕이라도 해야 하나. 될 대로 되라지. 만날 일도 앞으로 없을 텐데.

이불을 펄럭펄럭 흔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사이로 먼지가 거대한 멸치 떼처럼 흔들렸다. 부엌에 있는 환풍기를 틀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옥상까지 가기는 너무 귀찮았다. 쓸면 또 먼지가 쌓이고 쓸면 먼지가 또 쌓였다. 그렇게 고군분투 하는 중 드라이클리닝을 불렀는데 금세 와서는 초인종을 눌러댔다.

“얼마나 걸릴까요?”

“여섯 시 전 까지는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구요.” 이불 배달부는 그대로 사라졌다. 나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나저나 새 이불 냄새를 맡는 게 얼마만인가. 그렇게 들어와서 보니 책상 위에 패딩이 그대로 있었다. 에라이. 오늘까지만 더 입지. 어차피 더 입을 일도 없을 텐데. “

방을 깨끗하게 치웠다. 기분이 왠지 좋았다. 이사한 날에는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던데, 그 기분을 알 것 같았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다. 짜장면이 오는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짜장면을 다 먹고 대자로 누워서 노르스름한 천장을 보았다. 딸려오는 봉투에 그릇들을 대충 담아 문 밖에 내놓았다. 더러운 그릇.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웠다. 후 하고 천장을 향해서 연기를 뱉어댔다. 뭐가 잘못 된 걸까. 뭐 때문에 천장이 누렇게 변했을까.

모르는 전화가 오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티슈 생각이 났다. 티슈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핸드폰 바로 옆에 놓았다.

01073201145

그 번호였다. 이미 내 번호를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전화를 하는 것을 보니 정상인 여자는 아닌 것 같았다. 못 하고 끝나 아쉬운 걸까. 나는 지금 깨끗한 내 집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좋았다. 당장은 전화할 필요 없겠지. 영원히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여자는 많았다. 나는 내 시간이 필요했다. 잠깐 쉬면서 정리할 시간이.

그대로 잔 모양이었다. 삼십 분 쯤 이었을까. 핸드폰이 또 다시 울리고 있었다. 아이 씨. 짜증나게. 아까 그 번호였다. 망할 년. 아주 작정을 했구나.

술에 취해 오 천 만원을 모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달라붙는 것일 수도 있다. 대충 말이 됐다.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다. 문자도 몇 개 온 듯 했지만 상관할 바 아니었다. 또 땅바닥에 누웠다. 이불이 없어도 잠이 잘 왔다. 이불 배달원이 초인종을

울리겠지. 그 때 일어나면 돼….

한 때는 편의점만 가면 오백 원짜리 물과 천 원짜리 아이스티를 고민했다. 가끔 아이스티를 사먹으면 월말에 돈이 모자랐다. 죗값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그 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주 생각하곤 했다. 가혹했다. 나의 잘못을 모두 더해도 그보다 더 가혹하다고 느꼈다.

부모와 형이 해외로 가기 보름 전 쯤 집에 들어갔었다. 그 날 밤 부모는 나를 작정한 것처럼 때렸다. 나는 자려고 누웠다가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었다. 그 날 밤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내 속에 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추상적인 움직임이었음에도 나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거기서부터 잘못 된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모든 것을 무너트릴 그 무언가를 몰래 숨어 자던 다리 밑 장사를 접은 포장마차 밑에서 느꼈던 것이다. 그 추위와 고통은 거기서부터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등을 맞댄 남자가 또 다시 꿈에 나왔다. 그는 등을 맞대고 반대편에 묶여있는 나를 베어댔다. 으히히히하는 웃음이 내 머리를 베는 것 같았다. 일주일 만인가. 언제나 같은 꿈이었고 같은 통증이었다. 그가 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상상일 뿐이었다. 발버둥치고 싶었지만 아무런 힘도 나지 않았다.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꿈의 세계를 붕괴시켰다. 자꾸 꿈을 꾸니 많이 자도 생각보다 덜 개운했다. 머리가 종을 메달아 놓은 듯 지끈거렸다. 무게중심이 쏠릴 때 마다 종이 울릴 것만 같은 통증이 찾아왔다.

띵동. 아마 바쁘겠지. 그래도 이건 너무 하다고 생각했다. 뎅뎅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듯한 착각을 머리에 이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이불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왜인지 그 여자는 미간을 모았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하고 내가 너한테 강요했어? 네가 날 설득한 거잖아. 어?” 말이 빨라 순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 나는 가만히 서서 이불을 들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다. 옷을 너무 얇게 입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세탁소 딸인가. 심부름이 생겨서 짜증이 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불 배달….”

그녀는 내말을 잘랐다. “이딴 거 알 바야?”

그녀는 이불을 내게 던지고 내가 허둥대는 틈을 타 하이힐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도 키가 165cm 쯤 되는 것 같았다.

“저.” 나는 할 말을 잇지 못했다 . 그녀는 베이지색 숏 스커트에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목까지만 오는 단발 이었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옆선에서 무언가 익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뭐.” 그녀는 뒤돌아 내 얼굴을 째려보며 침대에 가서 앉았다. 남자혼자 사는 방에 와서 침대에 앉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발목은 긴 양말로 그 가냘픔을 가리려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요금은 벌써 드렸을 텐데요.”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다.

“그게 아니야.” 그녀는 침대를 손으로 탕탕 내리쳤다. “여기 앉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앉았다. 그녀는 정면에서 오른편으로 시선으로 호를 그리며 나에게 시선을 옮겼다.

"진짜 기억 안 나?"

"요금은 냈ㅡ." 그녀는 작은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랑 같이 죽기로 했잖아."

죽기로ㅡ

그녀의 '죽기로' 라는 단어에는 흰 수의에 어울릴 같은 슬픔과 체념. 모든 것을 떠나보낸 후의 평온함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종교라면 괜찮아요. 교회에 가끔 가긴 하거든요." 나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개자식."

그녀는 입술을 잘근잘근 물었다. 눈은 위를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인가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쌍꺼풀이 없는 것 같은 눈이었는데 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속꺼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그 차타고 절벽에서 떨어지기로 했었잖아."

그녀는 허공에 대고 말하듯 한숨 쉬듯 말했다. 내가 미안해져야 하는 그런 말투였다. 동그란 금속 귀걸이가 숨결에 바들바들 흔들렸다. 그에 따라 나도 흔들렸다.

"제가 언제 그쪽을 만났죠?"

"어제 12시부터 새벽 내내 같이 있었지."

그 여자구나. 그 여자가 이 여자구나. 그녀는 실연당한 여자처럼 발끝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내가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혼란스러웠다.

"그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우리는 같이 죽기로 약속했으니까. 내말을 듣고 지키든 지키지 않든지 결정해."

4.

"너는 입양됐어. 부모는 사라졌지. 입양된 집에서 도망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고. 너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다. 그 이질적인 하얀 목선은 시선을 천천히 매끄럽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의 숨은 거꾸로 들어가는 듯 했다.

"맞지? 물 좀 줘."

커피포트로 걸어가 물을 끓이는 중에 그녀는 이야기를 다시 이었다. 손이 떨렸다.

"결국 간 곳은 나이트였고 웨이터가 됐지. 거기서도 계속 혼자였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삐죽 머리였어."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내가 내민 머그컵에 든 차를 들고 반 쯤 마셨다. 물이 허우적거리며 빠져나가는 모습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컵을 허벅지 위에다 두 손으로 가지런히 잡고 있었다. 아마 손을 녹이려 한 행동이었겠지만 고해성사를 하러 온 수녀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사건이 있었지. 다른 지역 건달들이 너희 나이트를 공격 한 거야. 웨이터도 건달들도 전부 쓰러지고 나이트는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 너는 맥주병을 들고 머리로 깨서 건달들 배를 찔러버렸지. 혼자 다섯 명 쯤 찌르니까 다른 웨이터들도 건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그렇게 너는 웨이터에서 건달이 된 거지."

그녀의 눈이 내 눈에 꽂혔다. 맞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맞지만 왜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서였다.

"너는 그 이후로도 맥주병을 머리에 깼지. 나이트 무대에서도 싸울 때도 선배들 앞에서도. 기절할 때까지 깨야했지. 거기서 깨달은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맥주병을 20개쯤 깨는 벌을 받고서야 다시 웨이터로 돌아갈 수 있었어.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든 건달이든 너의 인생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나는 침대 시트같이 구겨져 가만히 있었다. 평소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짠하고 나타나는 건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몸속에 있는 뭔가를 꺼내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억 하고 가만히 그것을 보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건 어떻게 알았죠?" 나는 최대한 감정을 감추려 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 허벅지 밑으로 넣어버렸다.

"네가 다 말해줬잖아. 그리고 애초에 같이 죽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너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어. 집도 팔아버렸어. 이제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거기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물 같은 것이 고여 있는 것을 슬쩍 본 느낌이었다.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니 작은 파장이 일는 것도 느껴졌다. 아주 잠시였지만 말이다.

"나도 너랑 같아서. 구원이 없어서.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 그 남자. 네가 꿈에 나온다고 한 남자가 이제 내 꿈에도 나와."

나는 모든 얘기를 다 한 듯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나의 모든 지도를 말이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자 그녀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나의 싱글 침대에 누워버렸다. 침대에서는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침대 안의 스프링도 녹슬어 있겠지. 여자아이는 으아아 하는 소리를 누워서 냈다. 내 얘기도 기억이 안 나지. 그녀는 말했다. 나는 머리가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음을 느끼고만 있었다.

"나가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 나는 말하면서 양말을 찾았다.

그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저렇게 나가면 추울 텐데. 나는 아직 신발장 위에 올려 있는 이불을 침대에 던져 놓고 신발장 앞에 걸려있는 패딩을 입었다. 지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는 패딩이었다. 저 여자는 어쩌지 생각하다가 걸려 있는 바람막이를 함께 챙겼다. 어딘 줄 알고 나간거지.

5.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주차장에 있는 벌 생각이 났다. 나는 바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1층쯤 그녀는 벌벌 떨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헉헉대며 내가 바람막이를 걸쳐주자 그녀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웃는데도 슬퍼 보이는 그런 종류의 표정이었다. 겨울이라기보다는 찬바람이 처음 분 여름밤의 표정과 같았다.

우리는 편의점으로 갔다. 거기 있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기로 했다.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치자 웃음이 나왔다. 도로를 보며 내가 웃자 그녀는 벌써 미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휴게소에 가서 뭔가 먹을 것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

다. 나와 그녀는 함께 국수를 사먹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잔뜩 사기로 했다. 그녀는 “죽기 전에도 배부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내 삶이 온전하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 고민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사실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음식을 골랐다. 빵과 우유 몇 종류 없는 음료수도 하나씩 다 사고 오징어와 밤도 샀다. 그녀는 내가 밤을 집어 바스켓에 담고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자그마한 고양이 인형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

“자석이 달려 있잖아. 나갈 때 분명 경보가 울릴 거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리고 몇 개의 과자를 더 골랐다. 내 바스켓 뿐 아니라 그녀의 품에도 물건이 한 가득이었다. 한 가득 있는 물건을 살 돈은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의 인형을 살 수가 없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 걱정하며 계산대에 물건들을 쏟아내었다.

자석을 판별하는 큰 스캔기 두 대 사이로 그녀가 지나갔다. 하지만 스캔기는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는 동안 세 번이나 그 사이를 왕복했다. 고장이 난 듯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안심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스럽지 못한 듯 했다. 나는 조용히 내 갈 길을 가고 싶을 뿐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는 양 손에 봉투를 들고 차로 돌아가려 했다.

“어머!”

내 바로 뒤에 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멀리서 들렸다. 카운터 쪽이었다. 그녀는 열쇠고리를 꺼내 종업원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계산을 안했네요. 제가 깜빡 하구요. 오빠 이것 좀 계산해줄래?”

나는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계산대로 갔다. 그리고 카드를 꺼내 그 고양이가 얼굴을 부비고 있는 열쇠고리를 계산했다. 계산원은 우리가 산 물건 때문에 그녀가 일부러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나오며 내게 말했다.

“재미있지?”

그녀는 고등학생 같았다. 수업이 끝나면 “저 선생 멍청한 표정 짓는 거 봤지?”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과 비슷했다.

나는 그 모든 짐을 들고 차로 향했다.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올 때까지 담배를 피워대며 감자칩과 콜라와 커피와 땅콩, 오징어를 먹고 있었다. 오징어 다리 3개쯤에서 멀리 그녀가 쇼핑백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차의 본네트를 탁탁 쳤다.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정말 고등학생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내리자 그녀는 나의 패딩을 벗기고 새 것을 입혔다.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잘 어울리네.” 하며 나를 보았다. 슬며시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어색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 내 패딩을 버리려 했다. 나는 잠시 그녀를 그저 보다가 달려가 패딩을 움켜쥐었다. “ 혹시 모르잖아.”

그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나는 트렁크를 열어 패딩을 던져 넣었다. 팔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와 다시 집어넣는데 키티 시계가 보였다. 나를 원망하는 듯 한 그런 눈을 뜨고 있었다. 네 잘못이야. 나는 트렁크를 닫고 새 패딩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석유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쁘지 않네, 하고 이야기 해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차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었다. 주차장에서 나가려 차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어!” 하는 소리를 냈고, 거대한 메르세데스가 클락션을 울리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검은 양복을 입은 운전자가 나를 보며 쌍욕을 하곤 휙 지나갔다. 뒤의 남자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고 메르세데스는 고래처럼 스르륵 지나쳐 갔다. 어디엔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뒤에 타.” 나는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그럼 다다음 휴게소에서 만나.”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좋아. 나는 그녀가 내리자마자 페달을 굴렸다. 윙-윙 하는 엔진의 동력이 페달에 착 감겨왔다. 석유 냄새가 나는 패딩을 벗어 던졌다.

메르세데스는 1차선을 따라 유유히 달리고 있었다. 잠수함과도 같은 묵직함이 거기에는 있었다. 내 차는 조급한 참다랑어같이 고래를 쫓았다.

고래 뒤에 붙었다. 고래는 의식했는지 속도를 빠르게 내기 시작했다. 흐ㅡ 하는 웃음이 나왔다. 상향등을 올렸다 내렸다하기 시작했다. 고래는 속도를 줄이며 내 앞을 막으려 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하고 있었다. 차 두 대가 도로 위에서 빨간 노란 뒤꽁무니를 흔들어대며 춤추기 시작했다. 하나의 휴게소를 지나쳤다. 풀 악셀을 밟았다. 나의 다랑어 몸체에서 뒤틀리는 듯 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4차선으로 자리를 옮겨 고래를 앞지르려했다. 고래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웃음이 터져 나와 참을 수가 없었다. 고래는 앞에서 빨간 꼬리를 깜빡이며 덜컹대고 있었다. 나는 포기한 것처럼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30까지 속도가 줄었다. 거기서 다시 악셀을 가득 밟았다. 왼쪽 차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속도가 100까지 치솟았다. 고래는 작은 반동으로도 엄청난 속도를 내며 다시 따라왔다. 왼쪽으로 도는 커브였다. 다음 휴게소까지 2KM. 왼쪽으로 돌며 고래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고래는 묵직했다. 계속 웃었다. 옆으로는 논이 보였다.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다. 운전사는 내 얼굴을 보고는 핸들을 놓쳐버렸다. 고래는 관성을 이용해 가드레일을 뚫고 논으로 뛰어 들어갔다. 얼어있는 논. 고래에게 잘 어울리는 장소였다. 논이 얼어있어 메르세데스는 논에 처 박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뒹굴거렸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르릉 멀리서 무언가가 울어대는 소리가 났다. 내 유일한 구원자라 생각했었던 전 여자 친구가 생각났다. 500m 앞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다. 차가 덜렁거리며 멈추려 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나는 뒤질 거야. 그렇게 막아도 뒤질 거야. 조ㅈ같은 인생 뒤져버려야지. 따르르릉ㅡ. 가드레일을 받은 후 나도 논으로 뛰어들려 했다. 속도가 늦어지더니 다랑어는 천천히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빈 후에 잠들어 버렸다. 한참을 따르릉거리는 키티 시계의 알람을 들으며 흐느꼈다. 씨발 망할. 개같은 씨발.

십분 쯤 지나고 차에서 나왔다. 패딩과 과자더미들을 전부 논으로 던져버렸다. 망할 것들.

트렁크에서 키티 시계와 패딩을 꺼냈다. 그래도 뒤질 거야. 키티 시계의 알람을 꺼버렸다. 패딩을 입고 휴게소로 걸어갔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웃길 광경이었을 것이다. 고속도로 위의 키티 시계 사내라니.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 중 가장 흉물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폭스바겐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를 찾느라 한 시간이나 휴게소를 돌아다녔다. 누군가는 차를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터였다. 운전 할 수 있던 건가. 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어 버렸다. 다리 위에 키티 시계를 올려놓은 채였다.

한 사람과 내가 같이 묶여 있었다. 등을 맞대고 서로 칼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이히히히!” 그는 나를 조금씩 베었다. 옆구리, 다리 그리고 팔뚝에서 피가 흘렀다. 내 팔이 짧고 유연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졌다.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내 힘으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의식이 점차 몽롱해져가고 있었다….

“야!” 그녀는 나를 때렸다. 나의 의식은 강제로 번쩍 세워진 널빤지처럼 깨어났다.
“해 뜨겠어. 가자.” 그녀가 차를 몰았다.
나는 산 너머로 올라오는 빨간 물결을 바라보았다. 모두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하늘만은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어디로 가?”
그녀는 대답했다. “도둑질이 합법인 세상으로 갈 거야.”
“거기가 어딘데?”
“어디기는 어디야. 지옥이지.”

그녀는 앞을 보고, 나는 풍경과 키티 시계를 번갈아보며 달렸다.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서 우리는 깊은 산으로 갔다. 그녀는 미리 알고 있는 길인 냥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 절벽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경찰서로 갈까?” 내가 물었다.
“절대.” 그녀는 내 담배를 뺏어 피웠다.
“나 찔렀어. 나를 죽이려는 남자. 꿈에 나와 나를 베는 남자. 내 오른쪽 가슴을 뚫어서. 그 새끼 심장을 찔렀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다가 뒤돌아서 고개를 떨궜다.
“나랑 같이 가자.”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다. 그녀는 손을 탁 하고 쳐냈다.
“되돌아가. 너는 여기 남을 사람이었나 봐. 나는 벌써 가슴까지 빠져버렸어.”
그녀는 내 패딩을 벗겼다. 그리곤 내 바람막이 위에 내 패딩을 입었다. 차로 향하더니 키티 시계를 꼭 안고 나왔다.
“나도 필요했어. 무언가 연결될 물건이.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이거라면 충분히 따듯한 겨울이 될 것 같아.”

나는 곧장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내가 차를 두고 온 곳으로 향했다. 반대 쪽 차선으로 뛰어가 서리 내린 패딩과 과자들을 주워 담았다. 거기에는 얼굴을 비비고 있는 고양이 열쇠고리도 있었다. 집으로 향했다.

경찰차를 타고 움직이는 중이었다. 경찰차의 라디오에는 나와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10초 쯤. 그리고 진행자는 미국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말을 이었다. 국회의 정상화, 대통령 후보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빽빽하게 차 안을 채워 나갔다.
저녁이었고 땅거미가 올라오고 있었다.

소설2

거북바위

국어국문학과 20141138 한가희

후덥지근했던 여름이 지나가는지 아침공기가 쌀쌀했다. 다리를 건널 때는 제법 춥기도 했다. 다리를 지난 후 도로의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이제 몇 달 후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것도 끝일 것이다.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면 기숙사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십 분, 이십 분 거리에 있다면 통학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을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 시내에 가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통학하며 다니는 것보단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여러 면에서 훨씬 나았다. 무엇보다 굳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이른 아침의 시골의 도로는 한적했다. 새소리와 계곡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물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계곡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다. 다리 밑으로 흐르고 있는 계곡의 물줄기 폭이 많이 작아졌다. 이번 여름이 가물어서 물 양이 줄어든 것 같았다. 물줄기는 다리 밑을 지나 크고 작은 강돌을 거쳐 거대한 바위에 가닿았다. 사실 거대한 바위라기 보단 하나의 검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언덕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지도 모른다. 커다란 암석 언덕 옆에는 암석 언덕보다는 작지만 꽤 크기가 큰 검은 암석이 계곡에 따로 떨어져있다. 이 암석과 암석언덕을 함께 보면 꼭 거북이 같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암석과 암석언덕을 거북바위라고 부른다. 거북바위를 중심으로 계곡의 풍경을 보면 거북이 머리는 반쯤 계곡에 잠긴 채 얼굴만 빼꼼히 나와 있다. 암석언덕 즉, 거북이의 몸통은 머리가 있는 앞부분만 계곡에 조금 닿아있다. 거북이 몸통 오른쪽으로는 키가 큰 소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숲이, 왼쪽으로는 크고 작은 강돌과 자갈이 있는 모양새이다. 이 거북바위 위에는 용 발자국이 찍혀있다. 아주 오래 전, 이 계곡이 연못이었을 때 용이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그 전설에 나오는 용의 발자국이라고 한다. 이 전설에서 유래되어 이 계곡의 이름과 우리 마을의 이름이 '용담'이다.

이곳 용담에 처음 온 것은 아주 어릴 때였다. 아빠와 함께 거북바위가 있는 자갈밭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었다. 몇 살 때인지도, 왜 그곳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의 모습만큼은 또렷이 기억난다. 추운 겨울이었다. 아빠는 자갈밭에 서서 내 손을 꼭 잡고 마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셨다. 마을을 바라보다 문득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지오야, 저기가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그리고는 다시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바라보셨다. 이 기억이 용담에서의 첫 기억이자 아빠와의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용담을 마주한 건 할아버지와 함께였다. 7살 때쯤이었던 것 같다. 이때도 추운 겨울이었다. 물이 꽁꽁 얼어있었다. 할아버지는 얼음 위에서 내 두 손을 꼭 잡고 썰매를 끌 듯 끌어주었다. 볼이 따갑도록 추웠지만 꽁꽁 언 계곡 위에서 노는 게 재미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가자. 감기 걸리라."

"할아버지 좀 더 놀다 가자. 집에 가면 심심하단 말이야."

"군불때놔서 아랫목이 뜨뜻할끼다. 가면 잠이 솔솔 올 걸?"

"할아버지 나 안 추워.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좀 더 놀고 싶어서 할아버지를 졸랐다.

"그럼 여기서 저기 거북바위에 가볼래?"

할아버지는 계곡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검은 바위를 가리켰다. 무서웠다. 계곡 건너편은 어린 내가 보기에도 물이 깊어 보였다.

"무서운데... 가다가 얼음이 깨지면 어떡해?"

"물이 단단히 얼어서 괜찮다. 할아버지 있는데 뭐가 무섭나."

"그래도..."

"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바위 위에 가면 용 발자국이 있다. 보고 싶지 않나?"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무서웠지만 용 발자국이 보고 싶었다.

"정말 용 발자국이 있어?"

"정말 있지. 저 바위 맨 위에 있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걸어갔다. 바위에 다가갈수록 얼음 밑 물색깔이 점점 진해졌다.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았다. 도착한 검은 바위 위는 울퉁불퉁했다. 군데군데 바위틈에 자라난 갈색 잡초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맨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도착한 바위의 정상은 휑했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지나오다가 갑자기 평평해져서인지 어딘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할아버지는 평평한 바닥을 살피더니 한 곳을 가리켰다.

"이게 용 발자국이다."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 어떤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다섯 개의 발가락을 가진 발자국이었다. 발가락은 다섯 개지만 생긴 건 꼭 새 발가락 같았다. 할아버지가 손을 쫙 핀 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다. 용의 발자국은 내 몸보다도 더 클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우와, 이게 정말 용 발자국이야?"

"그럼. 옛날에 용이 이 바위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국이 남았다."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 거북이 아팠겠다."

"하하, 이 거북이는 바위여서 안 아팠을 걸?"

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생각에 잠겨 있다가 큰소리를 들어서인지 갑자기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다. 버스에 타 자리에 앉았다. 창가로 거북바위의 뒷모습이 지나갔다. 거북바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마을에 돌아오니 어느 새 노을이 지려하고 있었다. 계곡 끝으로 붉은 빛들이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거북바위 옆에 있는 소나무들은 노을과 대비되어 어둡게 보였다. 어두워진 소나무는 윤곽이 더욱 또렷해 보였다. 멋진 풍경이었다. 아름다운 풍경 밑으로 거북바위 위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어둡게 보여서 잘 안보였지만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손을 흔들며 거북바위를 내려오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할아버지였다.

"지오 왔나!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걸음이 빨라졌다.

"지오야, 같이 가자니!"

할아버지의 외침을 무시하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반겼다.

"다녀왔어? 할아버지 거북바위에 가셨는데 못 봤어?"

엄마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온 것 같았다. 엄마와 할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지오도 방금 들어왔는데 오다가 못 보셨어요?"

"못 봤다. 쓰레기가 조금 있길래 치우고 있었는데 고새 갔나보네."

"그래요?..."

"배고프다, 밥 먹자."

저녁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조용히 밥을 먹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제를 하고 방에 누우니 오늘 아침부터 아까 집으로 올 때까지의 일들이 생각났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2년 전,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학용품을 사러 시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와 같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다. 피곤해서인지 잠이 왔다. 창문에 기대 잠을 자려는데 햇볕이 따가웠다. 후드를 뒤집어쓰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잠에서 깨니 어디선가 내 이름이 들렸다. 앞쪽에서 마을 분 네 분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

"지오네 말이야. 지오가 할아버지를 어찌나 잘 따르는지, 지금도 매일 할아버지랑 산책을 가더라구."

"맞아, 참 보기 좋아. 요즘 그렇게 할아버지랑 친한 애도 드물 거야."

뭔가 듣기 좋으면서도 민망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시면 더욱 민망할 것 같았다. 후드를 좀 더 뒤집어쓰고 창문에 기대어 대화를 들었다.

"그런데... 지오는 그 일 알고 있나?"

"무슨 일?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지오애비일.. 지오애비가 지오 할아버지 때문에 죽었잖나..."

갑자기 바닥이 무너지는 듯 했다. 머리가 새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차사고 때문이라 들었다. 내가 어릴 때 아빠 혼자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가던 중 차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할아버지 때문일 수 있단 말인가...

"지오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한테는 다정해도 예전에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깐깐이였잖나. 아들한테 엄하기로 유명했었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랬다. 예전에 할아버지는 성격이 곧고 엄했다. 특히, 아들에게는 더욱 엄했다. 잘못을 하면 아들이 어린데도 한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밖에 세워놓고 벌을 줬다고 한다. 아내를 여의고 아들을 올곧게 키우려고 저렇게 엄하게 구는구나 하고 이해해도 가끔씩 보기에 너무 심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군인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다. 아들이 장성해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하자 동네가 뒤집어졌었다고 한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인이 되었고 어느 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아들의 혼기가 차자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며느리 감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집안도 괜찮고 참한 처자를 찾아 맺어주려고 했는데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으나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몰래 집을 나와 따로 살림을 차렸다. 할아버지는 이를 알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노발대발 했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후, 아들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어렵게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눈길을 주기는커녕, 추운 겨울임에도 방에조차 들이지 않았

다. 그 날 아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군인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자기가 진짜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며, 소방관 시험을 보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아들을 방에 가둬버렸다.

"이 이야기를 그때 다 들었었지.. 그때 내가 지오네 할아버지 옆집에 살았었잖나. 소리가 어찌나 큰 지, 우리 집까지 다 들렸었어. 지오애비가 방에 갇히니까 지오애미는 어린 아를 안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 병 걸릴까봐 보다 못해 우리 집에서 재웠지... 손발이 다 얼어가지고.. 아직도 생생하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일이 났지..."

"일?"

"지오애비를 가둬 둔지 8일쯤 된 후였나? 그 날이 지오애비 시험이 있는 날 이었나봐. 시험시간이 다가오는 데 설득해도 지오할아버지가 도저히 풀어주질 않았나봐.. 나중에 들었는데 시험 한 시간 전에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 시험장이 여기서 두 시간 거리인데 늦게 출발했으니 속도를 많이 냈겠지... 그러다 사고가 났지..."

"에구머니나... 그런 일이 있었어?"

"에고... 그 뒤로 지오애미랑 지오를 받아 준거야?"

"장례 지내고 몇 달 후에 지오애미랑 지오가 들어왔지..."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입을 막고 최대한 숨을 죽였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내렸다. 곧 용담의 다리가 보였지만 내리지 않았다. 지금 집에 가면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을 터였다. 믿기지 않았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던 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종점에서 내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와 다리에 내렸을 때는 저녁이었다. 늘 그렇듯 할아버지가 거북바위에서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다.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한 채 걸었다. 금방이라도 감정이 폭발할 것 같으면서도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다. 속이 울렁거렸다.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아 집으로 뛰어갔다.

며칠 후, 나는 늦은 밤에 엄마에게 조심스레 아빠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당황해하셨다. 버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을 못하시다 말씀하셨다.

"사실 아니야."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뒤로 어떤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그때 이후로는 늘 이런 모습이었다. 처음 할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도, 오늘도.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창문에 날벌레들이 달려들어 부딪쳐 죽은 흔적이 남아있듯 불편한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같았다. 속이 메스꺼웠다. 메스꺼움을 참고 잠이 들려 하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들겼다. 엄마였다.

"지오야, 잠깐 들어가도 되니?"

"네."

엄마는 방문을 조심스레 닫고는 나를 마주보고 앉으셨다.

"지오야, 할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아무 일 없어요."

"그럼 왜 자꾸 할아버지를 피하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이 없자 엄마께서 말하셨다.

"지오야, 너 전에도 할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냥 피해 왔지?... 혹시 그때 말했던 이야기 때문이라면 아니야. 전에도 엄마가 말했잖아. 그 말들 사실 아니야."

참아야했다. 분명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엄마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았다. 하지만 답답했다. 엄마도 분명 알고 계실 터였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다. 누구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왜 할아버지 편을 드는지, 왜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단순히 사고였어. 운이 나빴지...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토해내지 못한 감정이 이제는 메스껍다 못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피하지 말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해. 예전에는 할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냈잖아."

"그만해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참아왔던 말과 감정이 뒤섞인 채 마구잡이로 튀어나왔다.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 사고든 아니든, 결국 할아버지가 아빠를 가둬두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잖아! 엄마랑 나도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아준 거잖아!"

"지오야, 그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아버지는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내 앞에서도 아빠 욕을 했어. 엄마랑 내 앞에서도.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나랑 엄마 받아준 것도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부양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 잖..."

짝-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나를 때린 손은 그대로 든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

"엄마..."

엄마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리셨다.

그 날 이후 몇 달이 흘러, 겨울 방학이 왔다. 하루 종일 방안에만 있기 답답해 마을을 걸었다. 며칠 전에 왔던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 이곳저곳 쌓여 있었다. 정처 없이 걷다보니 건너편에 거북바위가 보였다. 아직 할아버지는 와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이면 거북바위에 올랐다. 용 발자국이 있는 거북이 등에 앉아 있다가 내려오고는 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아무데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마을의 자연물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신다며 존경하고 칭찬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도 할아버지가 좋았다. 마을의 자연물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늘 다정한 할아버지가 그냥 좋았다. 가끔 아빠 이야기가 나올 때면

"멍청한 놈 이야기 그만해라."

"애비도 없었지. 망할 놈..."

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내고는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러는 게 엄마 말대로 아들이 그리워서인 줄 알았다. 늘 다정하고 친구 같은 할아버지였기에 엄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거북바위를 바라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버스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할아버지를 따라 용담에 왔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계곡을 쭉 걷다가 노을이

질 무렵이면 거북바위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계곡을 걸을 때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거북바위에 앉아서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 내려오고는 했다. 가끔, 아주 가끔 내가 심심해하면 용 발자국에 관한 전설이나 거북바위 위에 있던 사당에 대해 말해주고는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거북바위 위에는 사당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 지어진 사당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를 올렸다. 제를 지내면서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고 제가 끝나면 그곳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한다.

"그때에는 마을에 젊은이들이랑 아이들도 많아서 잔치를 할 때면 북적북적했지.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다들 흥겨워서 춤을 추곤 했다. 거북바위도 먹으라고 거북바위 머리 근처에 음식을 놓아두기도 했다. 거북바위가 용 발자국이랑 옆에 있는 소나무 숲을 지켜주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마을 집들을 해치지 않는 게 거북바위가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믿었지. 다들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어찌나 신이 나 했는지..."

사당과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할아버지의 눈은 그리움이 가득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춤을 췄던 그때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정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와 며느리를 내치고,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았을까.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이 소란했다. 이장님 댁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기도 땅 주인이 있었나?"

"그런다고 거기가 돈이 되나?"

"그 거북바위는 우리 마을 지켜주는 바위인데 깨부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말소리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거북바위 옆 소나무 숲에 주인이 있는데 점점 용담의 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늘자 거북바위와 소나무 숲을 없애고 캠핑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았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한 바위니 없애면 안 된다는 쪽과 캠핑장이 생기면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농작물을 팔 기회도 늘어날 것이니 좋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뉘었다. 할아버지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않나 싶었다. 거북바위가 사라지면 할아버지가 아쉬워하겠지만, 사당이 사라졌듯이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일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대의 중장비들이 계곡 근처에 나타났다. 겨울이라 작업이 쉽지 않음에도 돌아오는 여름에 장사를 할 수 있게 일찍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거북바위에 올라 내려오지 않았다.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땅주인이 이를 보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했지만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땅주인은 엄마와 이장님께 내일 다시 올 테니 할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후 돌아갔다. 엄마와 이장님은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밤이 되어도 할아버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추운 겨울에 노인이 돌 위에서, 그것도 물가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엄마는 집에서 따뜻한 꿀물과 이불을 챙기셨다. 엄마는 내가 함께 가서 설득하면 할아버지가 내려오실 거라며 함께 가자고 하셨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할아버지가 걱정됐다. 계곡물도 어는 날씨였다. 결국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갔다.

계곡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할아버지는 덜덜 떨며 바위에 앉아있었다. 엄마는 집에서 꺼

내온 이불로 자리를 깔고 할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엄마와 할아버지, 나 모두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앉아있었다. 물소리와 바람소리, 할아버지의 기침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만 가자."

내가 말했다.

"밤에 간 줄 알고 분명 공사를 하러 올 거다. 공사를 취소하기 전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다고 땅주인이 공사를 취소하진 않을 거야. 할아버지 몸만 아프지. 내려가자, 할아버지. 어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할아버지 목숨보다 거북바위가 중요해?!"

덜컥 소리를 질렀다. 화가 났다. 대체 무엇 때문에 거북바위를 지켜야하는지, 할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돌덩어리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아빠도 죽게 하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건데!"

할아버지는 돌이 된 듯, 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께 무슨 말 버릇이야!"

엄마도 놀라신 듯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소리치셨다. 나는 그대로 거북바위를 뛰어내려왔다. 할아버지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고, 할아버지가 싫었다. 집에 돌아오니 울음이 나왔다. 그동안 쌓아왔던 게 다 터져 나왔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울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음날, 할아버지와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도 다시 몰려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오네 할아버지는 왜 저러신대? 아무리 마을의 신령한 돌이라지만 주인이 있는 걸..."

"그러게 말이야. 어쩐대, 저러다 병나겠어."

마을 사람들을 지나 거북바위로 가려는데 땅주인이 왔다. 이장님과 이야기를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옆에 있는 건장한 사내 두 명에게 무어라 말을 했다. 사내들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할아버지를 끌어내려 했다. 할아버지는 악을 질렀다.

"이거 놔! 이거 놔라! 내가 죽기 전에는 여기서 못 간다! 못 간다!"

그 뒤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달려가고 있었고 할아버지 팔을 잡은 사내의 얼굴을 쳤다. 엄마는 다른 사내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게 맞은 사내가 나를 밀쳤다.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쳐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사내의 다리를 잡았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할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사내들이 엄마와 나를 밀쳐내려 할 때,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사내들은 당황해 할아버지를 끌어내는 걸 멈추었다. 이장님과 몇몇 마을 사람들은 땅주인을 둘러쌓다.

"그만하세요!!"

"이곳은 우리 마을 땅이다! 그 누구의 땅도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당장 사과해라!"

사람들이 소리쳤다. 땅주인은 얼굴을 잠시 찌푸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이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땅주인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마을을 떠났다. 땅주인이 떠나자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사

람들이 놀라 응급차를 불렀다.

탈진이라고 했다. 며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고 했다. 할아버지를 일반병실로 옮기고 나서 엄마는 잠시 동안 우셨다. 한 시간정도 지난 후 엄마가 말하셨다.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봐. 여기는 엄마가 있을게."

몸이 아프고 피곤했지만 이곳에 있고 싶었다.

"여기 있을게요."

여덟 시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깨어났다. 할아버지는 엄마와 나를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지오야, 지오야... 미안하다... 할애비가 미안하다... 지오 엄마야, 미안하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고 삼 일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이제 다 나았다며 병원을 나오고 싶어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원을 하기로 했다. 엄마는 집을 너무 비워두면 안된다고 집에 가있으라고 했다. 엄마는 할아버지 짐을 챙기기 위해 함께 집에 왔다가 병원으로 가기 전, 내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지오야, 네가 그날 버스 안에서 들은 이야기... 모두... 사실이야. 그때 할아버지는 많이 엄하셨고, 처음에는 너와 내게 눈길도 주시지 않으셨어. 사고가 나던 날, 아빠를 가둬두었던 것도 맞아...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는 아빠 장례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와 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아들이 잘 성장하여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도 기뻐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들이 군인이 되기를 바랐고 더욱 엄하게 키웠다. 아들은 말썽 한번 피운 적 없이 잘 자랐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자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군인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소방관 역시 명예로운 직업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군인이 되는 것이 좀 더 아들에게 좋아보였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군인이 되라고 했고 아들은 결국 군인이 되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다. 아들은 잘 뒷받침해줄 수 있고, 참한 여자를 찾아 아들과 연을 맺어주고 싶었다. 말썽한번 피운 적 없이 할아버지의 말을 늘 잘 따랐던 아들이었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아들이 행복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들에게 화를 냈고, 할아버지가 소개한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러자 아들은 집을 나가버린 것도 모자라 따로 살림을 차렸다. 할아버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만약 아들이 다시 찾아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엄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년 후,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이 괘씸했다.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와 손자 역시 내 며느리, 내 손자 같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아 죄송하다더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겠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며칠 후 있는 소방관 시험에 합격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군인도 관뒀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아들을 더 엄하게 잡지 않으면 더욱 할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필요도 없이 다 큰 아들을 작은 방에 가둬 버렸다. 이곳에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할아버지는 이러면

아들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아들의 죽음이었다. 할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할아버지는 후회하고 말았다. 너무 늦은 후회였다.

"할아버지가 왜 매일 거북바위에 오르시는지 아니?"

"왜요?..."

"전에 네 아빠가 말해준 적이 있어. 옛날에는 거북바위에 사당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를 지내고 잔치를 했대. 네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잔치에 데려간 적이 있대. 노랫소리에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췄는데 그때 할아버지 밝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었대.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사당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잔치에 네 아빠를 데려가셨는데, 매일 엄하게 대하셨던 할아버지가 그날만큼은 매번 네 아빠 손을 잡고 춤을 추셨대. 그래서 그 잔칫날이 일 년 중 가장 좋은 날이었다고 말해주더라. 할아버지는 네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매일 거북바위에 오르셨어. 장례를 치른 후, 얼마동안은 거북바위에 갔다가 오시면 오랫동안 많이 우셨어. 그렇게나 엄하셨던 할아버지가. 가끔 할아버지가 아빠 욕을 하는 것도 어쩌면 본인이 너무 밉고... 네 아빠가 그리워서... 그러시는 거야. 할아버지는 많이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계셔. 엄마는 네가 할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는 며칠 후 퇴원하셨다. 할아버지의 퇴원과 함께 거북바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 날 이후 마을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신령하게 생각하고 마을의 전설이 담긴 거북바위를 지키자는 운동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여 거북바위와 소나무 숲 땅주인으로부터 아예 땅을 사서 누구의 것도 아닌 마을의 것으로 돌려놓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성금 모으기와 농작물 판매를 통한 기금 마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퇴원하시자마자 늘 그랬듯이, 노을이 질 무렵 거북바위로 가셨다. 머쓱하게 할아버지를 따라 갔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며 거북바위로 가셨다. 할아버지는 거북바위 위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셨다.

"할아버지"

"와."

"할아버지..."

"지오야."

"응?"

"지오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에는 사당이 하나 있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를 지내고 잔치를 했지. 그때에는 마을에 젊은이들이랑 아이들도 많아서 잔치를 할 때면 북적북적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다들 흥겨워서 춤을 추곤 했지. 다들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신이 나 했지... 그 중에서도 네 아빠가 가장 신이나 했다."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셨다. 할아버지가 아빠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다.

"쪼만할 때 처음 데려왔는데, 그 조그마한 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매일 기가 죽어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신이 나하니 기분이 좋았다."

할아버지는 거북바위를 쓰다듬으셨다.

"그때만큼은 그냥 웃고 즐겨도 네 아빠도 이해해줄 것 같았다. 아버지로서 근엄하게 굴지 않아도 아버지를 알아줄 것 같았어. 아비가 근엄한 건 너를 위한 거다. 너를 바로 키우

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작은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다는 걸... 할애비는 너무 늦게 알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서려있었다.

"할아버지, 아빠도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처음 여기에 온 날, 이 거북바위 옆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던 아빠의 눈은 지금 할아버지 눈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우셨다. 우시면서도 거북바위를 자꾸 어루만지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께 할 말이 있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와, 뭐 할 말 있나."

"아니... 그게... 그동안 죄송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씩 웃으시며 말하셨다.

"그런데 너 언제부터 존댓말 썼나.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이상하다."

소설3

순간

국어국문학과 20151115 노이지

오늘도 그는 눈을 뜨고 난 후 삼십분 가량을 침대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궁금해졌다. 그에게 있어 무언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재밌는 일이 일어날 만 같았다. 매일 보던 tv프로그램이 끝나고 새 프로그램이 나온다던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싸워 좋은 구경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그런 에피소드 등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달력을 좀 볼까.' 마감일인 매주 넷째 주 금요일을 뺀 모든 요일은 그에게 있어 다 똑같은 날이었다. 흠, 오늘은 토요일이네. 참, 어제 내가 편집을 다 끝냈던가? 그는 탁 트인 넓은 거실로 나가며 자신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되새겨 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넓은 거실을 보자마자 얼른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집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거실은 크기만큼이나 매우 더러웠으며 가구는 꼭 필요한 책상, 컴퓨터, 피아노, 의자 따위가 고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 위에는 알 수없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특히 책상 위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굴러다니고 있어 봐주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청소를 해야겠다는 일말의 생각이란 것을 하며 의자에 몸을 맡겼다. 컴퓨터를 키려고 하자 어제 먹은 사발면이 그의 팔에 치였다. 안을 힐끔 보니 아직 국물도 채 그대로였다. '청소는 나중에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게 시간도 체력도 아끼는 거라고.'

그는 능숙하게 컵라면을 옆으로 밀고선 컴퓨터를 켰다. 늘 그랬던 것처럼 메일을 확인하자 읽지 않은 메일들이 빼곡히 칸을 채워갔다. 볼 것도 없이 새로 온 메일 모두 편집장에게 온 독촉메일들이었다. 가장 최근 메일의 맨 밑에는 안부 대신에 '지헌씨, 설마 마감일이 금요일인걸 잊은 건 아니겠지? 얼른 아무 그림이라도 좀 보내라고.' 라는 추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생각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쩌라는 거야. 뭐 늦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편집장과 그는 2년 동안이나 일을 같이 했지만 서로의 얼굴도 알지 못했다. 통화를 몇 번과 수많은 메일을 주고받은 덕에 그나마 목소리와 이름은 아는 것이 다행이었다,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편집장이라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 자신도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텅 빈 집에는 그림과 이지헌. 둘만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가 작업을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한 여자가 밝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해보였다. 그의 눈에 이 그림은 시간에 쫓겨 그린 엉터리 낙서들 중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 바람이나 쐬자.'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란다 난간에 선 채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사는 아파트 앞에는 웨딩타운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탓에 주말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온갖 소음을 만들어 냈다. 주말만 되면 그는 극도의 거부감과 짜증을 느끼며 예식장을 욕하고 또 욕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그의 귀는 소음에 적응해 갔고, 이제는 밖을 내다볼 정도로 그는 여유가 생겼다. 그의 집은 6층인데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

하게 구분 될 정도로 한 눈에 거리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늘도 저번 주말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감에 들떠 서로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복에 웨딩드레스에... 온 몸에 치장을 하고 행복감에 들뜬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싫어졌다.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한 세상 사이 자신이 서 있는 것만 같아서 괜스레 울적해졌다.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는 싸움이나 웃긴 장면을 원했다. 하지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십분 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슬슬 지쳐갈 때쯤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바로 한 여자였다. 사람들에게서 멀찍하니 떨어져 홀로 벤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몇 십분 째 벤치에 앉아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지헌은 그녀의 표정이 궁금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오랜만에 흔들의자에 몸을 뉘이고는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걸까..?' 그는 사람이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 존재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곧 이별뿐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리고 지금처럼 혼자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반복하다 곧 잠이 들고 말았다.

시계를 보니 다섯 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몇 시간을 넘게 자는 동안 그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꾼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꿈은 분명 슬픈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고 일어나니 슬픈 기분을 감출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스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예식장엔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적막함이 감돌뿐이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그는 벤치에 아직도 앉아 있는 여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가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벤치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자리를 옮겨 벤치 쪽으로 몸을 향하자 이제는 그녀의 표정이 잘 보였다. 그는 순간 마음이 덜컹 가라앉는 것 같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의 얼굴은 공허했다. 슬픔에 잠긴 것 같기도, 어찌 보면 기뻐 보이는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항상 행복해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의 표정만 구경하던 지헌은 알 수 없는 표정을 가진 여자에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그녀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저 여자도 나처럼 사는 것이 재미가 없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지헌은 베란다에 흔들의자를 끌어다 놓은 채 여자가 언제쯤 집에 가는지 바라보고 있었다. '솔직히 저녁이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심심해 죽겠는데 잘됐네 뭐.'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데도 그녀는 벤치에서 1cm 정도 간격으로 밖에 행동 변화가 없었다. 그저 가끔 한숨을 내쉬며 예식장 안의 새어나오는 빛줄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 이었다. 그는 늦은 밤까지 그 곳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집에 언제 가나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걸까. 아님 도대체 왜?' 이윽고 난관에 기댄 그는 그녀를 멍하니 보다 얼떨결에 주저 앉아버렸다. 잘못 본 것이 분명하겠지만 순간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기 때문이다. 그가 십분 뒤 천천히 일어나 벤치로 눈을 돌렸을 때는 이미 그녀가 온데 간데 사라져 버린 후였다. 다시 못 봐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그는 그의 무료한 시간에 그녀가 끼어든 듯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누군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란 생각을 하니 왠지 우울해진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완성하고 보니 누군가의 눈동자 같아 보였다. '텅 빈 눈동자..' 왠지 모르게 지헌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공허한 눈동자를 한번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 이후 지헌은 그림에 집중하였다. 편집장은 이번 그림이 만족스러운지 그에게 독촉 메일을 보내지 않았고 텅 빈 메일 창은 괜스레 그의 기분을 울적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는 평일 내내 좁은 집 안에서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다가도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그림을 그리려 의자에 앉아서는 이유 없이 들뜬 기분을 체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안은 불안을 낳았는지, 지헌은 이런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내가 왜 이러지. 요즘 그림을 한꺼번에 많이 그려서 피곤 한 건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그는 불안한 나머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춘 채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지헌에게는 이런 기분이 매우 오랜만인 것 같았다. 5일 동안 침대에서도,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의자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금요일이 돼서야 그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헌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구경하면서 그는 혼자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었다. 이름도 나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은 지헌에겐 무료함 속 하나의 재미이자 행복이었다. 더군다나 베란다 맨 끝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남몰래 큭큭 웃어댈 정도로 큰 행복을 느끼는 그였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행동이나 말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다음 행동과 말을 예측해본다던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 그는 밖, 그들 속에서 그들과 이야기 하는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후에야 그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지헌은 이미 이런 생활이 익숙해진 터였다. 또한 그런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니.. 그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기분이었다. "그 여자와 진짜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하지만 왜..? 단지 나와 눈이 닮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본 후부터 부쩍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는 그만큼이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토요일을 기다리기가 무서웠다. 그녀가 그 곳에 있어 자신에게 한 번 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면서도, 창문을 열고 눈을 떴을 때 막상 그 알 수 없는 여자가 자신 앞에 또 나타날까봐 무서움에 밤을 지샜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고 그는 평소보다 침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자고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평소보다 별로라는 건 확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평소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다. 사실 지헌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은 일어나서 항상 천장을 보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까 라는 생각을 하거나 오늘은 정말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보자, 라는 종류의 다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오늘은 정말 일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생각을 했다. 얼굴이 기억나지도 않는 여자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더라?' 5초 동안이나 숨을 참으며 생각을 하던 그는 그녀가 저번 주 토요일에 본 사람들 중 한 명이란 사실을 기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십초 동안 숨을 참았을 때는 그녀가 텅 빈 눈동자에 핏기 없는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정확히 한 시간 뒤, 그는 이젤과 물감을 준비해 베란다 끝 모서리로 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비 때문인지 종이는 약간은 눅은 것 같았으며 그의 기분도 좋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림도, 예식장의 결혼식이 취소가 되었는지 매일 흘러나오던 노래도

끊긴 것 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까봐, 오늘도 평소처럼 시간이 흘러갈까봐, 그와는 안 어울리게도 걱정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흰 색으로 도배된 예식장 근처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 때였다. 남청색 우산을 쓰고 한 사람이 예식장으로 찾아 왔다. 지헌은 그림을 그리려다 말고 그 사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 사람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며 발걸음을 싸늘한 벤치로 향하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예식장에 자꾸 찾아오는지도,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알고 있는 듯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전부터 한 편으로는 그녀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은 베란다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으려 했던 그였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눅눅한 캔버스 위에 우울함으로 붓을 얹어 놓으려는 생각을 한 순간, 기적처럼 그녀가 빗속에서 나타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이 정해진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헌이 앞으로 겪을 일들도 어쩌면 누군가가 미리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성을 다 짜놓은 하나의 삽화일거란 생각을 했다.

그녀의 얼굴을 우산이 가리고 있어 눈동자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그는 왠지 일주일 전 그녀의 눈동자가 지금과 같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이미 많이 눅눅해져 새 걸로 갈아야 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흰 색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식장을 배경으로 그녀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지헌은 예식장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그림에 그들을 포함시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예식장과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는 중이었다.

정확히 15분 뒤, 비가 그쳤다. 그의 그림도 완성 되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환한 파스텔 톤의 색채로 인해 그림 자체가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녹아들고 있는 것 같았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표정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다. 그는 그녀가 우산을 접을 것을 알고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예식장 안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겼고 그녀는 불행히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듯 보였다. 다행히 그녀는 지헌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그녀는 힘없이 문 앞의 계단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다음 행동이 더욱 더 궁금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반짝이는 듯 보였는데,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으로 손을 가져다대는 그녀의 다음 행동으로 인해 그는 그녀가 울고 있는 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사실 지헌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함이 보이는 그림보다는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그림을 즐겨 그려왔다. 그는 슬픔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는 이상하게도 여자가 울음을 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편으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저토록 슬퍼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녀의 울음이 싫었다. 그래서 조만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울지 말아요!' 그런데 별안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어딘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도 깜짝 놀라 그녀의 행동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는 우는 것을 멈추고는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니 예식장의 좁은 마당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 역시 순간 의아함을 느끼고는 다른 각도에서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그녀는 아직도 아무도 없는 예식장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는 중이었다. 지헌은 자신

에게 들려온 여자목소리에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해 하고 있었다. '뭐지..? 저 여자 내 목소리를 들은 건가? 에이설마..' 그는 자신의 망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여전히 없었다. 지헌은 그녀를 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여자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자신이 앉아 있던 입구 근처를 계속해서 배회하는 중이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건 그녀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만 울자고 다짐을 하고는 일어서려는 찰나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울지 말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처음엔 이곳에 그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의심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과 함께 당장 나오라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이곳엔 문 사이로 자그맣게 새어나오는 불빛 한 줄기와 그녀뿐이었다. '그럼 도대체 누구지?' 갑자기 일어난 이상한 상황에 그녀는 두려웠지만 내심 목소리의 주인이 궁금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누구세요?' 라고 말을 걸어 보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도 누구에게 말을 건넨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곧 한숨을 쉬며 계단에 몸을 기댔다. 쓸데없는 기대를 한 자신이 멍청했고 이젠 그런 자신이 지겨웠다. 자신만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그가 미웠고, 한 편으로는 방금 그 목소리가 그였을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그녀의 귓가에 아까 전에 들린 목소리가 또 다시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녀는 곧 체념한 듯,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절 아세요?' 그러자 뒤이어 약간은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뇨. 전혀..' 그녀는 또 다시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나에게 이러는 건가요..?' 여기까지 말한 후 그녀는 이 알 수 없는 기분에 몸을 떨며 자리를 일어섰다. 하지만 몇 초 뒤에 또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예감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지헌은 그림 그리는 것을 까먹은 듯 했다. 그의 얼굴은 얼이 빠져 있는 듯 했고, 어딘가 고민에 잠긴 사람 같았다. 하지만 변함없이 그의 눈동자는 그녀를 쫓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낭랑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면 그는 자신이 미친 것이라고 반복해서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도 그녀의 목소리에 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의 눈을 봤어요. 왜 슬퍼하는지 말해줄 수 없나요?' 지금 지헌은 그녀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를 고집하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궁금해 하고,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에게서 아무 답이 없자 그는 초조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계단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예식장을 찾는 사람들 중 반은 행복에 잠겨 있답니다. 반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죠. 근데 당신은 홀로 공허함에 잠겨 있는 듯 보였어요. 괜찮다면 말해 주지 않을래요? 당신이 궁금해요.' 그녀는 사실 몇 달째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도 그녀는 그와의 추억을 찾고 또 찾을 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그를 기다리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도 나를 사랑했다면 언젠간 나와의 추억을 곱씹겠지..'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에게 지금은 그와 닮은 듯 하면서도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추억해주고 기억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렇기에 이것이 꿈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위로하는 듯 한 목소리에게 그녀의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소녀에게 첫사랑이었고 여자아이도 소년에게는 첫사랑이었죠. 그들은...’ 소녀에겐 매일을 울고 지냈던 날들이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그녀에게 학교는 큰 벽으로 다가왔으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루는 체육시간에 그녀가 모르고 체육복을 안 가져왔을 때의 일이었다. 그녀는 체육복을 빌리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고 그 때 모르는 한 남자아이가 남자 체육복을 주며 하나 빌려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년의 행동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고마워하며 그 체육복을 받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은 또 처음이라 고맙단 말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 운동장에 나가보니 모든 반이 협동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체육복을 안 가져 온 아이들은 구석에서 엎드려뻗쳐를 한 채 벌을 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헐렁한 남자체육복을 본 채 안도하며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무심코 운동장 구석으로 눈이 간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바로 자신에게 체육복을 준 남자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 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고맙단 말을 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만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가 집에 혼자 가고 있었을 때 그 남자아이는 뒤에서 불쑥 나타나 저번에 체육복은 잘 입었냐며 말을 걸었다. 천진한 미소를 지닌 그 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친구하자.” 라고 말을 했고 그 후 그 남자아이는 종종 여자아이의 반에 와서 그녀를 놀아주고는 종 치기 직전 부리나케 자신의 반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여자아이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주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아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아이가 말하길, 미술시간 숙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다. 여자아이는 그에게 누구를 그릴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녀는 내심 속이 상했지만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준 그였기에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업이 일교시가 되고, 이교시가 되고, 삼교시가 지나자 소년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녀에게 점점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년은 소녀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말하며 배시시 웃었다.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소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소녀를 보며 소년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종이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그림 속의 여자아이가 눈물 때문에 눈앞이 흐려졌을지라도 자기 자신이란 것을 소녀는 알 수 있었다. 15살부터 25살 때까지 그들은 함께였다. 마지막엔 환하게 빛나는 예식장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조금은 지친 목소리로 이 추억들은 매일 혼자 되새기는 기억들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그리움이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이곳에 와 추억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이었다. 그는 어쩐지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가 편한 그에게 위로는 낯설고도 먼 존재였다. 그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 사람도 어디선가 분명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금까지 자신이 꿈을 꾼 것 같다고 느끼며 그림을 그렸다. 이번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이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색 배경 때문인지 어딘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해보였지만 그들의 거리는 왠지 모르게 멀어보였다.

그녀는 이제 그 곳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항상 그녀의 곁에 있어주던 그는 언제부터인가 많이 아팠다. 조금씩 아팠던 그를 그녀는 눈치 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런 그가 원

망스러웠다. 함께한 시간에 비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 그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를 다시 만날 어느 순간을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 생겼다. 바로 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순간의 꿈이라 치부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날씨가 너무나도 쌀쌀해 피부의 얼얼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했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 아까 전의 일이 그를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비롯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생각에 잠긴 듯 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의 끝에는 예식장과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짧은 이야기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녀가 왠지 부러웠으며 그런 그녀가 자신과는 다르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깝고도 먼 그 곳에 가보고 싶었다. '저 문만 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기억할 사람도, 기억해 줄 사람도 존재 하지 않는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실 아직까진 없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몽롱한 경험은 세상 밖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 앞까지 나아가 문고리를 잡았다. 순간,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 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잊어버린 것인지,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 잊어버린 것인지는 그 포함 아무도 알지 못했다.

따사로운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 지헌의 집 앞에서는 또 한 커플의 변치 않을 약속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헌은 왠지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싫었다. 하지만 경쾌한 음악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예식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알록달록 풍선에서부터 꽃 화관들까지 어딜 보나 행복한 이미지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공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바로 한 여자였다. 사람들에게서 멀찍하니 떨어져 홀로 벤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몇 십분 째 벤치에 앉아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지헌은 그녀의 표정이 궁금했다. 어딘가 창백해 보이는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그 순간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마치 흰 색 백합꽃이 힘없이 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관심 외의 대상이었지만 몇 초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는 그 여자를 어디서 많이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의 몸은 어느새 현관 문 앞에 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란 생각에 문을 힘차게 밀었다.

오랜만에 본 햇빛은 너무 따사로워 그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들었다. 지헌은 자신이 왜 세상을 무서워했는지조차 까먹은 채로 예식장을 향해 달려갔다. 쓰러진 여자와 자신이 진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는지,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평온했던 마음이 순간 파도가 몰아치듯 세차게 요동쳤다는 것이다. 저 멀리 그녀가 보이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가는 손목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세상 밖에 나온 것이 실감났다. 머릿속은 '내가 어떻게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그녀의 목 언저리로 향하고 있었

다. 은색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왠지 약혼식을 하면서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녀는 눈을 떴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오로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한 눈동자가 아닌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였다. 그도 모르게 떨어뜨려 버린 목걸이 안의 사진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왠지 그녀의 이름을 알 것만 같았다. '이름이 뭐였더라..' 순간, 그는 숨을 참았다. 몇 분을 참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참았던 숨을 토해낼 때 그는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남자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남자를 내려다보던 앳되 보이는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기억 속 일부였다. 그녀가 그를 그리워하기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는 대신 미워하고 있었다. 의사선생님은 그녀와 그의 어머니, 아버지, 누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저 분은 지금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기억들은 자신이 기억장애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만들어 내는 기억들 같네요."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그녀와의 기억까지 모두 잃어가는 중이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지헌 씨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사고가 원인이긴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려면 가상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기억이 영영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자신을 대인기피증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장소를 집으로 정해주고 그를 기다려주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이대로 그가 그녀를 기억해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매일같이 그와 그녀가 결혼을 했던 예식장에 가 그 곳에 머무르기를 몇 달. 하지만 그는 그 곳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의문의 경험만이 그녀에게 찾아왔을 뿐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 목소리는 자신을 위로하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리워하는 마음은 멀리까지도 전달된다는 것을.

소설4

경혜공주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세은

-1-

"공주마마, 예령입니다."

"들거라."

나인이 들어간 처소에는 방금 몸단장을 마친 여인이 앉아있었다. 이 나라 조선 어떤 반가의 여식보다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냐? 아바마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일은요, 아닙니다. 마마께서 기침하시는 대로 처소에 들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준비 다 됐으니 가자꾸나."

경혜는 처소나인이 명을 전하자마자 차비를 하고 강녕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요 근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발걸음이었다. 세종의 승하 이후 아버지가 순조롭게 왕위에 올랐지만, 선왕의 3년 상을 치른 이후에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이었다. 세자인 아우는 보위를 잇기에는 나이도, 성품도 아직 미령한 부분이 많았다. 때문에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궐 안의 소문들을 통해 그녀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런 걱정들을 안은 채 강녕전에 다다랐다.

"고하게."

"전하, 공주마마 드셨습니다."

"들라하라."

대전내관이 고하자마자, 들라는 명과 함께 문이 열렸다. 열린 문으로 즉위할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자신의 아버지, 이 나라 조선의 다섯 번째 왕, 문종이 경혜를 맞아 주었다.

"부르셨습니까? 아바마마."

"오, 공주. 앉거라."

"예, 아바마마."

"내 공주와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주위를 물려주게 상선."

문종이 주위를 물렀다. 경혜는 아버지와 자신이 나눌 얘기가 심상치 않은 얘기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문종은 처소를 지키고 있던 대전내관들과 나인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경혜야, 너는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그리 똑똑한 너이니 지금 네 아우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지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 상황이니 아바마마께서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얼른 털고 일어나셔서 아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하질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구나."

"아바마마.."

경혜는 선왕의 삼년상을 치룬 이후 좀처럼 건강을 찾지 못하는 아비가 늘 걱정스러웠다.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세자의 자리에서 선왕을 보필하던 아비였다. 그런 아비가 왕의 자리에 올라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일 것이라고 늘 믿었었다. 그리고 자신과 아우인 세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경혜야, 나는 이 불안한 시국에 너의 혼인을 서두르려 한다."

"혼인이라니요? 제가 아우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궐을 떠나는 일을 서두르려 하십니까? 궐을 떠나 아우를 어찌 지키라고요."

"아비의 말을 모르겠느냐? 너의 숙부에 비해 네 아우의 세력은 미약하다. 허니, 혼인을 통해 네가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달란 말이다. 넌 한성부윤 정충경의 아들과 혼인해야 한다."

"한성부윤 정충경의 자제라면, 정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를 아느냐?"

"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자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혼인을 하기만 하면 너와 네 아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가문이다. 허니, 넌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자에게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아바마마"

"경혜야, 내가 없어도 너는 이 나라의 공주로서 네 아우인 홍위를 잘 보필해줘야 한다. 아비 말 알아듣겠느냐?"

"소녀, 저하를 보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사명임을 모르지 않사옵니다. 허니, 아바마마께서는 다른 걱정은 마시고 미령한 옥체를 돌보소서."

-2-

처소로 돌아온 경혜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내와 혼인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서는 줄곧 이 상태였다. 왕가에서 난 여식의 삶이란 오라비나 아우의 세력의 기반을 닦기 위해 사는 것이 순리임을 모르지 않았다. 알고 있었던 일임에도 자꾸만 복잡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동궁에서 아우가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우를 만나러 갈 수 없었다. 지금 마음 상태로는 여느 때처럼 아우를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신의 마음 정리가 우선이었다.

"공주마마, 세자 저하께서 드셨습니다."

"저하께서? 어서 모시 거라."

들어오라는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들이닥쳤다.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소년. 그가 이 나라의 세자, 문종의 아들이자 경혜의 아우, 이홍위였다.

"처소에서 기다리시지 않고 어찌 여기까지 걸음을 하셨습니까? 저하."

"나인에게 제가 찾는다는 말을 전한 지 일각이 다 되어가는 데 누이께 소식이 없어서요."

"그러셨습니까?"

경혜의 얼굴에 웃음이 서렸다. 아직 마냥 어린 아이인 아우였다. 누이인 자신의 손을 아직 떠나지 못한.

"헌데, 누이 아바마마께서 누이가 혼인을 한다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궐을 떠나시는 겁니까?"

"간택령을 내렸으니, 부마도위가 간택되고 혼인을 올리고 나면 그리 되겠지요."

경혜의 답을 들은 세자의 얼굴이 울상이 됐다.

"어찌 그러십니까? 허면 이 누이가 혼기가 다 차도록 이 궐에서 저하와 살기를 바라신 겁니까?"

울상 짓는 세자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경혜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걱정 마십시오. 저는 사가에 나가서도 저하의 누이입니다. 늘 저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궐 담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자주 들러 문안을 드릴 것이니 그리 상심하지 마세요."

"진정이지요, 누이? 약조하신 겁니다."

"예, 누구와의 약속인데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부마도위가 간택되고 나면 꼭 저에게도 보이셔야 합니다."

"아바마마께서 좋은 사내로 간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하께서는 그런 염려는 마세요. 저하께서는 학문에 힘 쓰고.."

"아바마마를 도와 좋은 성군이 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 제 말을 달달 외우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하께서는 그리 학문과 정사에 힘쓰십시오."

"아닙니다. 그래도 사내는 사내가 보아야 안다고 했습니다. 허니, 누이의 남편이 될 자는 제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짐짓 사내인 척 말하는 아우의 모습에 경혜는 웃음이 터졌다. 이런 어린 아우이기에 걱정이 됐다. 그래서 아우를 지켜야 하는 공주라는 지위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더불어 그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왕가의 여식으로 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그 사명은 공주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는 이상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리라.

"알겠습니다. 부마가 간택되고 나면 반드시 저하께 먼저 보이겠습니다. 허면 저하께서는 그 간택 된 사내가 이 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내인지 봐주셔야 합니다."

경혜의 요청에 세자는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었다. 경혜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지 않기를, 자신의 헌신으로 이 평화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3-

시간이 흘러 부마로 간택 된 정종과 경혜공주의 혼인 날 아침이 밝았다. 모시던 상전의 혼인을 앞 둔 경혜의 처소나인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누구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나인 하나가 심란한 경혜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령아, 몸단장은 이만하면 됐으니 내가 부를 때까지 나가 있거라."

"됐다니요, 마마. 제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마마의 날입니다. 제게 맡기시고 편히 계십시오."

"네가 이리 부산을 떠니 내가 편히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 혼례는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진이 빠질 것 같구나."

예령은 금세 풀이 죽었다. 풀이 죽은 예령의 모습이 신경이 쓰였지만 혼례를 앞두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애써 무시했다.

"마마, 이제 차비를 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알겠다. 예령아, 가자"

"예, 마마"

문종의 즉위 이후, 옥체가 미령한 탓에 늘 조정이 걱정스러운 분위기였다. 오랜만에 왕실의 행사라 다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고 분주했다.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의 혼례답게 잔치는 화려했고, 시끌벅적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 공주의 부마가 될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흠모하는 궐 안 나인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소문에 걸맞게 훤칠한 모습이었다. 서글서글한 웃음과 호탕한 성격은 혼례 날에도 긴장하지 않고 금세 무리의 중심이 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자네 기분이 어떤가?"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나라의 공주마마를 신부로 맞는 심정이 어떤 지 묻는 것이 아닌가? 이 나라의 공주의 소문을 모르는가? 경국지색, 침어낙안. 그 어떤 수식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미인인 분이 아니신가?"

"신부를 맞는 신랑의 마음이야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잘 아실 형님께서 어찌 그걸 물으십니까?"

"이 사람 넉살은."

오늘의 새 신랑인 사내는 마냥 즐거워야 할 혼인날 마음이 복잡했다. 혼인 날 전, 부마로 간택되고 나서 전하의 부름에 대전에 들었다. 왕의 명령은 간단했지만, 그 명을 지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아비를 도와 세자와 공주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마가 왕에게 받은 소명이었다. 그렇게 그는 그렇게 왕의 내린 명을 곱씹 으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부를 맞았다.

-4-

소란스러웠던 혼례식이 끝나고 이제야 신랑과 신부만이 남았다.

"혼례 전, 아바마마께서 서방님을 궐로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예, 마마."

"공주의 자리가 그렇듯, 부마의 자리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예?"

"부마가 되신 이상, 모든 행동거지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야 할 겁니다. 이 나라 왕실을 위한 희생도 불가피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서, 더 의아했습니다. 조정에서 제 아우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 부마가 되시면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는 숙부와 맞서.."

경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사내가 말을 받았다.

"압니다. 부마 간택령이 내리기 전부터 제가 공주마마의 부마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마의 삶이 싫었다면 마다했을 겁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해 걸어갈 것입니다. 세자 저하를 보필하는데도, 공주마마를 지키는 데도 성심을 다할 것이니 걱정은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진정이십니까? 제가 서방님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소인이 저하의 자리를, 공주마마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혼례를 치루는 오늘까지만 해도 정종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었다. 사내로서 입신양명해서 가문을 번성케 하는 소임을 다하지 못할 선택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신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자신의 앞에 콧대 높은 공주가 아니라, 아비와 아우를 염려하는 고운 여인이 있었다. 그 여린 몸으로 감당해 내기에는 공주의 무게가 버거워 보여 그것을 기꺼이 같이 감당해내고 싶어졌다.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평생 같은 길을 걸어갈 동반자이자, 서로 의지가 될 버팀목을 얻었다.

-5-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길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마 한 대가 보였다. 가마 안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궐로 향하는 공주와 부마가 타고 있었다. 옥체가 미령하기는 했지만, 경혜공주의 혼인 이후 많이 호전되는 모습이었는데 상태가 위중하다는 전갈을 받고 궐로 향하는 길이었다. 정종은 경혜가 걱정스러웠다. 혼인을 하고 사가에 나와 있는 와중에도 부친의 병색을 걱정하던 아내였다. 호전되고 있다는 연락에도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하게 여겼는데 부왕께 변고라도 생기면 견디지 못할까 근심하며 경혜의 곁을 지켰다.

"마마, 전하께서는 괜찮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뵙는 용안인데 마마께서 밝은 모습을 보여 드리셔야지요."

"예, 서방님. 압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괜한 기우이겠지 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경혜의 불안해하는 모습에 부마 또한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했다. 그렇게 불안한 정적 속에서 가마만이 제 일을 계속 했다. 궐에 다다라 가마를 대고 걸음을 재촉했다. 대전에 다다랐을 때 경혜는 반갑지 않은 얼굴을 마주했다.

"공주가 아니십니까? 오, 부마 자네도 왔는가?"

수양대군이었다. 이 상황에 가장 공주를 불안하게 하는 자, 어좌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언젠가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 아우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이 될 자. 경혜는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자신의 숙부를 마주했다.

"숙부님께서도 와 계셨습니까? 숙부님께서는 아바마마와 우애가 참으로 좋으십니다. 아바마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에도 한 달음에 달려오시고, 아바마마의 옥체에 차도가 보이지 않는 병환 중에 여식인 저보다 궐을 더 가까이 하시니 말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숙부의 형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 곁을 지켜 드려야지요."

"아바마마께서도 숙부님의 이런 정성을 아셔야 하실 텐데 말입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세요. 불안한 시국에 숙부님의 충심이 숙부님의 뜻과 다르게 비춰질까 염려되옵니다."

"공주, 공주께서는 때로 아들 노릇을 하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혼인도 하셨으면 나랏일이 아닌 아녀자로서 집안일에 소임을 다 하세요. 이 숙부는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공주의 이런 모습을 여인답지 못하다 여길까 그게 걱정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고 가는 말은 심상치 않았다. 불안한 기류를 느끼고 부마가 경혜를 재촉했다.

"마마, 어서 전하를 봬야지요. 대군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처소는 저희가 지킬 것이니 걱정 마시고 들어가 보시지요.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 내 부마 자네를 믿겠네. 사리분별에 능한 사람이라 들었으니까. 공주가 처신을 잘 하도록 보살펴 드리시게."

수양대군은 공주를 향해 조소를 지어보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숙부의 태도에 발끈하는 경혜를 부마가 말렸다.

"마마, 자중하셔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적의를 보이면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자저하를 생각하세요. 마마. 마마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마마의 아우를요."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서방님. 허나, 숙부께서 이제 군대까지 양성한다 합니다. 이러어좌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혜의 눈이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그런 경혜를 붙잡고 부마가 말을 이었다.

"기다리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준비가 다 되면 맞서십시오. 전 전하께 세자 저하뿐만 아니라 마마도 지켜드리겠다 약조했습니다. 부디 제가 그 약조를 지킬 수 있게 기다려주십시오."

경혜는 부마의 품에 안겼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친의 병색, 아직 왕이 되기에는 미령한 아우. 그리고 그 아우를 지켜야 하는 경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경혜가 기댈 곳은 오직 부마인 정종뿐이었다.

-6-

"아바마마, 소녀가 왔습니다. 아버지 딸, 경혜예요. 일어나 제 얼굴을 보셔야지요. 제가 낳는 아버님 손자들에게 좋은 할아비가 되어 주시겠다. 제게 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혜, 왔느냐?"

문종이 힘겹게 눈을 떴다. 경혜는 마지막으로 본 모습보다 훨씬 수척해진 아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이리 제 애를 태우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저와 아우를 지켜주셔야지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너와 세자를 지켜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구나. 공주, 너는 영민한 아이다. 네가 사내로 났다면 분명 나를 이어 좋은 왕이 됐을 게야."

"예?"

"너를 계집으로 낳아 미안하구나. 너는 늘 네 아우와 이 아비를 보필하며 살았지. 내 너의 수고를 모르지 않는다, 아가. 허나, 잊지 말거라. 아우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 또한 네가 누려야 할 네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난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내 딸로서 사랑할 것이다. 내 마지막으로 너와 부마를 보고 가고 싶었다. 부마도위. 공주를 잘 지켜주게."

툭. 경혜의 얼굴을 향하던 문종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아버지."

"....."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농이시지요? 저와 농을 하시는 거지요?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무섭습니다. 이런 장난 싫단 말입니다."

경혜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몸을 흔들었다. 경혜의 거친 손길에 문종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다. 거친 손길과 함께 경혜는 쉬지 않고 울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공주라는 지위를 가진 여인으로서 지켜야 했던 모든 기품을 내려놓고 그렇게 울었다. 어떤 누구도 그녀에게 체통을 지키라 말하지 못했다. 이제 그녀가 시작해야 할 길고 험난한 싸움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험한 정쟁 속에 자신의 자식을 두고 떠난 날 이였기 때문일까.

문종이 경혜와 세자를 두고 떠난 날 밤, 비가 그치질 않았다.

-7-

문종이 승하하고 여러 날이 흘렀다. 경혜와 부마의 걱정과 달리 세자는 순조롭게 왕위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남매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큰 상심을 조금씩 달래가고 있었다.

"전하, 오늘 옥체는 어떠십니까? 어디 미령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누이. 저보다 누이가 더 걱정입니다. 아버지의 상을 치룬 이후에 계속 수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마도위?"

"저는 염려마세요.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전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공주마마는 제가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마마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어의의 말도 있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되실 겁니다."

"서방님, 그 일은 차차 말씀 드리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혜의 양 볼에 발그레한 홍조가 띄워졌다.

"그 일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경혜의 눈짓에 망설이던 정종은 이내 참지 못하겠는지 싱글벙글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아, 글쎄 공주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습니다. 복중에 전하의 조카가 자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장하시지 않습니까?"

"서방님..!"

경혜가 정종을 밉지 않게 흘겨봤다. 정종은 경혜의 눈빛에도 전혀 기죽지 않은 채 넉살좋게 웃어보였다. 행복해 보이는 누이 부부의 모습을 단종 또한 웃음기 띈 얼굴로 바라보았다.

"왕실의 복입니다. 누이. 이제는 궐에 드나드는 걸음도 삼가세요. 이제 제가 아니라 복중의 제 조카를 지켜주셔야지요. 이건 어명입니다."

웃음기 서린 아우의 말에 오랜만에 경혜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다. 그렇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맞이하며 또 하루를 보냈다.

-8-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경혜의 처소로 향하는 정종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았다. 어떤 순간에도 경혜에 대한 배려가 먼저였던 그가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서방님, 이 무슨.."

옷도 제대로 차려 입지 못한 채, 정종을 맞게 된 경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꺼냈다. 그러나 이내 정종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눈치 채고는 아우의 안위를 물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겁니까? 어찌 그리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대군이, 새벽 궐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입니다. 우의정 김종서 대감이 역모를 계획 했다는 명목으로 대신들을 모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역모요? 김종서 대감이 역모를요? 말도 안 됩니다. 대감만큼 아바마마에게 충심을 다한 충신이 어디 있다고요. 숙부께서 드디어 일을 벌이신겁니다. 궐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전하의 안위를 확인해야겠어요."

"마마, 이리 마음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궐로 가셨다가 변고라도 당하시면.."

정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경혜의 말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 제 아우가 궐에 혼자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편이고, 누가 자신의 적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궐에 혼자 있단 말입니다. 어찌 제게 제 안위를 먼저 살피라 하십니까, 서방님."

"마마, 마마의 안위 또한 살피셔야 합니다. 선왕 전하의 유지를 잊으신 겁니까? 선왕께서는 마마의 삶 또한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우가 있어야 제 삶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 제가 제 행복을 찾길 바라신다면 저보다 전하의 안위를 먼저 살펴 주십시오."

단호한 경혜의 말에 정종은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작은 한숨을 내 쉬며 정종은 뜻을 굽혔다.

"알겠습니다. 궐로 가시지요. 허나,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경혜를 뒤로 하고, 정종은 궐로 들어갈 차비를 했다. 선왕께 받은 어명은, 경혜의 아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선왕은 경혜 또한 지킬 것을 명하였다. 훗날, 경혜가 자신의 안위와 세자의 안위를 두고 선택해야 할 날이 온다면, 경혜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선왕의 어명이었다. 그 또한, 경혜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안위를 지킬 것을 맹세했다. 설령 경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말이다.

그 시간, 궐에서는 수양대군과 단종의 독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하, 참으로 다행입니다. 충신이라 믿었던 우의정이 전하의 등에 칼을 꽂을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소신이 그를 막고 전하를 지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단종은 대군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아무리 역모라 하나, 김종서 대감은 이 나라의 우의정입니다. 어찌 왕인 제 하명도 없이 숙부께서 일을 처리하십니까?"

"한 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신 전하를 지키기 위해 한 일입니다. 역적을 잡은 충신을 이리 대하시니 제가 조금 섭섭해지려 합니다. 전하께서 이리 미흡한 티를 내시니, 전하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수양대군의 무례한 언사를 끊은 것은 경혜였다.

"누이.."

"이 나라의 군왕이십니다. 어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리 무례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왕족이라고는 하나, 숙부님 또한, 전하의 앞에서는 일개 신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례라니? 이 숙부가 전하의 자리를 지켜드린 겁니다. 어찌 여인이 정사에 끼어들어 전하의 성심을 어지럽히려 하십니까?"

"예, 숙부께서 전하를 지키셨지요. 허나, 기억하십니까? 우의정이었던 김종서 대감 또한. 충신이었습니다. 숙부께서 역모를 꾀했다 하여 어명도 없이 처결을 하여 지금은 저자에

대감의 머리가 효시 되어 있겠지요.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디 숙부님께는 그런 일이 없게, 자중하십시오."

적의를 감추지 않는 경혜의 말에 수양대군이 주춤했다. 그런 둘의 모습을 위태롭게 쳐다보고 있는 건 불안함에 떨고 있는 단종과 경혜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종이었다. 수양대군은 경혜를 향해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대전에서 물러났다.

-9-

궐의 상황을 보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정종이 처소를 나서자, 처소에는 경혜와 단종만이 남았다. 경혜는 서둘러 아우의 안위를 살폈다.

"괜찮으신 겁니까? 많이 놀라셨지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누이와 부마가 전하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는 전하가 홀로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숙부께서 제 자리를 노린다고 말합니다. 김종서 대감은 제게 숙부에 맞서 저를 따르겠다던 충신이었습니다. 헌데, 숙부께서 대감을 죽이셨습니다. 다음은 누구인 겁니까? 그 다음은 제가 되질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나라의 지존이신 전하를 해할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설사 그럴 자가 있다 해도 제가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바마마께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 자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셔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난 싫습니다. 나는 그런 왕의 자리 한 번도 원한 적 없습니다. 이 무거운 자리 차라리 숙부에게 넘겨주면 그만이 아닙니까? 허면, 제 사람이 다칠 일이 없을 것이고, 누이 또한 마음 편히..."

단종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다. 그 앞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은 눈을 한 경혜가 서 있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왕의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전하를 따르는 이 나라의 백성, 전하를 지키고자 숙부와 대적하다 죽어간 저 충신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전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누이.."

"다시는 제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제가 한 선택들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는 단 한번도, 전하께서 임금의 자질이 부족하다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 동안 제 인생이 전하를 위한 삶이었다 해도 억울할 게 없었습니다. 왕가의 여식으로 난 그 순간부터, 그런 삶을 사는 건 제 숙명이었고, 모두가 왕재라고 말하는 전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가치가 있다 여겼습니다. 허니, 전하께서는 제 기대에, 아바마마의 기대에 부응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누이..."

단종은 늘 자신을 감싸주던 누이의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했다. 그러나 아우의 당황한 모습에도 경혜의 단호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경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우의 누이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우의 앞에서 누이의 모습이어서는 안 됐다. 이제 더는 자신의 치마폭에 감춰두는 것만으로 아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숙부와 대적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할 자는 경혜 자신이 아니라 아우였다.

한 바탕 소란이 있은 후에 궐을 돌아보겠다고 나간 정종이 돌아왔다.

“전하, 소신이옵니다.”

“모시 거라.”

“어찌 된 것입니까? 서방님? 기어이 숙부께서 난을 일으키신 겁니까?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자 칼을 빼 드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마. 조정에서 김종서 대감의 편에 섰던 모든 이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합니다.”

경혜가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 거렸다. 괜찮은 것이냐고 묻는 아우의 물음도, 걱정스러운 부마의 표정도 경혜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숙부에 맞서 아버지가 당부한 말들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곳에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10-

처소 안에 경혜와 정종, 그리고 그들의 왕 단종이 앉아 있었다.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풍겼던 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분위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리고 그들을 감싼 어두운 분위기는 좀처럼 가실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적막을 정종이 깼다.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전하의 신하가 되는 것을 망설이던 중신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오늘 전하의 편에 섰던 중신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나설 생각을 못 할 것입니다.”

“신숙주 대감... 신숙주 대감은 무사하십니까? 아바마마께서 제게 김종서 대감과 신숙주 대감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아바마마의 편에서 아바마마가 계시지 않아도 전하를 지키겠다고 약조한 분들이시라고요.”

“대감께는 변고가 없다 들었습니다. 허나,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수양이 자신의 편이 아닌 자들은 모두 가차 없이 도려내었습니다. 대감이 진정 전하의 편이시라면 무사하셨을 리 없질 않겠습니까?”

“전하, 전하께서는 조정에서 대감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 전과 달라지신 것은 없었습니까?”

“원래 대감은 조정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닙니다. 전과 같이 저의 처소에도 자주 오시고, 제 안위를 살피십니다. 믿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봐야겠습니다.”

경혜가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그녀를 정종이 말렸다.

“안됩니다. 신숙주 대감이 전하의 편이 아니라면 나눈 이야기들을 수양에게 고할 것입니다. 후에 자칫 마마께서 다치실까 염려됩니다.”

“전하의 편에 서 줄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해야 합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아바마마를 대신해서 전하를 지키라. 제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전하의 자리를 지켜야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방님.”

“허면, 같이 만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마마께서는 나서지 마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정종 또한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경혜가 아버지께 받은 당부가 전하를 지키라는 것이라면, 자신이 당부 받은 것은 경혜의 안위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

음은 전하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경혜의 안위를 더 우선해서 지키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경혜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단종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누이와 부마에게 자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나라의 지존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자신의 사람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조차도 바람 앞에 놓인 촛불 같이 느껴졌다.

-11-

"예령아, 밖에 있느냐?"

경혜의 부름에 예령이 다급히 들어왔다. 예령은 내내 걱정스러웠다. 얼마 전 궐에서 벌어진 소란 때문에 궐에 들어갔다가 온 뒤로 좀처럼 웃지도 않았고, 괜찮은 것이냐 묻는 말에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수발 나인인 자신에게 조차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에 내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예, 마마 부르셨어요?"

"서방님께 아직 연락은 없는 것이냐? 오늘 신숙주 대감이 집으로 오시는 날인데 어찌 이리 소식이 없는 것이냐?"

"아까도 제가 여쭈러 갔었는데 오시면 바로 기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마,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홀몸도 아니신데 이리 무리하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궐에 다녀온 이후로 식사도 제대로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인이 경혜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을 때 신숙주가 도착했다는 기별이 왔다.

"지금 오신 것이냐? 서방님 처소로 가야겠다. 다과를 준비하라 일러라."

경혜의 말투가 짐짓 비장했다. 경혜는 마음을 다잡으며 정종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서자 화기애애해 보이는 분위기가 경혜의 마음을 조금 풀어지게 했다.

"서방님, 다과상을 가져왔습니다.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마마"

경혜가 들어오자 방 안에서는 정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신숙주가 보였다. 경혜가 들어오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다.

"마마!"

"일어나실 것 없습니다. 앉아 계세요."

공주의 말에 황망해 하며 신숙주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경혜를 보며 물었다.

"마마, 전에 뵀던 때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부마도위, 홀몸도 아니신데 마마를 더 신경 써 드리시게."

"전 괜찮습니다. 제가 잘 챙길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여기로 오시기를 청한 건 그 때문이 아니라.."

"공주마마."

신숙주에게 말을 하려는 경혜를 정종이 말렸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경혜의 말을 그렇게 끊고는 정종이 말을 받았다.

"다른 게 아니라 김종서 대감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 청한 것입니다."

"김종서 대감이요?"

"예, 돌아가시기 전 선왕전하께서는 공주마마께 김종서 대감을 믿으라 하셨답니다. 공주마마를 도와 세자 저하를 지켜주실 분이라고요. 헌데, 그런 분이 역모라니 이상하질 않습니까? 증험도 없는 와중에, 국문 한 번 없이 일이 처리 된 것이 이상해서 말입니다."

"대군께서 왕위를 노리고 전하의 편에 설 중신들을 처리했다. 그리 여기는 건가 부마도위?"

정종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김종서는 역적이라는 죄명으로 처단되었다. 그를 처단한 것은 수양대군이고, 그는 공신이었다. 이 상황에서 김종서를 두둔하는 건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경혜가 대신 대답할 것을 알았기에.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을 함께 뒤집어야합니다. 대감."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네. 공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공신이 되다니.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허면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우선, 전하의 편에 서 줄 사람들을 모을 생각입니다. 지난밤의 일로 나서겠다는 선뜻 나서겠다는 이가 없지만 찾아보면 분명 나설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정종의 말을 들은 신숙주는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다. 수양의 편이 아닌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지난 밤, 그는 목숨을 건졌다. 그 고비를 넘겼는데 다시 호랑이굴로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이 그는 걱정스러웠다. 고민을 끝낸 듯 그의 입이 열렸다.

"알았네. 이 나라 종묘사직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하는 문제이니 내 자네에게 힘을 보탤 것이야. 그러니 자네는 사람들을 모아보게. 후에 다시 이 일을 얘기하도록 하지."

정종의 당부에 말 한 번 하지 않고 둘의 대화를 숨죽이고 듣고 있던 경혜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대감. 쉽지 않은 일에 이리 흔쾌히 힘을 보태주신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정종의 어깨를 두드리며, 공주마마의 안위를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신숙주는 자리를 떴다.

그가 그렇게 떠나고 정종과 경혜는 아주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12-

자신의 몸을 반쯤 정종에게 안겨 있던 경혜가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정종을 올려다보았다. 그 어느 사내보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를 도와 아우를 지켜주고자 물심양면 돕고 있는 그가 고맙고, 또 미안했다. 경혜가 정종의 볼을 쓰다듬자 정종도 이내 눈을 떴다.

"이리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제가 어찌 모른 척을 할 수 있습니까? 마마."

정종은 자신의 볼을 만지려던 손을 미처 내리지도 못한 채 당황해하고 있는 경혜를 놀리듯이 짓궂게 말했다.

"서방님. 깨셨으면 깨셨다고 말을 하셔야지. 이리 저를 놀려 먹으시면 좋으십니까?"

"마마께서 그리 뜨거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면 금세 도도한 모습이 되실 것인데.. 눈을 감고서라도 그 모습을 감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방님!"

경혜가 정종을 아프지 않게 때리며 말했다. 그런 경혜를 보며 정종은 미소 지었고, 경혜 또한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행복한 그들의 일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급한 모습의 예령이 말을 해 왔다.

"마마. 나와 보십시오. 여기 군관들이 들이 닥쳤습니다. 마마!!"

예령의 말에 경혜와 정종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급히 옷을 차려 입고 밖으로 나갔다.

"군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군관들이 어찌 여기에 와?"

"모르겠습니다. 마마. 어서 나와 보십시오."

대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경혜를 정종이 말렸다.

"여기 계십시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정종의 지시로 하인들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군관들이 경혜의 집에 들이닥쳤다.

"죄인 정종은 오라를 받으라."

대처할 새도 없이 군관들이 정종을 포박했다. 포승줄에 묶인 정종을 본 경혜는 다급하게 뛰쳐나와 군관들을 가로 막았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야!"

"저희는 국법에 따라 죄인을 압송하는 것입니다. 마마. 이리 일을 방해하시면 아무리 마마라 하셔도 무사하실 수 없으십니다."

"뭐라? 네 놈이 미친 것이냐? 감히 누구에게 그런 협박을..!"

경혜가 군관을 향해 손을 올리자, 정종이 경혜의 팔을 잡았다. 정종의 눈을 마주한 경혜는 손을 내려놓았다.

"마마, 국법은 지엄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서방님... 안됩니다. 고초를 겪으실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것이 국문이라 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서방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지켜 드릴 겁니다."

"마마께서는 이 왕실의 웃전이십니다. 웃전으로서 국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국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이만 물러나세요. 예령이는 뭘 하느냐 어서 마마를 안으로 모시지 않고!"

예령의 손에 의해 경혜는 정종의 손을 놓쳤다. 정종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경혜가 말했다.

"서방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지킬 것입니다. 저들이 서방님의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서방님."

그렇게 정종이 군관들의 손에 끌려가고, 정종이 떠난 집에 고요함이 맴돌았다. 경혜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이 상황이 힘겨웠지만 버티려 애썼다. 지금껏 성심을 다해 자신을 지켜 준 부마이다. 이제 자신이 부마를 지켜낼 차례였다.

-13-

아침에 정종과 그렇게 헤어지고, 경혜는 다급히 한양으로 갈 채비를 했다. 집에서 기다리게 하라는 정종의 당부를 말하며 예령이 수차례 말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경혜가 한 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예령은 이내 포기하고 경혜를 따르기로 했다. 지금처럼 평정심을 잃은 경혜가 자신의 수발 없이 어떤 사고를 칠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마, 가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오시지요."

예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혜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시간이 없다. 예령아. 어서 출발하자."

경혜는 서둘러 가마에 올랐고, 경혜의 재촉에 가마꾼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 가마의 뒤를 예령이 따랐다. 초조한 경혜의 마음을 대변하듯 날씨도 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비가 올 것처럼 어둑어둑했다. 그렇게 서둘러서 평소 걸릴 시간보다 일찍 궐에 다다랐다.

"마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가마를 끌고 갈 수 없으니 내리셔야 합니다."

경혜가 내려서 정종이 붙잡혀 있는 의금부로 향했다.

"부마도위를 뵈러 왔다. 길을 내거라."

"아무도 옥사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수양대군의 하명이 있으셨습니다."

"이 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난 선왕 전하의 여식, 이 나라의 공주니라. 네가 감히 누구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냐?"

"역모에 가담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공주마마라 하셔도 함부로 얼굴을 볼 수는.."

경혜가 자신을 막아 선 군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누가 역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냐? 증험도 없이 부마에게 역모라니.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증험이 없긴 왜 없습니까. 공주. 아무렴 증험도 없이 감히 부마를 이곳까지 압송했겠습니까?"

수양대군이었다. 경혜는 날 선 눈빛으로 자신의 숙부를 바라봤다.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경혜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전하의 어명도 없이 부마를 압송하라 명한 이가 숙부이셨습니까?"

"일전에 김종서 대감을 처벌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역모는 임금의 하명 없이도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공주마마 아우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데 어찌 그리 속 편한 소리를 하십니까?"

"숙부!! 부마는 역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마는 제 지아비입니다. 그 누구보다 전하께 충성하는 신하란 말입니다. 그런 제 서방님을 역모로 몰고 갈 작정이시라면 어디 그 증험이라는 것부터 내 보이시지요. 증험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내 드리지요. 그 증험이 곧 이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양은 당당했다. 그런 당당한 태도에 경혜는 증험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김종서 대감마저 역모로 몰아 처단한 숙부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지아비도 역모로 몰 작정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스러웠다.

"대군."

날선 기류가 흐르는 둘 사이의 적막을 깨 주는 사내가 왔다.

"왔는가. 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공주마마, 보시지요. 제가 말한 증험입니다."

신숙주였다. 얼마 전 경혜의 집에 와서 단종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신숙주였다. 경혜는 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감!"

"이제 말해보게. 내게 해준 부마도위의 발언을 공주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이네."

"부마도위 정종은 역모 죄로 죽임을 당한 김종서가 역모 죄를 짓지 않았다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게다가 죄인을 처단해 공을 세운 대군을 역적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역적을 두

둔한 것만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할 죄인데 이리 공신을 모함하려 하기까지 했으니 공주마마의 지아비라 하나 국법은 지엄한 법, 어찌 이를 고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마마? 부마께서 참으로 참담한 언사를 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부마에게 죄가 없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내 하나 더 묻지. 그 때 말이네. 부마도위가 그런 참혹한 언사를 입에 담을 때 공주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예, 계셨습니다. 대군."

"허면 공주께서는 부마의 발언을 듣고 어찌 하셨는가? 국법의 지엄함을 아시는 분이시니 말리셨겠지?"

"아니요. 그저 듣고 계셨습니다."

경혜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던 수양은 조소를 지으며 경혜를 바라 봤다.

"이런.. 공주께서 어쩌다가 역모에 가담을 하셨을까?"

"대감. 지금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 제게 아우의 편에 서서 김종서 대감의 일을 바로 잡겠다고 약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협박을 당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리세요."

"신숙주 대감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마. 대감은 처음부터 역모 죄에 가담한 죄인들을 발본색원하라는 제 명을 받아 마마의 집에 간 것이니까요. 허니,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자네는 이만 돌아가게."

"네 이놈. 아바마마께서 네 놈을 그리 믿으셨거늘. 그리 아끼셨거늘. 네가 감히 아바마마의 아들에게 칼을 꽂는 것이냐? 그러고도 네 놈이 살기를 바라느냐?"

경혜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신숙주가 수양과 경혜 둘만을 남겨놓고 자리를 떴다.

"그만하시지요. 마마. 왕실의 여인으로서 어인 추태이십니까?"

비아냥거리는 수양을 경혜가 노려봤다.

"그 눈빛도 좀 죽이세요. 공주. 이 숙부의 명 한 마디이면, 공주 또한 당장에라도 저 옥사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러게 내 뭐라 했습니까? 아녀자면 아녀자답게 집안일에 힘쓰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바깥일에 신경을 쓰다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부디 지금부터라도 없는 듯이 계세요. 그렇게 바짝 엎드려 계시면 혹시 압니까? 곧 지아비도 잃고, 아우도 잃게 될 공주를 측은한 마음에 그 목숨만을 살펴줄 지."

"숙부. 아바마마께서 보고 계십니다.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승에서 지은 죄는 저승에서 제가 다 치르도록 하지요. 허니, 그것에 대한 걱정은 마십시오. 옥사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곧 이별을 하게 되실 텐데 석별의 정은 나눠야 하질 않겠습니까?"

-14-

경혜가 옥사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저기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옥사는 안 그래도 불안한 경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진 고신으로 피투성이가 된 죄인들을 거쳐서 마침내 정종이 있는 옥사에 다다랐다.

"서방님!"

"공주마마, 댁에서 기다리시라니까 어찌 이리 험한 곳까지 걸음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먼저 걱정하는 부마를 보며 경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찌 제 걱정을 먼저 하십니까. 서방님을 이리 만든 것이 저인데. 원망을 하셔야지요."

"당치 않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마로 간택되지 않았더라면, 아바마마의 명을 그리 충실히 따르지 않았더라면 서방님이 이런 고초를 겪으실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 피하고자 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마가 된 것도, 마마와 전하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것도 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누가 등 떠밀어 한 일이 아닙니다. 허니, 그런 죄의식에서는 이만 벗어나세요."

경혜와 정종은 옥을 사이에 두고, 조금이라도 서로를 더 느끼려 애썼다. 긴 이별을 앞둔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예견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숙부가 서방님을 역모로 몰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험이 있다고 추국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신숙주 대감이 숙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을 그르쳤습니다."

"마마의 탓이 아닙니다. 그 또한 제 결정이었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역모는 즉결 심판이 가능한 죄입니다. 제가 백방으로 서방님을 구할 방도를 찾겠지만, 저들이 전하를 겁박해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정종이 경혜의 말을 끊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마마. 마마께서 저를 두둔하신다면 마마께서도 역모 죄로 엮이게 됩니다. 그것이 수양이 바라는 일임을 잊지 마세요. 저를 내 주시고, 후일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방님을 내주라니요? 어찌 제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선왕 전하의 유지를 기억하세요. 마마께서는 남아 전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마께서는 홀몸이 아니십니다. 복중의 제 아이도 잘 지켜 주셔야지요. 그 아이의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내 아이이면,,"

정종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군관들이 들이닥쳤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마마. 이만 옥사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군관들이 경혜를 끌어내려하자, 정종이 호통을 쳤다.

"네 이놈들. 어디 손을 대는 것이냐? 정중히 모시지 못할까?"

정종의 호통에도 군관들은 경혜를 험하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경혜는 마지막으로 정종의 손을 잡고자 옥사 안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놓아라. 아직 말을 마치지 못했다. 아이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 그것을 들어야 한다. 그분이 보시지도 못할 아이가 아니냐. 이름이라도 지어 주셔야 훗날 낯설지 않으실 게 아니냐."

경혜의 부르짖음에도 군관들은 매몰차게 경혜를 끌어냈다. 눈물범벅이 된 경혜가 마주한 것은 숙부였다.

"석별의 정은 잘 나누신 것입니까 공주?"

"제가 잘못했습니다. 숙부. 부마를,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신숙주 대감을 만나자 한 것도 저이고, 죄인 김종서의 처결에 의심을 품은 것도 저입니다.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제가 받을 것이니 제발 서방님을 풀어주세요. 숙부."

경혜가 수양대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런.. 자비를 구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공주. 전하께, 아니 이제는 상왕 전하이시지. 상왕 전하께서 제게 선위를 하시겠다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나라 조선의 왕은 공주의 아우가 아니라 이 숙부란 말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었는데 자칫 불씨가 될 위험인물인 부마를 살려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선위 교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 숙부에게 선위를 하시겠다는 교지를 내리셨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하를 봬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뵙고 사실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도 어려울 듯합니다. 마마. 상왕께서 조정의 일로 성심이 어지럽다 하시며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궐을 떠나 영월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공주께서는 아우를 보실 수 없습니다. 훗날, 저승에 가서 아바마마와 해후를 할 때, 그 때 보시지요."

수양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한 후에 자리를 떴다. 경혜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혜의 인생은 아우를 위한 삶이었다. 자신도 모자라 자신이 첫정을 준 사내마저 그리 살게 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던 날들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던 어제가 경혜는 미치도록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경혜는 이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은 경혜의 치마 사이로 선혈이 낭자했다.

"마마!"

경혜가 쓰러지자 다급히 예령이 뛰어왔다. 예령은 쓰러진 경혜의 아래에 피를 보고 기겁하여 의원을 불렀다.

"거기 아무도 안 계시오? 여기 공주마마가 쓰러졌소. 하혈을 하시오. 내의원에 고해주시오! 마마, 마마.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마마."

-15-

경혜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가늘게 떠진 눈 사이로 밤새 자신을 간호한 예령이 보였다. 예령은 경혜의 기척이 느껴지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혜의 안위를 살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잠시 어지러워 혼절을 한 것뿐이다. 소란 떨 것 없어."

"마마"

예령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경혜를 바라봤다. 그런 예령이 무언가 고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한 경혜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마마. 복중의 아기씨께서 유산되었다 합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충격까지 받아 그리 됐다 합니다."

"뭐라는 것이냐? 아이가 잘못되다니. 그럴 리 없다. 서방님이. 서방님이 이름을 생각해 놓으셨다고 했단 말이다. 그럴 리 없다. 내가 그 분의 아이마저 지켜내지 못했을 리가 없어."

경혜가 울부짖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울부짖는 경혜를 예령이 붙잡았다.

"마마, 심지를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마마의 안위만을 걱정하시던 서방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사셔야 합니다. 살아야 복수도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예령의 말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애 쓴 지아비를 떠 올린 경혜는 이내 울음을 삼키려 애썼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님이 전해 달라던 서신입니다. 마마께서 안정이 되시면 전하라 하셨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정종이 남긴 마지막 서신에 담긴 내용은 간단했다. 자신의 처형장에는 오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든 죽지 말고 살아달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경혜가 자신이 보지 못하고 가는 세상을 더 보고 와서 나중에 다시 만나는 날 보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서신의 마지막에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은애했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마마를 은애했었다고.

서신을 읽은 경혜는 담담했다. 또 눈물을 흘릴까 걱정한 예령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다른 누구를 위해 살지도 않을 것이다. 서방님이 선물해 주신 내 인생을 나는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살 것이다. 예령아."

"예? 마마, 그게 무슨..."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나라의 공주로서, 선왕 전하의 여식으로서, 전하의 누이로서 살아 온 생이 아니더냐. 더는 그리 살지 않을 것이다. 서방님께서, 아바마마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신 말처럼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예령아."

경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죄인 정종의 처, 경혜는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16-

찬 날씨에 얼음장 같이 차가운 시냇물에 방망이를 두드리며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일이 손에 익지 않는 지 연신 서툴러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 여인의 옆에서 야무져 보이는 여종이 여인의 일감을 자꾸만 빼앗아 갔다.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두어라."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 본 마마께서 이 일을 어찌 하십니까? 괜히 제대로 빨리지 않은 빨래를 가져갔다가 퇴짜를 맞아 일을 다시 하느니 제가 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경혜공주였다. 비단 옷을 벗고, 장신구도 빼고, 은비녀도 뺀 모습이 영락없는 촌 아낙의 모습이었지만, 흐르는 귀티를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경혜의 옆에는 이전과 같이 예령이 있었다.

"마마, 이 빨래는 제가 하고 갈 것이니, 저기 마마께서 하신 빨래만 들고 가십시오. 어제 불침번도 서셨는데 가서 눈이라도 붙이세요."

경혜는 일어나지 않으려 했지만, 힘으로 몰아붙이는 탓에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예령이를 두고 경혜가 먼저 관아로 갔다.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여비의 날선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어이, 거기 그 빨래 제대로 된 거 맞아? 빨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경을 친단 말이야. 확인을 해야겠으니 이리 가져와 봐."

경혜는 고분고분 빨래를 가지고 여비 앞으로 갔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기 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이 얼룩 안 보여?"

"미안하네. 내 아직 일이 서툴러서"

"하대는.. 지나 나나 똑같은 관비 처지이면서"

관비의 목소리에는 여인이 한 실수를 추궁하는 기색보다 그저 여인의 기를 누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사과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짜증은 예령이 와서

말리고 나서야 끝을 볼 수 있었다.

“어찌 이러십니까? 이 분이 실수하신 게 있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수습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비로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존대를 하는 것이냐? 너도 이곳 생활 적응하려면 줄 바로 서야 할 것이야.”

“그건 내 알아서 할 것이니 일 보십시오. 여기 일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인의 몸종이 와서 말리자 더 다그칠 구실이 없었는지 관비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자리를 뜬 관비를 보고나서 몸종은 자신의 경혜를 살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제 잘못입니다. 빨래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저 때문에 괜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욕인 것 마냥 속상해 하며 말을 이었다.

“그게 왜 네 잘못이냐. 일이 서툰 내 잘못이지. 그나저나 너는 어서 공대하는 버릇부터 고쳐야 할 것 같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공주마마는 선왕 전하의 여식, 이 나라 조선의 공주이십니다. 제가 모시는 상전이십니다. 제게 어찌 하대를 명하십니까?”

“되었다. 언제 적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그 굴레를 입고 살지 않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 마십시오. 마마께서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제 상전이십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문이라니?”

“전하께서 상왕 전하를 영월에 유배하신 것도 모자라 사사하라 명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마마도 관비로 내치시고요. 이것을 두고 백성들이 수군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마마께 너무하시다는 여론이 많아서 잘하면 면천을 명하실 수도 있다 합니다.”

“다시 공주의 자리에라도 올려 주실 것 같아서 그러느냐?”

“예? 그거야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괜한 기대 말거라. 공주로 올려준다 해도 내 그 작위를 받지 않을 것이야. 나는 지금이 낫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리 고된 관비 처지가 공주였던 그 때보다 낫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일전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

“무슨..”

“서방님이 남긴 마지막 서신을 읽었을 때 말이다. 그 서신을 읽고, 서방님이 선물로 주신 내 삶의 목적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두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나는 공주의 자리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늘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도 모른 채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헌데 서방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게 그것을 일러주고 가신게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이 좋구나. 공주인 그 때보다, 서방님의 귀한 선물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지금이 좋다.”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맛난 것 먹고, 귀한 옷 입는 공주였을 때의 마마가 더 좋아 보이니 말입니다.”

“후대에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도 그리 여기겠지. 비운의 공주라고. 허나, 나는 그리 여

기지 않는다. 이 나라 조선의 왕실에서 나만큼 자유롭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삶을 사는 여인은 아마 다신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 줬으면 좋겠구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빨래를 들고 냇가로 향하면서 경혜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공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야 그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도망자

국어국문학과 20151124 이윤지

날이 더웠다. 뉴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이라며 떠들던 게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실내에 앉아있는데도 땀방울이 흘러내릴 정도였다. 손을 들어 땀을 닦아내며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의욕은 공기 중의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고 몸은 축축 늘어졌다. 이대로 잠에 빠질 것 같았다.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아뇨."

나는 고개를 흔들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자는 괜찮다는 말에도 미안함을 지울 수는 없다는 듯이 살짝 찌푸린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내 앞에 앉았다. 사실 그녀가 미안해할 이유는 없었다. 내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상담실에 도착했고, 그녀는 당장 끝내야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들고 싶을 만큼 편안한 소파에서 땀을 식히고 있었으니 기다리는 과정이 지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일을 마쳐서 잘 수 없게 된 것이 아쉬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리가 없는 여자는 평소처럼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적당한 말을 찾아 답을 했지만 내 답이 길게 이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러면 여자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새로운 대화 주제를 건넸다.

단조로운 대화가 이어지자 밀어냈다고 생각했던 졸음이 슬그머니 몸을 붙여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졸음을 쫓아낼 만큼 거슬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이대로 누워서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었다. 어제 몇 시쯤 잠들었더라.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뇌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는 듯 했다. 생각의 흐름 역시 둔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휴가에는 바다에 갈 거야."

"바다..... 전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고 싶어요."

툭, 하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뇌는 아주 느리게, 내가 던져버린 말을 해석했다. 해석이 끝나고, 한순간에 잠이 깼다. 잠결에 생각과 말을 혼동했고, 사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찾아봤으나 말을 뱉은 목 한 구석이 간질거렸고, 귓가에는 방금 내가 들린 내 목소리가 생생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놀란 표정이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내가 불쾌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는지 놀란 표정을 금세 상냥한 미소로 바꿨다. 상담사라는 그녀의 직업에 어울리는 사려 깊은 태도였다. 박수받아 마땅할 그 미소 뒤에는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았다는 기쁨이 어른거렸다. 나는 어설프게 마주 웃으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상담은 그렇게 끝났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나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려 시도했고, 나는 바쁜 일이 생각났다는 되도 않는 변명을 던지고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그녀도 따라 일어나 나를 쫓아오려는 듯 했지만, 계단까지 내달린 뒤에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건물 입구 앞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젠 장,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굴었을까. 바다에 갈 거라는 그녀의 말에 적당히 끄덕이

며 부럽네요, 라는 반응이라도 보인 뒤에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가 나왔다면 조금은 자연스럽게 들렸을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일 정신이 있었다면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가 나올 일도 없었겠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해서 다른 상황을 상상하는 게 멈춰지지는 않았다. 얼마 만에 다른 사람에게 스쿠버 다이빙의 얘기를 했던 건지 무심코 세어보다가 고개를 내저었다.

"얼마만이고 뭐고, 다신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하지."

길거리로 나오자 번잡한 차도가 있었다. 한낮이니 출퇴근 시간도 아니건만, 이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덕분에 길이 막혀서인지 집에 가는 버스는 20분 뒤에야 온다고 했다. 20분이면 걸어서라도 집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폭염을 핑계로라도 버스를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폭염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교통비도 아까웠는데, 그 긴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걸어가는 게 낫겠지. 나는 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의 소음을 피해 빠른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이 길을 걸어 상담실과 집을 오가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잔잔한 아쉬움도 일었다. 생각해보면, 상담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잡담에 가까운 이야기들만 나눈 시간이었다. 내가 이렇다 할 고민거리를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진지한 상담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마음을 열기를 바라면서 가벼운 주제의 대화를 끝없이 이어나갔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일에 진전이 없어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시간들이 싫지 않았다. 진짜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던지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꾸준히 대화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녀의 놀란 표정에 불쾌감을 느껴서 상담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내 지나치게 깊은 내면 어딘가에 맞닿아있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튀어나온 이상, 그녀와 다시 편하게 잡담을 나눌 수는 없었다.

감상에 젖은 채 길을 걸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했다. 예를 들자면, 적절한 기온 같은 것. 머릿속에서 얽혀가던 생각들은 지독한 더위에 맥없이 녹아내렸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아스팔트 위로 튀어 오르는 햇빛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꽤 긴 시간이 걸리고서야 그것이 매미소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러다 쓰러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응급실을 거쳐 죽음까지 내달려가는 상상력을 간신히 붙들고 더위를 피할 건물을 찾기 시작했다. 식당, 식당, 카페, 화장품가게, 카페. 더위를 피해 들어가기에는 수중에 돈이 없었다. 그렇게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걸음을 옮기던 내 시야에 편의점이 들어왔다. 비싼 가게도 아니고, 편의점이라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더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젖히자 냉기가 나를 맞이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계산대의 아르바이트생이 밝은 목소리로 외치며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살짝 놀라 움츠러들었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다. 한 번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고 나니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아르바이트생의 시선이 닿지 않는 매대 뒤로 피한 나는 그제야 에어컨 바람을 즐길 수 있었다. 꽤 긴 시간 그렇게 서있었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주변에 놓인 물건들을 눈으로만 훑으며 시간을 끌면서 아르바이트생의 눈치를 살폈다.

종소리가 시끄럽게 울린 것은 그때였다. 동시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복이었다. 불쾌한 기억이 고개를 쳐들었다. 무심코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말을 흘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마주한 낯익은 교복은 그 녀석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녀석은 항상 교복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고 넥타이까지 꽉 조여서 매고 있었다. 더운 여름에도 단정한 옷차림에 변함은 없었다. 그 녀석 자체도 그 옷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녀석은 고등학교 삼 년, 여섯 학기 동안 전교 3등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 녀석과 내가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어느 날엔가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로 인사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 대화 끝에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느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니 그 녀석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했고, 어쩌다 우리가 다음날부터 같이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됐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녀석과 나는 성적을 비롯해서 많은 점이 달랐고, 대부분 그 녀석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럭저럭 동등한 친구 관계로 지냈다. 녀석에게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녀석은 천문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다. 담임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 녀석을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그 녀석을 설득할 마음은 없었지만, 의문은 있었다. 밤하늘의 별이나 보면서 낭만을 즐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천문학과라는 학과는 일상과는 거리가 먼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녀석은 어쩌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걸까. 나는 멋대로 그 녀석이 나하고 같다고 판단했다.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에 마침 다른 학생들도 없었다. 그 녀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원하는 학교의 천문학과에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캄캄한 밤에, 보통의 남자 고등학생이라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늘어놓는 녀석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

"사실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진짜? 야, 왜 지금까진 말 안했어! 뭔데?"

"그, 후우..... 스쿠버 다이빙."

숨까지 한 번 내쉬고서야 말을 꺼냈던 것이 유달리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때의 나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남에게 한다는 것 때문에 꽤 긴장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녀석은 비웃지 않을 거라고. 진지하게 들어줄 거라고.

녀석은 예상대로 나를 비웃지 않았다. 멋지다! 라며 감탄한 뒤에 어떻게 다이버가 될 건데? 하고 물었다. 녀석이 내게 다른 걸 물었다면 얼마든지 대답해주었을 것이다. 다이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롯해서 어떤 곳이 다이빙하기 좋은 곳인지, 어떤 다이버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뭐든 답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내게 어떻게 다이버가 될 것인지를 물어봤다. 녀석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지나치게 진지하게 들어준 것이 문제였다. 나는 멍청하게 어물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녀석은 순진하게 의문을 품은 표정으로 내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고, 나는 초라한 답을 내놓았다. 그 뒤로 몇 차례의 말이 오갔고, 녀석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 다음날부터, 녀석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도 녀석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 녀석은 다른 무리에 섞여 들어가서 어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대로 혼자 다니게 되었다. 내가 그 녀석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도망치는 주제에, 라는 말이었다.

학생들의 등장 이후 편의점은 급속도로 불편한 공간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으려고 아르바이트생의 눈치를 살피던 나는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 녀석을 연상시키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 녀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다만, 나는 녀석을 싫어하는 만큼 소음도 싫어했다. 키가 훤칠한 남학생 넷에 솜씨 좋게 화장을 한 여학생 셋, 도합 일곱 명이니 한마디씩만 해도 좁은 편의점이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야, 너넨 뭐 먹을래?"

"나 우유, 딸기우유!"

"그 자식들 먹을 건 싼 걸로 사가자."

점심시간을 틈타서 간식거리를 사러 온 모양이었다. 두 녀석이 가방을 챙겨 나온 것이 눈에 띄었지만 물건을 사면 담아갈 곳이 필요하니 챙겨 나온 거겠지 생각하며 애써 진열된 물건들로 시선을 돌렸다. 저들이 오후 수업을 빠질 생각이라고 해도 나는 저들의 학교 선생이 아니었다. 참견할 의무는 없었다.

"너 근데 그거 들었냐? 얘가 수영선배한테....."

"아 미쳤어 진짜! 말하지 말라고!"

다 같이 한 가지 주제로만 이야기를 해도 귀가 아플 지경인데, 그들은 둘씩 셋씩 모여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너 명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에어컨 바람이 전해줬던 소소한 행복은 한참 전에 날아갔고, 그 자리를 채운 불쾌한 기억과 귓가를 비집고 들어온 소음들이 뒤섞였다. 머릿속이 전장이었다.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다퉈댔다. 자기들의 말소리가 남에게도 들린다는 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 그들은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였고, 큰 소리로 웃었다.

집단이란 저렇다. 자기들끼리 교류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남들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남을 신경 쓰지도 않는다. 나 역시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들의 소음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나는 혼자였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알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자각 없이 상대를 괴롭히는지는 괴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악의는 없다. 그러니 너그럽게 봐주자고 마음먹고 학생다운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라며 웃고 넘길 사람도 분명 많을 것이다. 서글프게도 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활기가 만들어낸 소음이 퍼부어 지는 상황은, 조금 과장하자면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같은 소음이라고 해도 누군가 슬픔으로 오열하는 소리였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를 던지며 지나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의 폭력적인 소음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다. 가장 저렴한 하드 아이스크림을 집었다.

다시금 계산대의 아르바이트생과 마주했다. 들어올 때부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던 그녀는 내 또래로 보였다. 이 시간에 일하는 걸 보면 고등학생은 아니고 나이가 많지도 않으니 대학생인 것 같았다. 아까는 급히 시선을 돌려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쌍꺼풀 없는 눈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까? 나는 실례가 될 정도로 그녀의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그녀는 눈치 채지 못했는지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호선을 그리며 휘어져있던 입술이 열렸는데, 뒤

따라 나온 목소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활력이 넘쳤다.

"천원입니다, 적립이나 할인 되는 카드 있으세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으며 지폐를 꺼내 내밀었다.

"지폐 받았습니다."

포스기에 돈을 넣는 동안에도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고 걸음을 옮겼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옷 가게에서나 들을 법한 인사가 등 뒤에서 들리기에 문득 나가려던 것도 잊고 고개를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보았다. 왜 돌아본 걸까. 그녀는 여전히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기분 좋은 웃음에 마주 웃을 수가 없었다. 가슴께의 어딘가가 화끈거리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아르바이트라면 나도 해본 적이 있었다. 그 때 내가 본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이 많이 오면 매상이 오르는 걸 기뻐하기보다는 일이 늘어난 것을 불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가게의 장사가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똑같은 것이다.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해봤자 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받는 것도 없이 열의 넘치게 할 만큼 일이 만만한 것도 아니었다.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힘든 마당에 일을 하는 것이 쉽고 편할 리가 없다. 몸이 피곤하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신경 쓰는 것이 힘들어진다. 내가 알던 아르바이트란 그런 것이었다. 그렇지만 눈앞의 사람은 달랐다. 계산 하는 그 잠깐 본 모습으로 그녀의 일상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모든 일에 열의가 넘치고, 성실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서툴지 않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녀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손님, 뭐 잘못 된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급하게 시선을 돌리고 도망치듯 편의점에서 나왔다. 요란하게 울린 출입문의 종소리 사이로 들린 네, 또 오세요! 라는 인사가 발목을 붙들고 매달리기라도 했는지 걸음이 무거웠다.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편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고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나는 오늘은 최악의 날이며, 소음이 그 절정이라고 생각했다. 섣부른 판단이었다. 정말 최악은 따로 있었다. 최악인 것은 시끄럽게 떠들었던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의 환한 미소도 아니었다. 가장 최악인 것은 내가 불쾌감을 느낀 이유였다. 나는 활기가 싫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싫다.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친구들과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는 게 싫었고, 일을 하면서 나의 무기력함을 경멸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을 보는 게 싫었다.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내는 소음에 불쾌감을 느낀 것 까지는 괜찮았다. 내 마음 속 어딘가에 진실이 있었지만 눈을 돌리고 정당화할 수 있었다. 누구든 소음을 환영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환하게 웃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보기 싫다고 느낀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 할 수 없었다. 일순간 느낀 그 감정이 한심한 나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얼마나 꼬여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느낀 감정은, 숙제를 안 한 꼬맹이가 나 말고도 누군가는 안 해왔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하나 둘 노트를 제출하는 걸 봤을 때 느낄법한 것이었다. 변명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 녀석이 내게 처음 알려줬던 감정이었다. 나를 두고 저 멀리 빛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사람을 볼 때의 음습한 패배감.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조금만 있으면 더위가 비참한 기분도 몰아내 줄 것이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이 감정을 잊은 경험이 있었다. 그 녀석의 일도, 오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새삼 떠올릴 일도 없이 영영 잊고 지냈을 것이다. 하물며 친구도 아닌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느낀 감정을 잊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나는 한심한 나로부터 다시 눈을 돌리는 쪽을 택했다.

생각을 밀어낸 것은 더위가 아니라 하드 아이스크림이었다. 편의점에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더위를 몰아내줄 거라는 기대를 걸고 산 아이스크림이건만, 그건 나보다도 더위에 약했다. 도저히 뭘 먹을 기분이 아닌데도 내 지갑을 떠난 이황 선생님을 생각하며 나름 열심히 먹었건만, 아이스크림은 더운 공기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녹아내렸다. 아래부터 먹어보기도 하고 녹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을 이리저리 기울여도 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결국 손가락 사이사이가 끈적거리는 상태로 더위 속을 걸어야 했다. 힘들게 아낀 교통비와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 돈을 내고 샀건만. 입안에 남은 단 맛이 거슬렸다.

삑, 삑, 삑, 삑. 띠리릭. 도어락 소리가 요란했다. 묵직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유감스럽게도 현관에는 신발이 두 켤레나 놓여있었다. 신발의 종류를 보니 어머니와 동생의 것이었다. 동생과는 서로 상관하지 않고 지낸지 꽤 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늦었구나, 무슨 일 있었니?"

텔레비전 앞에서 빨래를 개던 어머니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물어왔다.

"걸어왔어요."

".....그렇게 여유 있어도 되는 거니?"

버스를 타봤자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나름 교통비까지 생각해가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얘기를 꺼내서 자기변호를 해봤자 누가 너에게 몇 푼의 돈을 아끼라고 했느냐는 말이 돌아올 것이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 좀 해봐, 너 정말 이러고 있어도 되겠니. 자주 듣는 말은 정해져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어머니는 다시 빨래로 시선을 돌리셨다. 나는 오랜만에 마주한 무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방으로 향했다. 양말을 신을 걸, 이 더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맨발이 장판에 쩍쩍 달라붙었다. 내 발소리가 거슬렸지만 소리를 죽일 방법도 없었다. 방에 들어와 천천히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끼이이익-

조용히 닫으려고 나름 애쓴 거였는데, 이보다 거슬리는 소리가 나기도 힘들겠다 싶은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아까보다 빠른 속도로 문을 마저 닫았다. 문이 비명을 질러댔다. 따라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진짜로 지를 수는 없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달려와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할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벌이지 않는 게 좋았다. 드디어 방에 혼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 목 끝까지 치받고 올라오는 비명을 눌렀다. 나는 그 정도로 애매하게 몰려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널을 뛰고 바닥을 기어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침대에 몸을 누이자마자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역시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걸까, 튀어오르듯이 몸을 일으켰다.

"너, 이번 달 내로 어디든 취직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내 방 앞에서 그 한마디만을 던져둔 채 가만히 계셨다. 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마음은 없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기에 나는 조용히 있는 것을 택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제야 편하게 침대 위에 누울 수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각별한 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주셨고, 나도 그랬다. 내가 자라면서 어쩔 수 없는 거리가 생기긴 했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평범한 부모자식 관계였다. 고3 때 까지만 해도 그랬다. 아니, 내가 재수를 할 때까지도 우리는 나쁘지 않았다. 두 번째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했을 때, 지난번보다 조금도 오르지 않은 등급이 문제였다. 과학탐구 과목은 오히려 한 등급 떨어졌다. 부모님은 내 이름 뒤에 재수까지 하고도 이름 없는 대학에 갔다는 소리가 따라붙을 것을 걱정하셨다. 나는 또다시 상향지원을 했다. 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결과 나는 대학 입시에 두 번 연속으로 실패한 뒤에 아예 진학을 포기한 스물한 살의 고졸이 되었다.

꼭 수능 점수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훨씬 예전부터 이미 예정된 결과였고,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도 언젠가는 문제가 터졌을 거라는 쪽이 설득력 있었다. 어머니는 내 일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어머니에게 나는 아직 백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가져오던 열 살 소년이었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뭐든 안 될 리가 없다. 지금은 아직 마음을 못 잡아서 그렇다, 시험 날 긴장해서 그렇다며 나보다 열심히 핑계를 찾고는 다음에는 마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나를 위로하고, 부추기셨다.

재수도 그랬다. 우리 일 년만 더 힘내보자, 너라면 할 수 있어.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면 그 이후의 긴 세월이 편해지지 않겠니. 그 말에 혹해 일 년을 버리고 보기 좋게 꺾여버린 아들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한동안 나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않던 어머니는 꽤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를 붙잡고 말을 거셨다. 얘, 그러면 일찍 취직을 하렴. 그래서 대학 나온 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하면 돼. 넌 삼 년이라는 시간을 번 거야. 큰 결심을 하신 듯 비장한 표정을 마주한 나는 눈에 뻔히 보이는 실패를 차마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 뒤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취직자리를 알아봤지만 줄줄이 실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그 시점에서 스스로를 포기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대학 입시를 포기함으로서 벌었다던 삼년조차 거의 다 날렸고, 이젠 백수나 다름없는 아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걸고 계셨다. 포기라는 걸 모르는 어머니에게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나는 기대를 받고 있는 당사자였다. 포기하라고 하기에는 염치라는 게 있어서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네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며 비싼 돈을 들여 상담 센터에 보내셨고, 나는 지금껏 큰 반발 없이 상담실에 다니는 걸로 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상담도 오늘로 끝났지만, 나는 그저 아들이 일방적으로 상담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통보를 늦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몸을 뒤집어 엎드린 자세로 노트북의 전원을 켰다. 미처 손을 씻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끈적거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보다 다시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강했다. 부팅이 끝나고 모니터가 환하게 빛났다. 손에 익은 비밀번호를 치자 수백 번은 봤을 바탕화면이 시야를 채웠다. 바다 속을 찍은 사진이었다. 다이버들이 촬영한 수중 사진. 다른 다이버

가 찍히지 않은, 기본 화면이라고 생각될만한 바다사진을 고심해서 골랐었다. 원래는 예의상 취업정보나 둘러보자는 생각으로 켠 컴퓨터였지만, 나는 인터넷 창을 여는 대신 사진 폴더를 클릭했다. 바다 사진만 백 장이 넘게 들어가 있는 폴더가 열렸다. 각기 다른 푸르른 사진들이 모니터를 한가득 채웠다. 그간 스쿠버다이빙에 대해 찾아보면서 저장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

이렇게 사진이 쌓이는 동안 배운 것도 많았다. 나는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꽤 잘 알았다. 공기통과 수중 호흡기, 부력 조절기, 공기 압력 게이지, 수심계, 나침반, 비상호흡기 등의 장비 이름은 그 녀석과 함께 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였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인터넷에 검색해본 것이 시작이었다. 책이나 다큐멘터리, 다이버가 등장하는 소설책까지 찾아 읽었다. 그 뒤로 긴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푸른 바다의 사진을 띄우고 있는 모니터는 지금까지도 내게 위로가 되어주었다.

우습게도, 그토록 다이빙에 대해 찾아보면서도 다이버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녀석에게 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내가 원서를 넣었던 과는 늘 공대에 속한 과였다.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취미생활로 다이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찾아보지 않았다. 국내에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장비를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정말 스쿠버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이 듣는다면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고 비웃을 것이다. 그 녀석이 나를 떠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엄밀히 말해서, 나는 스쿠버다이빙이라는 스포츠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도 그 녀석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그 날 이후로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내가 왜 처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게 됐는지를 돌이켜보고서야 깨달았다. 내가 그 때도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침묵이 흐른다. 침묵에 잠기다. 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까?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무언가를 느꼈을 거라고 멋대로 상상하곤 했다. 물에 잠겼을 때의 이질적 단절감과 침묵은 닮아있었다.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유난히 민감했다. 특별히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중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혼자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입을 다물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상상하는 게 빨랐다. 도망치는 것이다. 수면 아래로, 단절된 세상으로, 내 안의 침묵으로.

이런 걸 상담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찾아본 중학교 3학년 때의 나는 친한 친구가 전학가고 인간관계에서 떨어져나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입시에 실패한 나를 빼고도 잘만 굴러가는 사회,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는 것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한심한 나.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스쿠버다이빙을 찾아본다고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누구든 이런 사실을 알면 나를 한심하게 볼 것이다.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도망치는 것을 멈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보다는 맞서는 게 이상적이고,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미덕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 노력해서 현실을 마주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까웠다. 일의 대가가 주어져야 열의가 생기는 법이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수를 하면서 이미 바닥을 보았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사치라고 느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즐기기도 전에 미뤄둔 공부가 눈에 밟혔다. 놀고 싶다는 충동을 견디지 못한 날에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그러고도 실패했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자 인생은 원래 힘든 거 아니겠냐는 위로 아닌 위로가 돌아왔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사는 것이 모두의 꿈이 아니던가. 대체 왜 힘든 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걸까. 자신을 몰아세워야만 살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 거기까지 생각한 뒤에 나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다.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한심한 자신이 싫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편했다.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다. 햇빛을 받은 바다 속은 아름답다. 나는 수도 없이 뜯어봐서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외워버린 그 사진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사진을 떠올리고, 사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내 발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광경을 상상했다. 발등에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착각이 일어나면 물은 점점 차오르면서 끈적이던 손가락을 씻어낸다. 온몸이 잠기면 머리카락이 물풀처럼 흔들리고 몸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몸에 닿는 물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내가 움직이는 대로 흐른다. 팔 다리를 움직이면 약간의 저항이 일면서도 결국은 시원하게 몸을 감싸며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물로 가득 찬 내 방 안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내게는 이렇게 물에 잠긴 것 같은 침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최선이었다.

소설6

유리화

국어국문학과 20134107 김 서윤

내 생각에, 그리고 내 보기에 그 여자앤 비유하자면 '조화'같았다.
훼손하려 들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예쁨.'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늘 돌아보게 만드는 '예쁨'이 그 애에겐 있었다. 이름도 그랬다.
이유리화. 사실 (친근하게)부를 땐 '리화'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어쩐지 애들은 다 '유리'라고 불렀다. 그게 훨씬 어울리긴 했다. 리화라니, 북한 사람 같잖아. 그리고... 그게 더 예쁘고.
유리화. 유리 꽃. 유리 꽃=조화. 예쁘고 예쁘지만, 그렇지만 조화의 단점은 생기가 생화 같지 않다는 것.
언젠가부터 신경이 쓰였다. 왜 안 웃지? 집안에 문제가 있나?-로 시작한 내 지극히 정상적인 발상은 급기야 어떻게 생각해도 '웃는 모습 보고 싶다.'로 끝이 났다. 글쎄. 딱히 좋아한다.-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대진 않았으니까. 다만, 그저 눈길을 끄는 뭔가가 있었을 뿐.
아무튼, 그 앤 졸업할 때 까지 웃지 않았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앤 무표정 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웃지 않는 것과 무표정은 다르다. 전자는 말 그대로 웃을 일이 딱히 없어서 그냥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감정이 표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유리는 그냥, 딱 보면 웃을 일엔 웃겠다.-싶은 인상이었다.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없... 아니, 다르다.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웃을 일이 없었는지도...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었다. 웃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다. 그 때가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으니, 벌써 9년이나 되었다.
"꽃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길 가다가 보인 조화를 너무 뚫어져라 봤더니 점원이 나오고야 말았다.
"아... 아뇨, 그냥... 구경 좀..."
"천천히 보세요. 조화 좋아하시나 봐요? 대부분 생화 보시던데."
조화를...좋아한다... 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그런가요... 저기, 이거 다섯 송이만 주세요."
"아, 잠시 만요. 계산은 안에서 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고개를 들어 점원의 뒤를 따랐다. 계산을 하려고 돈을 꺼내면서 문득 점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변하지 않는 예쁨'...
"저... 여기..."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가게를 나오니 약간 멍 한 기분. 몇 걸음 갔다가 뒤를 돌아 꽃집의 이름을 보았다.
"유...리화..."
변하지 않는 예쁨.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내일은, 이 조화 옆에 있던 파란 조화를 사야지.

-유진(유리화 외전)

유진. 그 애가 등장하면서부터 반짝이기 시작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작은 아침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아이였다고 생각한다. 여자 같은 이름이라며 놀림을 당해도 모두와 다 잘 지냈고, 놀리는 친구들도 그 아일 우습게보지 않았다. 게다가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잘 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여서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발그레한 얼굴로 그 아일 쳐다보는 것이 이해는 갔지만, 거기에 동조가 되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밝은 무리에서, 나는 그늘에서. 그러한 일 년이었다.

저렇게 말하니 내가 대단히 외로운 아이였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냥 단지 나는 혼자가 좋았던 것뿐이고,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따뜻했고, 나는 시원했다. 그렇기에 서로 관심이 없었다. ...분명 없었을 텐데, 어느 샌가 느껴졌다. 그 아이가 종종 날 쳐다본다는 것이. 신경이 좀 쓰일까 싶었지만 이제껏 겪어온 것이 꽤 비슷했던 11살. '이 주변에 뭐가 있나보다.' '그냥 우연인가보다' 하면서 넘겨버렸다. 아니면... 할 일이 없어 책이라도 읽고 있을라치면 들려오는 여자아이들의 소곤소곤한 목소리에 의하면 나는 꽤 어른스러운 이미지로 보였던 것 같았다. ...'저 애도 내가 신기한가보다.'

한 번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저렇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어쩌다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즐겁지 않을까? 저녁을 먹으며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일 하기로 한 축구에 대한 생각으로 침대에서 잠이 들 때까지 웃을 수 있을 만큼. ...99개의 원석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단 하나의 보석처럼. 사람에 관심이 없었던 내게도 그 아이의 빛은 조금씩 흘러들었다. 그러다가 이내 눈에 띄게 반짝이기 시작할 때 즈음, 이미 나와 그 아이는 졸업을 한 뒤였다. 아마도 내 초등학교 시절의 유일한 친구가 될 뻔했던 그 아이. 조금은 눈이 가서 잊을 수 없던, 조금은 특이한 타인. 특히나 이런 눈부시게 날이 좋은 날엔 더 생각나는. 아마 지금이라면 더...

"꽃 찾으시는 것 있으세요?"

문득 창밖을 보니 밖에 진열한 꽃들 앞에 손님이 있다. 내가 물을 줄 몰랐는지 그는 조금 당황한 눈치지만 이내 대답한다.

"아, 아뇨.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천천히 보세요. 조화 좋아하시나 봐요? 대부분 생화를 보시는데."

스무 살 되자마자 꽃집을 차려 는 것이라고는 사람을 대하는 법과 시시콜콜한 말 뿐이다.

"그런가요... 저기, 이거 다섯 송이만 계산해 주세요."

"아, 계산은 안에서 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날 따라 들어오는 그가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 느껴진다. 대학생...아마 나와 동갑인 것 같은 그 모습에, 또 생각나버린다. 포장을 마치자 그가 돈을 꺼낸다.

"아,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인사를 하며 건넨 꽃을 받고 그는 한 번 가볍게 끄덕 해 보인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확신이 생겨난다. '단 하나의 보석.' 다시 본 반짝임이 문 너머로 사라질 즈음, 작게 불러본다. 잊을 수 없었던 유일한 타인의 이름. 유일한 타인의 반짝임을.

2015학년도

제6회

국어국문학과 주최

문예창작공모전

응모분야

批評

돌연변이

20151105 김솔비

어느 날,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의 정체는 돌연변이, 생선인간이었다.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그는 알바 명목으로 제약회사의 생동성 실험에 참여했다가 생선인간이 되었다. 제약회사에서는 그를 마루타 삼아 비인도적인 실험을 자행하였고, 그곳에서 탈출한 그는 세상에 '생선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돌연변이의 등장이었다.

<돌연변이>는 개봉 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작품이었다. 일단은 사람이 생선이 되어간다는 독특한 소재가 눈길을 끌었고,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호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기대감을 안고 본 영화는, 기대감보다 더 큰 무엇을 내게 남겨주었다. 반인반어(半人半漁)라는 우스꽝스러운 소재는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가득 담고 있었고,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었다.

평범한 청년은 어쩌다 생선인간이 되었을까?

'박구'라는 청년이 있었다. 20대 초반의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낸 그야말로 '평범한' 청년이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박구의 아버지는 아들 또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들을 서울로 올려 보내 공부 시켰지만 박구 또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알바로 생활비를 벌던 박구는 인터넷에서 제약회사에서 내건 구인광고를 보게 된다. 약을 먹고 이틀만 자면 30만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시급에 박구는 실험에 자원한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그는 생선인간이 되어버렸다.

기자를 꿈꾸는 청년이 있었다. 진정한 기자가 되고 싶은 그는 지방대 출신이었다. 사회는 그의 간절함을 보지 않았다. 사회가 본 것은 그의 이력서에 적힌 출신 대학뿐이었다. 매번 취업에 실패하던 청년, '상원'는 파업 중인 방송사에서 면접을 보던 중 잠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원래대로라면 지방대 출신인 그는 뽑지 않을 테지만, 파업 중이라 일손이 워낙 부족하니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채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상원은 방송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생선인간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여배우가 꿈인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주진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그녀를 거둬줄 사람 하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단역을 전전하며 그녀는 꿈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꿈은 너무 멀리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꿈을 비웃었고,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게 됐다. 결국 그녀는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 인물의 공통분모는 청년실업자라는 것이다. 영화의 주연인 세 인물은 모두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절망을 겪게 된다. 청년실업은 비단 영화 속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

로도 청년실업은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생선인간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배제하고 본다면 세 인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보통의 젊은이들이다.

근래 화제가 된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을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거나, 심지어는 스펙에 도움이 된다며 돈을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원 또한 열정페이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원은 취업이 확실시 된 것도 아님에도, 일말의 희망을 안고 자력만으로 생선인간을 취재한다. 영화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거울처럼 담아내고 있다.

생선인간의 주변인

생선인간이 된 박구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인물은 상원이다. 상원은 방송국에서 임시로 생선인간 루머에 대해 취재하던 중 박구가 제약회사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게 된다. 상원의 취재로 생선인간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자 방송국에서는 상원에게 취업을 빌미로 생선인간 취재를 요구한다. 상원은 방송국에 취직하기 위해 자신이 취재기자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며 박구에게 접근한다.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을 남기면 제약회사와의 소송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구를 설득한다. 오갈 데가 없는 박구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상원은 박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는다. 박구는 자신이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24시간 함께 있는 상원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주진'은 박구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다. 그래서 박구는 제약회사에서 처음 탈출했을 때, 주진의 집으로 도망을 온다. 박구는 주진을 믿고 주진의 집에 온 것이었지만, 주진은 돈을 받고 제약회사에 박구를 팔아넘긴다. 다시 제약회사에 잡혀 들어간 박구가 풀려날 수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박구를 위한 일은 아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생선인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거짓말을 한다며 욕을 먹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약회사로 가 박구를 찾아 생선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다. 그 이후 주진이 박구의 곁에 있기 시작한 이유도 상원에게 돈을 받고 상원의 취재를 돕기 위해서였다.

박구의 아버지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더불어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본인은 속물적이고, 그런 모습을 스스로 정당화 시키려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는 생선인간이 된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의 미련함을 탓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박구는 아버지에게 말대꾸 한번 하지 않는다. 익숙한 듯이 아버지의 비난을 묵묵히 들을 뿐이다. 제약회사와의 소송이 진행되면서도 박구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상태나 소송의 승패보다는 보상금에 쏠려있다.

김 변호사는 생선인간이 세상에 알려지자, 변호를 자처하고 나선 인물이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이전에도 파업에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었다. 제약회사를 인수한 대기업의 음모로 소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때, 그는 제약회사와 접촉한다. 이를 목격한 상원이 그를 비난하자, 그는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동안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상원이 기자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린다. 생선인간 소송 중에도 여론을 중시하던 그는, 결국 생선인간 사건 이후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다. 그동안의 활동과 더불어 생선인간의 변호를 맡았던 것 역시 그가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박구의 주변 인물은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박구의 곁에 머문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박구에게 접근한 것이고, 하물며 가족인 그의 아버지조차 생선으로 변해가는 아들보다는 보상금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을 박구는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를 원망하려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실험으로 속여 멀쩡하던 사람을 생선인간으로 만든 변 박사와 제약회사, 그 기술이 돈이 될 것 같자 제약회사를 인수해 음모를 꾸며 생선인간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대기업, 언론의 여론몰이에 쉽게 휩쓸리는 여론까지 박구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다. 그런데 충분히 고통 받고 있는 박구의 주변에 남은 인물들조차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구의 곁에 있는 것이다.

영화는 자본주의 현실의 냉정함을 꼬집는다. 주진은 상원에게 자신이 박구를 제약회사에 팔아넘긴 이야기를 하며,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한 짓이 잘못된 짓인가요? 라며 당당하게 따진다. 기아를 구제하기 위해 개발된 자신의 기술이 높은 가격 탓에 부자들의 사치품으로 전락한 것에 절망하는 변 박사에게 대기업 회장 또한 말한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장사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이다. 영화의 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생선인간 박구는 그들에게 이용당한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생선인간이라는 돌연변이를 만들어 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온통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사람들뿐이다. 그들은 모두 자본주의의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화 시키려 한다. 모두가 이기적인 가운데 피해를 받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박구이다.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피해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묵인한다. 영화는 결국 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스란히 나타내며 우리 사회에 날선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관찰자 시점의 효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돌연변이인 생선인간 '박구'이다. 그런데 이 영화의 대부분은 상원의 시점이다. 영화 <위대한 게츠비>와 같은 관찰자 시점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왜 상원의 시점을 따랐을까?

박구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진을 좋아하지만 당당하게 사귀자는 고백은 하지 못한다. 생선인간이 된 자신에게 한심하다고 말하고, 보상금 타령만 해대는 아버지에게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자신을 생선인간으로 만든 변 박사를 원망하지도 않으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스스로 변 박사의 실험에 마루타가 되기를 자처한다. 소송이 불리해지자 제약회사 측과 접촉한 김 변호사에게도, 기자임을 숨겼던 상원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생선인간이 된 박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화내지도 않는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구였을 것이다. 억울함도 가장 크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점점 더 생선화 되어 가고,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은 찾을 수 없으며,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의 심경이 가장 복잡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원의 시점에서 박구를 바라보는 관객은 그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그런데 박구는 영화에서 가장 말이 없는 인물이다. 처음 제약회사에서 탈출해 주진의 집으로 도망쳐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생선의 머리와, 비늘과 물갈퀴가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을 제외하면 평범한 청년 같았다. 자신을 찾고 있을 제약회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주진의 집에 있다는 설렘을 수줍게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진의 제보로 다시 제약회사에 감금이 되어 무자비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나오고,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박구의 말수는 급격이 줄어들었다. 돌연변이가 나타났다고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가장 조용한 사람은 돌연변이, 그 자신이었다.

박구의 고요함은 박구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었다. 만약 영화가 박구의 시점이었다면, 박구가 내뱉는 말은 적다하여도 내레이션으로 그의 속마음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박구의 심정이 정확히 어떤지, 누구를 얼마만큼 원망하는지가 잘 드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많은 말이 담겨있을 박구가 속마음을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의 절망감과 그가 한계까지 밀어붙여지는 상황이 더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침묵이 때로는 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관찰자 시점의 효과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원은 생선인간 사건을 취재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생선인간인 박구와 그의 주변, 사건을 면밀히 관찰한다. 박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사건을 파헤침으로써 박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생선인간 사건을 보다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선인간이 된 후 혼자서는 바깥외출도 할 수 없는 박구보다는 열정적으로 사건을 취재하는 상원이 더 알맞았던 것이다.

박구는 왜 바다로 갔을까?

박구를 생선인간으로 만든, 변 박사가 개발한 기술은 원래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이 기술은 세포가 끊임없이 자가분열을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변 박사는 이 기술을 이용해 생선의 유전자와 결합한 세포를 박구에게 주사했다. 박구의 체내에 들어간 생선의 유전자를 지닌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했고, 박구는 점점 더 생선의 모습이 되어갔던 것이다. 변 박사는 이 기술을 이용해 싼 값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충분히 담긴 음식물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이 기술로 기아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라며 연구를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를 인수한 대기업은 이 기술을 기아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 기술을 이용한 개발품은 비싼 값 탓에 부자들의 사치품이 되어버렸다. 변 박사는 기업의 회장을 찾아가 기술을 기아문제 해결에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의 회장이 그 부탁을 들어줄 리는 만무했다. 이에 절망하던 중 제 발로 실험에 참여하겠다고 되돌아온 박구를 인간취급도 하지 않는 연구원들을 목격한 변 박사는 자신의 잘못을 깊게 후회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험에 지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쉬며 누워있는 박구에게 변 박사는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했다. 사실은 박구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험을 위해 이를 숨겨왔다고 말이다. 잘못을 비는 변 박사에게 박구는 하나의 부탁을 했다. 그것은 바로, 계속 생선인 채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변 박사는 박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박구가 실험 중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곤 박구를 바다로 데려가, 바다로 들어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했다.

박구는 왜 바다로 갔을까? 이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박구, 자신뿐일 것이다. 다만

추측해보자면, 박구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대기업의 음모로 피해자였던 박구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나라의 발전까지 방해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소송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사람들은 박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주변사람들 중 진정한 자신의 편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박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기도 싫었다. 그래서 박구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생선인간인 모습 탓에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상원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밤, 박구는 처음으로 상원에게 부탁을 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카메라에 담아달라는 것이었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고백하듯이 박구가 한 말은 꿈에 대한 것이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박구는 욕조에 몸을 담근 채로 바다에 갔던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바다에 갔던 기억이 좋게 남아, 항상 바다에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바다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바라기만 할 뿐 가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속마음을 얘기하고 난 후, 이제 그만 욕실 밖으로 나오라는 상원의 말에 박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여기가 더 편해요.” 어쩌면 박구는 물속에서 현실에 치이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온통 자신을 압박하는 것들뿐인 현실에서 벗어나 그 편안함에 몸을 담그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자면, 동화 같은 결말을 원했던 감독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박구는 점점 더 생선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손이었는데, 나중에는 물갈퀴가 손가락 사이를 모두 메워 손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박구가 자살시도를 했을 때도, 그는 이미 코가 아닌 아가미로 호흡하고 있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박구가 계속해서 생선으로 변해갔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생선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자체가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인어공주에 나오는 인어를 상상하게도 하고, 인간이었다가 동물이나 사물이 된 전설이 떠오르기도 한다. 상원은 박구가 사라지고 몇 년 후 보라카이섬을 찍은 영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바다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다리가 달린 물고기의 형체였다. 지금도 바다 속 어딘가에 박구와 같은 돌연변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동화적 상상력을 관객들에게 남겨 준 것이다.

수미상관 기법

영화는 상원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해 상원의 내레이션으로 끝이 난다. “한 남자가 있었다. 홀연히 나타나 단숨에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던 남자. 돌연변이였다.” 영화의 도입부, 상원은 이 내레이션과 함께 지금은 사라져버린 박구를 떠올린다. 상원의 회상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회상이 끝난 후 상원은 박구에 대해 고민한다. 그때의 박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의 박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원은 박구를 취재할 당시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박구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변 박사를 찾아갔다. 실험 중 박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변 박사는 박구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었다는 말에 상원이 왜 자신에게 사실을 말해주었냐고 묻자 변 박사는 그게 박구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후에 상원이 찾아와 자신에 대해 묻거든 사실대로 모두 말해달라는 박구의 부탁이 있었다고 말이다. 상원이 박구가 왜 자신에게는 사실을 알려도 된다고 했을지 묻자, 변 박사는 과거에 박구가 했던 말을

전해주었다. “진실을 찾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기자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을 듣고 상원은 방송국으로 가 카메라 한 대를 들고 나오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원래 자신의 꿈이었던 진정한 기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회사 복도를 걸어 나가는 상원의 내레이션으로 영화 초반부 나왔던 말이 나온다. “한 남자가 있었다. 홀연히 나타나 단숨에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던 남자. 돌연변이였다.” 같은 말이지만, 영화의 초반부에서 들었을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영화 초반, 내레이션은 관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에 대해 다 알고 난 뒤의 관객은 내레이션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한 남자가 있‘었’다”에서는 고통뿐인 현실에서 벗어나 바다로 사라졌던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던”에서는 영화가 보여주었던 사회의 모습이자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안에 나타났던 부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돌연변이였다.”에서는 평범함이 꿈이었지만 타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되었고, 돌연변이로 불리었던 박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고,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주어 인상 깊었던 부분이다.

비현실로 드러낸 사실적인 현실

생선인간이라는 소재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하다. 하지만 이 생선인간을 통해 영화가 보여준 현실은 지극히 사실적이다. 청년실업, 가볍게 치부되는 성(性),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 국민들의 냄비근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 등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축소나 과장 없이 고스란히 보여준다. 영화 속 인물들은 그저 영화 속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돈을 벌기위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생동성 실험에 참여한 박구, 현실에 부딪쳐 결국 꿈을 포기하고 마는 주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상원은 우리 사회의 보통 젊은이들이다. 갑작스레 나타난 생선인간에 관심을 갖다가 여론몰이에 쉽게 휩쓸려 그를 비난하고, 그가 사라지자 곧 잊고 마는 대중들의 모습은 가십에 쉽게 휩쓸리는 대중들의 모습 그대로이다. 영화에 나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외면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하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많이들 공감했을 것이다. 영화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모습 또한 현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박구나 주진이 되었다가 쉽게 휩쓸리는 대중이 되었다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후회하는 변 박사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영화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렇게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다. 사람들의 욕심은 결국 생선인간과 같은 돌연변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돌연변이가 지금 영화를 보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도, 묵직한 울림.

20151106 김용섭

여는 글

어느 날인가 읽은 글에 있던 내용을 먼저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왜 역사물을 보는가?> 와 같은 주제의 글이었다. 줄거리의 내용을 모두 알고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역사물을 보는 이유는, 또 그 역사가 계속 영화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아이도 알 것 같은 이순신의 전투를 보러 극장에 가는 이유도, 어쩌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들을 우린 왜 보러 갔을까.

그 이유는, 모두가 아는 줄거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와 캐릭터, 그리고 연출을(또는 고증을) 보기 위한 것이다. 영화<사도>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아니 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엽기적인 사건인 '임오화변'을 다룬다. 엽기적 사건의 중심에 서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이야기를 정치적 요소를 가능한 배제한 채 말하므로 같은 소재를 다룬 전작들의 클리셰를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사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선왕조 최고의 비극을 가장 섬세하고도 섬뜩하게 묘사한다.

-내가 아는 그 집안 이야기-

가장 즐거운 얘기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도 있다. 영국인들의 가장 즐거운 드라마는 영국 왕실의 이야기라는 말도 있다. 조선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왕실의 이야기는 제 삼자가 보기에도 즐겁고 슬프지만, 그저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보고 즐길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영화는 영조와 사도세자, 영빈과 혜경궁, 그리고 세손(훗날 정조)의 시점으로 드라마를 재구성한다. 슬퍼하는 당사자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무거운 이야기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시점으로 재구성된 '사도'는 관객들에게 남의 집안일에 머물지 않는다. 집안이야기의 보편성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권하기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는 보편적 주제는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히 즐기는 남의 집안 이야기에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 <사도>의 무서움은 여기서 나온다. 어쩌면 내 이야기 일 수도 있는 남의 집 가정사 이야기. 관객들의 몰입은 여기서 시작한다.

-고증과 드라마틱-

'이것은 나랏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영화는 시작부터 집안일이라고 못 박는다.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라는 선언에 가깝다. 초반부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 장면과 연결되어 역사물이라는 장르의 고증이라는 요소에 너그러운 허용을 줄 수 있게 만든다. 영화에서 후반부의 사도세자와 영조의 담화는 고증의 책임문제를 다소 경감시키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역사적으로 사도세자를 죽이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

으며 개선가를 울리며 행차한 영조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극적인 구성을 설정함으로써, 영화는 이야기의 무게를 가진다.

그러나 이 장면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화로 처리되기보다는, 영조의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처리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증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개연성 있는 장면처리 또한 가능했을 것이다. 단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장면을 사용한 것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반면, 사실에 가까운 고증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여과 없이 보여준 예들도 많다. 인원왕후가 선희궁(영빈 이씨)에게 대든 숙의 문씨의 종아리를 치는 장면, 갈등이 고조되는 대리청정 사건의 호조문제, 병역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고증으로 영화화 되었다. 정조의 태몽을 꾼 세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부채로 만드는 것은 영화적 각색이다. 이렇듯 꼼꼼한 고증을 통해서 작품의 사실성을 높여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부분들이다.

-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
∴ 극 중 영조의 대사에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의 화살은 영조에게 몰린다. 영조의 편집증적이고 광적인 행동들이 사도세자가 받는 고통의 원인으로 묘사된다. 반면에 사도세자의 행동은 단지 억압받는 사람처럼 묘사된다. 역사적으로도 갈등의 원인은 영조에게 있지만, 사도세자의 도를 넘은 광적인 행동에 대한 각색으로 그저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두 사람의 사정을 들려주지만, 무게는 사도세자 쪽으로 쏠려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편향적으로 전개되며, 관객들은 갈등의 원인을 영조에게 돌린다. 앞서 정치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한 탓에 영조의 출생과 즉위의 배경 이야기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음에, 이런 편향적인 서술은 관객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조금 더 영조의 콤플렉스에 얽힌 과거 이야기, 사도세자의 광기로 저지른 사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도세자의 광적인 측면이 연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관을 죽이며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등은 사도세자의 광적인 측면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승려를 불러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대비를 추모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숭유억불의 나라에서 불경이라니. 이는 임금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화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이유 있는 행동이다. 세자의 광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자의 행동 원인을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영조의 행동을 영화 속에서 원인을 찾기에는 그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출생? 즉위과정? 이 모든 이야기가 잠깐 흘러가듯 너무나 간략하게 나온다. 각자의 이야기라는 구조에 맞추기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비교적 세자가 영조의 눈에서 멀어지게 된 이야기는 개연성을 가지고 잘 표현됐다. 어려서 영민하여 주상의 사랑을 받던 세자부터, 공부 멀리하고 그림 그리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세자, 대리청정. 대리청정에 이르러서는 갈등이 극에 달한다. *'아들이 잘해야 아비가 산다.'* 로 시작한 대리청정은 서로 분노만 남긴다.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는 영조의 말은 그의 기준에서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이다. 결국, 삼백년 종사의 명맥이 오직 세손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며 영조는 세자에게서 관심의 눈을 거둔다.

-영조와 금기 이야기-

영화에서는 금기 모티프가 사용된다. 세자빈으로 궁에 들어온 혜경궁은 왕실의 어른들에게 주상의 특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쓰지 않는 글자서부터, 드나드는 문, 부정한 말을 들었을 때 취하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화면 속에서 영조(송강호 역)의 배우가 가진 이미지를 통해 다소 해학적으로 보일법하게도 연출된다.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완시킨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이야말로 실로 비극적인 장면이다. 금기는 결국 깨진다. 이 장면에서 영조가 보여주는 조금은 우스운 장면들은 뒤에서 (혹은 앞에서) 섬뜩하게 재연된다.

영화의 초반부에 영조가 세자를 벌하러 나설 때 어느 문으로 나갈지를 묻는다. 또한, 혜경궁은 내관에게 주상이 어느 문으로 나갔는지를 묻는다. 영조가 좋은 일을 할 때와 아닐 때 출입하는 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먼저 보여준 후 후에 설명한다. 뒤의 장면들은 설명을 토대로 장면을 보여준다. 특히, 대비의 상중 귀 씻을 물을 세자에게 끼얹는 장면은 물을 가져오라 시킬 때부터 관객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고, 물을 끼얹는 장면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한다. 이러한 금기들과 금기가 깨지는 장면들은 사랑과 미움, 특히 미워하는 것이 확실한 영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며, 영화 전반적으로 복선을 설치하는 기능을 한다.

-슬픈 여인들-

영화 '사도'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온다. 대비 인원왕후와 중전, 세자의 친모 영빈, 세자빈 혜경궁, 화완옹주 등. 영화에 여인들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면은 심심찮게 나온다.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의 분위기는 즐겁기도, 엄숙하기도 하다. 이들 대화의 분위기는 극 중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가령, 세자의 재롱에 즐거워하는 분위기는 영화 초반부의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는 데 일조한다. 또한, 대비가 문소원을 훈육하는 모습은 후반부 영조와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계기와 무거운 분위기 모두를 제공한다. 각각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은 영화의 비극성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

대왕대비는 고집불통인 영조와의 갈등으로부터 세자를 지키려고 하나, 세자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자신이 죽는 대신 세자를 구해낸다. 세자의 목숨을 구해내지만, 영조와 세자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혜경궁의 입장 또한 난처하다. 그녀는 지아비인 세자와 가문의 보전 그리고 세손까지, 지켜야 할게, 가장 많은 사람이다. 혜경궁의 담담한 듯, 말을 아끼는 듯한 대사 처리는 어떻게 보면, 지킬게 많은 사람을 잘 표현했다.

그러나 가장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했을 이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이다. 세자가 어려서는 '세자는 중전의 아이다' 하여 떨어져 키웠으며, 나이가 들면서는 영조와의 갈등에 가슴 졸였다. 종국에는 자식이 미쳐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뿐인가, 나이 들고 나서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중전을 모시며 아들과 남편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갔다. 세자가 자신의 회갑연을 차려주며 4배를 올리며 눈물 흘렸을 때, 그녀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결국, 칼을 들고 궁에 들어온 세자의 행동을 영조에게 고해 세자는 죽

는다. 그러나 그 누가 영빈을 탓할 수 있으랴, 지아비와 아들 모두를 살리려 했던 행동이 아들을 죽게 하라고는 영빈 자신도 헤아릴 수 없었다.
사실 가족 얘기라는 것이 그렇다. 두 사람이 싸운다고 두 사람의 분위기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가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왕가에서는 얼마나 더 살벌한 분위기가 나올까. 영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가지는 고뇌와 슬픔은 '가족이 같이 안고 가는 슬픔'을 잘 드러내는 한 요소이다. 이들이 간직한 슬픔은 작품의 분위기 형성과 긴장감 고조를 이룬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
∴작중 사도세자의 대사에서

작중 사도세자는 유년시절만이 영조에게 사랑받는 시간이다. 유년의 총기를 영조가 어여삐 여겨 사랑을 쏟았으나, 그 사랑은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탓으로 어머니의 사랑조차 충분히 받지 못한다. 혼례를 이루고도 잠시뿐, 세자빈 혜경궁은 세손과 가문을 지키려 한다. 세자는 누구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영조는 왕가의 법도를 말하며 세자가 마음에 차지 않자 사랑이 아닌 분노를 쏟는다. 단지 생모 영빈 이 씨만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아들을 사랑한다. 세자는 평생 사랑에 목말라 한다. 그런 그가 아들은 사랑한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부부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아가...부부란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예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 이니라

결국 그는 칼을 들고 궁에 들어선다. 자신이 사랑을 갈구하던 대상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영화의 절정이다. 영화의 도입부와 절정 부분에 두 번 나오는 장면이다. 도입 부분에서 그는 칼을 들고 서 있다. 그러나 절정 부분에서의 세자는 칼을 내려놓는다.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다. 아비와 세손을 질책하는 영조의 질문에 아비의 진심을 보았다고 하는 아들이 영조를 살린 것이다.

– 느슨한 결말? –

영화의 결말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결말이 어떠하게 끝나는지가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생각과 울림을 담당하는 것이 영화의 엔딩이다. 영화 <사도>의 엔딩은 전반부의 강렬한 사건들의 묘사에 비해서 후반부는 고요하게 마무리된다.
영화는 사도세자의 장례식 장면이 나온 후, 노쇠한 영조와 장성한 세손이 나오면서 엔딩페이지에 들어선다. 후반부의 중심은 사도세자의 부채로 부채춤을 추는 정조의 모습이다.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면이라고 하는 결말 부분이 너무 질질 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감동적이며 좋았다고 말한다. 이에 감독의 인터뷰를 옮긴다.

이 감독은 "소지섭(정조)의 춤 사위는 그냥 춤이 아니다. 바디랭귀지다. 첫 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활시위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부채가 뭐냐, 사도세자가 정조 낳고 그린 그림이다. 그걸

홍봉한(박원상 분)이 뒤주에 넣는데, 그 의미가 '정조 생각해서 거기서 죽으라'라는 이야기다. 그걸 보고 사도세자가 죽는 거다. 그러니 정조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없을 수 있나"고 말했다.'

결말은 지금껏 숨 막히게 달려온 이야기를 진정시킨다. 개인차에 따라 결말이 다소 지루하고 오래 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말 부분에 담긴 이야기는 생각해 볼만하다. 활을 쏘는 모습에서 아버지가 말한 떳떳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고 있는 부채는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다. 정조를 낳았을 때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진 부채이다. 그런 부채로 활을 쏜다. 이제는 그가 허공을 나는 화살처럼 떳떳함을 아버지에게 고한다.

-다만, 아쉬운 것들-

역사적으로 정순왕후가 분명 중요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작중 시기의 정순왕후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작품 내 비중도 크지는 않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정순왕후가 작품 속에서 캐릭터로 수행하는 역할은, 세자의 친모인 영빈이 모실 나이 어린 중전, 문안을 가지 않는 세자와 영조의 갈등 매개의 역할을 가진다. 그러나 정순왕후라는 캐릭터에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지혜로운 중전이 영조의 사랑을 받는 부분에서는 영빈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세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주상이 무섭다고 말하는 부분은 작품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 긴장감에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두 사람의 첨예한 갈등에 집중하는 구도에서 찬물을 끼얹듯 다른 생각할 것을 던져주는 듯하다.
혜경궁을 연기한 배우(문근영 역)의 연기가 어색했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다. 연기 자체의 어색함도 조금 있으며 결정적으로 목소리 톤의 부조화였다고 생각한다. 배역의 각본 자체는 좋았지만, 날카롭게 가르는 혜경궁의 목소리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후반부, 나이를 먹은 혜경궁의 모습이 젊었을 때의 배우와 같은 배우로 연출되는 것 또한 영화의 몰입을 방해한다. 감정선의 연장이 중요한 영화인 <사도>에서 이런 문제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맺는 글

영화 <사도>는 가장 흔하던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방식과 전달에 있어서는 전혀 흔하지 않다. 짜임새 있는 스토리 속에 고증을 잘 녹여냈다. 정치적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한 체, 서로의 사정을 말한다. 왕제를 만들어야 했던 영조와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자 했던 세자의 관계를 필름에 담아냈다. 각자 지켜야 할 것이 달랐던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과 궁중이라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심리적으로 묘사한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요인들에 집중한다. 뒤주는 단지 스토리 전달의 매개체일 뿐이다. 그는 뒤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서히 죽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긴 상영시간동안 하지 않는다. 수준 높은 완급조절로 영화의 분위기는 죽음을 다뤘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밝을 때도 있고,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영민하고 귀엽게 나오는 아역들의 연기에 미소를 지으며 쉼 없이 달려온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도 한다.

<사도>는 영화를 볼 때보다 보고 난 후의 울림이 더 큰 영화이다. 영화가 가지는 무거운 에너지는 상영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욱 퍼져나간다. 어느새 그가 뒤주에서 죽은 이야기는 남 얘기 같지 않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뀐다. 묵직한 울림은 영화가 끝나도 메아리처럼 남는다.

기억을 깨우다, 연평해전

20151107 김유나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 진출의 열기에 취해있었다. 때문에 평소라면 큰 화제가 되었을 일이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묻히게 되었다. 2002년의 연평해전은 그야말로 잊힌 사건 중 하나였다. 이런 면에서 연평해전이 영화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잊혔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은 연평해전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화여서일까? '연평해전'은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초로 관객 수 600만을 넘겼다. 파급력 역시 엄청났다. 13년 만에 연평해전 여섯 영웅들의 합동 묘역이 생겼고, 한 대학에서는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큰 화제성과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연평해전' 자체에는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 따라다닌다. 좋은 취지와 실화바탕이라는 옷을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해전'이 실화바탕의 영화여서 보러왔다는 관객이 전체의 43%였다는 한 조사결과도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영화 '연평해전'자체를 심도 깊게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연평해전'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영화 '연평해전'이 가지는 의의와 주제

1.1 수많은 애국영화들의 흥행, 그 속의 '연평해전'

예전부터 애국영화들은 대체로 그 흥행이 보장되어 왔다. 최근에는 애국적인 내용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제시장', '변호인', '암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영화는 특히나 흥행성과 화제성이 보장되었던 장르이다. 대표적으로는 '태극기 휘날리며'부터 '고지전' 등이 있고 작년에 개봉했던 '명량'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평해전이 흥행의 가도를 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애국영화(전쟁영화)에는 어쩔 수 없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연평해전' 역시 이러한 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듯 보인다.

우선 장점부터 말하자면, 애국영화(전쟁영화)는 성찰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자기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고,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관객들은 비극적인 전투장면을 보면서 '왜 저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점차 깊어지면서 자기성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라는 결속력을 만들어준다. 즉, 애국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연평해전'은 이런 경향이 특히나 강하다. 연평해전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인 만큼, 대부분의 관객들은 무관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단점은 역시 영화 자체의 예술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애국심을 자극

하는 것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기에, 애국영화들은 대체로 평가절하를 받는다. 또한 비교적 최근까지도 억압받으며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의무처럼 느끼기 마련이다. 애국심을 제외하고서 봐도 재미있는 영화라면 괜찮다. 하지만 '연평해전'의 경우, 초중반의 스토리가 너무 빈약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상영 내내 -애국심으로 보는 영화-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즉 재미는 없는데 흥행한, 의무감으로 본 영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리하자면, '연평해전'은 다른 전쟁영화들처럼 애국심을 자극해 자기성찰을 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때문에 몰입도 및 공감도 또한 매우 좋다. 특히 '연평해전'의 경우 참수리 357호의 모든 인물들의 개인사를 자세히 다뤘다. 그들이 단순한 해병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관객들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몰입하게 되었다. 즉, 영화 자체의 스토리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연평해전'은 초중반의 이야기가 빈약해 전체적으로 지루한 느낌을 만들어 냈다. 몰입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데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것이다. 그것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가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평해전'이 드러내고자 한 주제들.

연평해전이 기억되길 바란다는 주된 주제 외에도 '연평해전' 속에는 여러 소주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 첫 번째는 뉴스장면을 통해 드러난 사회비판적 태도이다. 영화 속에서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문제 상황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 한다.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 만큼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 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그 어떠한 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또,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선공하지 말라는 명령만 반복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평해전'에서는 참수리 357호가 바다 한 가운데 홀로 포격을 받는 모습을 비춘다. 이 비극을 알리는 뉴스기사 역시 아주 작게 표시될 뿐이다. 수수방관하고 일을 묻어버리기에 바쁜 정부를, 아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반성적인 태도이다. 앞서 말했듯이 '연평해전'은 자기성찰을 강조한 영화이다. 더불어 사회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영화이기도 하다. '연평해전'이 향하는 비판의 화살은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돌아온다. 영화 속에서는 일반 사람들과 참수리 357호의 해병들의 모습이 중간 중간 교차되어 나온다. 즐거워하는 모습과 힘겨운 전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대비하면서, 해병들의 전투를 더욱 비극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는 물론 그 당시에 응원을 했던 사람들이 관객이 되어 영화를 봤을 때 더욱 숙연한 분위기가 되게끔 만든다. 비록 작은 글씨였지만, 뉴스를 보고도 무심히 지나쳐버렸을 개개인들의 무관심과 망각을 비판하고, 자기반성의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포용·화합적인 태도이다. '연평해전'은 반공영화가 아니라는 김학순 감독의 말답게, 영화 속에서는 북한군들도 제법 세밀하게 다뤄진다. 치열한 교전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것은 우리나라 해군뿐만이 아니었다. 쳐들어온 북한군 역시 포에 맞고, 총알에 맞아 죽는 모습이 가끔 화면에 비췄다. 그러나 그 모습은 통쾌하다기 보다는 마찬가지로 윗사람들의 명령에 죽음을 맞이하는, 한 인생들로 보인다. 카메라가 우리나라 해군들의 피해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함께 침몰해가는 두 배를 모두 비춘 것은 감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싸우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연평해전’은 짧은 화면 전환 속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숨겨놓았다. 이는 영화 ‘연평해전’이 관객들에게 던지는 수많은 메시지이자 장치이다. 여러 가지 주제들과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관객들은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하나의 울림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런 점이 ‘연평해전’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한다.

1.3 그러나.. 주제표현의 한계

그러나 너무 많은 주제를 숨겨놓은 것은 ‘연평해전’이 가진 약점이기도 하다. 전쟁영화의 경우, 전쟁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협찬이 필요한데,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요소가 어쩔 수 없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연평해전’의 경우 해군과 같은 정부기관의 협찬과 모금을 통해 그런 면을 최소화하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기관의 협찬을 받으면서 사회비판적인 요소 같은 가시들은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반공영화가 아니라는 의도가 조금 역설적인 부분들도 있다. 초반 기습을 위한 작전을 짤 때나, 미리 염탐을 왔을 때 북한군들은 마치 악당처럼 비춰진다. ‘우리가 쳐들어가도 걔네는 아무것도 못해’ 와 같은 대사들은 그들을 비열하게 보이게 한다. 막상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야 카메라의 이동이나 연출이 바뀌는 것이다. 관객들을 ‘우리’로 묶기 위해서는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를 만들어야 하지만 반공영화처럼은 보이기 싫다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반된 태도는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숨겨놓는 요소들이 많으니,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관객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철학적이고 심오한 영화가 아닌 이상 관객들은 사소한 것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 전쟁영화 특유의 긴박감을 즐기려 했던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필요 없어 보이는 장면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답을 내려놓고 던져놓는 주제가 많아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기보다는 교훈 쪽에 가깝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바란다는 연출 의도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2. 연평해전 속 연출과 각색, 표현

2.1 실화바탕의 연평해전

‘연평해전’은 실화라는 소재의 덕을 톡톡히 본 영화이다. 실화바탕이라는 말은 일반 영화보다 영화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연평해전’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잘 살렸다. ‘연평해전’ 에서는 영화가 시작할 때 휴전 협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이 설명 덕분에 관객들은 왜 연평해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좀 더 확실하게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과거로부터 어떤 현재를 맞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역할도 한다.

‘연평해전’의 항해 장면에서는 중간에 실제 영상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실제 영상인지, 영화로 찍어낸 영상인지 헷갈릴 만큼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진다. 실제 영상과 별다를 것 없는 화면 구도와 연출은 ‘연평해전’이 정말 실화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준다. 영화를 관람할 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을 찍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즉, 실제영상을 집어넣음으로써 영화의 생생함을 살리고 생동감을 준 것이다.

실제 참수리 357호의 항해 장면 말고도, 또 하나의 실제 영상이 있다. 바로 영결식 부분이다. '연평해전'의 제작진들은 영결식 장면을 새로 찍기보다 실제 영상을 가져와 사용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지만, 실제 영상 속의 분위기는 분명 도저히 흉내 내기 힘든 힘이 있다. 또한 실제 영결식 영상은 앞선 해전으로 절정에 치달아 있던 긴박감이 풀리면서, 더욱 고요하고 서글픈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더불어 이것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역할도 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영상을 활용한 것은 '연평해전'의 제작·편집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인 것 같다.

영화가 다 끝날 때쯤에는 당시 참전했던 사람들과 유가족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온다. 영결식 장면을 보며 숙연해져있던 분위기는 여기에서 슬픔의 절정을 찍었다. 故윤영하 소령이 죽기 며칠 전 인터뷰했던 영상과 연평해전 사건 이후 유가족들의 행방 역시 뒤이어 흘러나온다. 비록 영화에선 다루지 못했지만, 영화 속에서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 둘 흘러나오면서 마지막엔 긴 여운을 남겼다.

이렇듯 '연평해전'은 실화라는 소재를 아주 잘 사용한 영화이다. 실제 영상을 중간과 끝부분에 삽입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신뢰감을 준 것이다. 더불어 더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는 영화의 극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연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 때 제작진이 정말로 연평해전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알리려 했다는 진실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평해전'이 너무 실화라는 소재에만 집중한 탓에 약간의 과욕을 부린 것도 사실이다. 실제영상이 그 효과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비중이 약간 과해서, 영화라기 보단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사람에 너무 중점을 둔 나머지 연평해전이라는 사건을 알리기보다는 휴머니즘에 맞춘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다. 물론 그 안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감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금만 더 연평해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2.2 '연평해전' 속 인물표현

앞서 말했듯이 '연평해전'은 사건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그만큼 인물표현 또한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인물들의 캐릭터는 실제에서 따온 부분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각색된 부분도 있다. 개중에는 재미와 감동을 위한 좋은 설정도 있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분명 존재한다. '연평해전' 속 좋게 설정된 캐릭터는 누가 있는지, 의아함이 들게 하는 캐릭터는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박동혁 병장 어머니의 경우, 실제로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는 농아로 나온다. 한(恨)이 너무 많아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것으로 각색한 것이다. 비록 관객들이 그러한 생각까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농아라는 설정은 극의 흐름과 연계성을 높여주고(수북한 편지지등 유독 더 끈끈한 모습)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들의 죽음에 제대로 된 울음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모습 역시 확실히 더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었다.

故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역과는 다르게, 이병장이라는 캐릭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캐릭터이다. 이병장은 극 중 유일한(북한군 제외) 악역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리

얼리티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인물이라고 한다. 군 생활에서 한 명쯤 있을 법한 선임을 구현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얼리티와는 별개로 그는 전체적인 극의 흐름을 깬다. 정말로 감동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참수리 357호의 모든 선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내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끈끈한 그들 사이로 뜬금없는 이병장의 시비는 큰 위화감을 만들어 낸다. 리얼리티와 감동을 모두 잡고 싶었다면, 이병장의 행동에 그럴만한 사연을 만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참수리 357호의 모든 해병들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모두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연출을 통해 이것을 잘 표현해냈다. 예를 들어 올곧은 신념을 가진 윤영하 대위의 경우, 첫 등장에서 역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때문에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약간의 거리감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은 환하게 드러난다. 처음에는 깐깐하고 고지식한 인물처럼 나오지만 나중에는 나름 정이 있고 책임감 있는 그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연출이다.

극의 초중반은 모두 그들의 개인사를 조심스럽고도 자세하게 풀어내는 데 쓰였다. 영화 속에서 박동혁 상병이 처음 배 안을 구경할 때, 보드판에는 여러 사진들이 꽂혀있다. 이 장면은 '연평해전'이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전하는데 집중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저 순국한 군인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후, 관객들은 교전이 벌어졌을 때 슬픔을 배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연평해전'의 섬세함은 그 정도를 지나친 감이 없잖아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다 보니 서두가 길게 끌리는 느낌이 강하다. 게다가 주연들을 제외하곤 누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일부 캐릭터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풀어 놓은 것에 비해 뒷수습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조천형 중사의 경우 아기 돌잔치도 하고 제법 비중 있게 나오지만 교전 때 너무 빨리,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다. 이병장의 경우는 더하다. 그는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이 전부이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변화는 있었는지 등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기승전 만이 존재하고 결이 없는 것이다. 해전에서는 철저하게 박동혁 상병, 윤영하 대위, 한상국 하사 중심으로만 흘러간다. 이럴 거면 초반에 다른 캐릭터들은 왜 부각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2.3 해전 묘사

'연평해전'은 전체적으로 해군의 멋있는 모습에도 많은 초점을 맞춘 듯이 보인다. 출항하는 장면이라든지, 경례하는 장면 등은 ost 속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어우러져 근사하게 연출되었다. 그 외에도 매일 같이 훈련하고 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해병의 성실한 면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는 격전이 벌어졌을 때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에 더 허무감을 느끼게 해준다. 정부의 철저한 외면만 아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다.

'연평해전'에서 내용상의 핵심은 역시 바다 위에서의 전투다. 배 안이라는 좁은 공간은 피할 수 없는, 다시 말해 갇힌 공간이기 때문에 긴박감이 더 하다. 하지만 자칫하면 답답함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출에 있어 특히나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평해전'은 이런 답답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모습이 보인다. 중간 중간 줌 아웃을 시켜 전체적인 배의 상황을 보이거나, 다른 배에서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정해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인물들이 주인공이었다면 비슷한 장면이 연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

평해전’에서는 선장도 아닌 의무병을 주인공으로 정해 안과 밖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해전 장면에서는 ost부터 시작해서 효과음과 폭발음 등이 대체로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포격이 일어나기 전, 두 배가 부딪힐 듯이 스쳐지나갈 때 흘러나오는 웅장하고 긴박한 ost는 정말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거기에 이명 현상까지 더해져 실제 상황 같은 느낌을 잘 살려주었다. 정신없이, 그리고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소리의 적절한 배열은 안정감을 주었다.

이처럼 ‘연평해전’은 해군의 위상을 살리고, 해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는 영화 자체가 해군의 지원을 받은 영향도 있다. 대중에게 보이는 것이니만큼 위상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물론 연평해전과 그 속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영화라는 취지 때문도 있다. 실제 인물들을 다루는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자체검열과 국가심사의 영향이 미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전영화가 갖는 단점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박동혁 의무병을 중점으로 움직인 대신, 화면은 훨씬 어지러워졌다. 총알을 피해 움직이는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찍느라, 화면은 급한 움직임을 보인다. 해전보다는 치료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좁은 공간이라는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아무래도 비슷한 구도, 비슷한 공간이 반복되다 보니 상황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연평해전’의 해전 연출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글을 마치며.. ‘연평해전’은 그 제작 목적이 분명하고, 그 취지 또한 화면 속에 잘 녹아든 영화이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과욕을 부린 감이 없잖아 있다. 거기에 감동적인 휴머니즘을 결합하려다 보니, 정작 연평해전이라는 사건 자체는 많이 드러나지 못한 것 같다. 덕분에 등장인물들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서두만 너무 길어졌다. 영화 자체가 지루해진 것이다. 전쟁 자체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좋다. 연평해전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왜 잊혔는지, 사건 자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것 같다.

의도는 좋지만 정작 그 자체가 빛나지 못한 영화. 나는 ‘연평해전’이 좋은 소재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흥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연평해전을 기억하길 바란다면 흥행 요소에도 분명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다. 실화라는 것과 애국이라는 것에 의존해 많은 것을 놓쳐버린 것 같다.

그러나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의 등장은 분명 의미 있다. 요즘은 화려하기만 한 할리우드 영화나, 재미를 위한 영화가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에서 관객들이 나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는 흔치않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일깨워준 영화라는 측면에서 나는 ‘연평해전’이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한공주

20151108 김은비

『한공주』는 2014년도 영화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는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인공 '한공주' 역할을 맡은 배우 천우희의 연기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었다. '한공주'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부산국제영화제 CGV무비꼴라주상, 시민평론가상, 마케시 국제영화제 경쟁부분 금별상, 도빌 아시아영화제 관객상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주제를 제외한, 영화의 다른 이야기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영화는 단순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단순히 이 영화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만 단정 지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 이유로 다시금『한공주』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하고자 이 작품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화제가 많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영화의 관객 수는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독립영화라는 점을 반영한다면 놀라운 성과이다. 하지만 화젯거리는 되었지만 이 영화를 제대로 본 관객은 몇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한공주』라는 작품을 모르는 관객들에게 영화를 알리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한공주』에 대해 좋은 평가만을 하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려고 한다.

『한공주』에 대해 이야기 전에 우선 줄거리에 대해 조금 말하고 시작하려고 한다. 공주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둘이 산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공주에게는 화옥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자신의 집에서 4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그 가해자들은 모두 공주의 친구인 화옥의 남자친구를 괴롭히는 청소년들이였다. 그 충격으로 화옥이는 자살을 한다. 그리고 공주역시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라는 말을 남기고 강제 전학을 가게 된다. 전학을 가서 공주는 선생님의 어머니인 일명 '선생님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된다. 그리고 수영을 다니다가 전학을 간 학교의 친구를 새로 사겨 그 친구가 있는 음악동아리에 들게 된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던 공주는 동아리 안에서 자신의 끼를 펼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그렇게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가던 어느 날 친구들은 공주가 노래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비극에 시작이었다. 그 영상을 본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와 공주에게 탄원서를 쓰라며 협박을 한 것이다. 그 후 공주는 선생님할머니 집에서 나와 갈 곳을 잃어 화옥과 같이 죽음을 선택한다.

『한공주』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구성, 연출, 사회성으로 나누었다. 우선, 구성을 이야기 하자면 영화에서 불필요한 장면과 약간에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로 연출은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연출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성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한공주』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보자.

구성

『한공주』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후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영화이다. 그런데 한공주의 생활을 보여 주어야 할 영화에서 조금은 불필요해 보이는 장면이 있다. 바로 공주가 머물고 있는 '선생님할머니'와 할머니의 남자친구인 경찰서장님의 정사신이다. 물론 이 장면은 공주가 머무는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장면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서장님, 선생님, 할머니와의 식사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공주의 모습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할머니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일하는 모습, 할머니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못해 집밖에서 서성이는 장면들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굳이 나와야 했나 하는 것이다. 이 장면은 공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보다는 단순히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유해성, 폭력성, 선정성, 약품모방위험의 이유로 청소년 불가판정을 받았다.

필자는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가 아닌 청소년에게 권장해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실제 사건에도 가해자가 청소년이었고 요즘 청소년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영화를 통해서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장면 같이 불필요한 장면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영화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은 공주에게 탄원서를 쓰라고 가해자 부모들이 달려오는 부분이다. 이 장면은 영화가 반전되는 가장 큰 장면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물론, 모든 가해자의 부모들이 한 번에 공주를 찾아 올 수 있다. 그렇지만 갑자기 한 순간에 한 장소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은 영화 내내 지극히 현실적인 요소만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하여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마치 갑자기 일명 '막장드라마'라고 일컬어지는 전개가 급박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빚쟁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가해자부모들에게 공주가 점점 시달리는 것처럼 만들면 어떨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가해자부모들 때문에 공주가 고통을 받으며 변화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가해자 부모들의 수를 조금 줄여서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의 죽음이 나오는 장면에서 공주가 죽기 직전 장면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주의 트렁크가 홀로 있는 장면에서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주가 죽기 직전 어떤 생각과 표정을 하고 있었을 지 보여주었다면 조금 더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공주는 처음부터 죽고 싶어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혹시 죽고 싶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후회가 될까봐 수영을 배운 아이였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정을 취할 곳도, 당장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죽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싶었던 이중적인 마음이 담긴 죽기 전에 상황을 보여주었으면 공주의 상황이 더 잘 드러났을 것이다.

지금까지 구성에서 아쉬웠던 부분만을 말했다. 그러나『한공주』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해자들이 고릴라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이었다. 고릴라 탈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하다. 고릴라탈로 인하여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책감

을 없애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탈을 만들어서 죄책감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고릴라 탈을 쓴 가해자들이 고릴라처럼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진 고릴라 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도 생각할 만한 숙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주가 수영을 배우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위에 언급했듯이 공주가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후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함이었다. 이 말은 공주는 스스로가 자신이 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주가 수영을 배우는 것은 영화에서 공주의 생각과 상황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공주는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데 현실은 공주가 살기 힘든 상황을 계속 만들고 공주를 조여 온다. 이 말은 즉, 공주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공주에게 죽음을 내몰은 것은 공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주가 수영을 배우는 것은 공주가 죽음이라는 선택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공주』의 구성은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줄 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위에 언급했듯이 단순히 수영배우는 것이 공주는 삶을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였고 그 지푸라기를 잡기 전 현실이 공주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은 독특한 발상에서 나온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구성방식이 이 영화의 크나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출

연출부분에서 제일 먼저 말할 것은 단연코 배우들의 연기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인공 한공주 역할을 연기한 천우희는 이 작품으로 인해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등 수많은 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극 중 공주는 집단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학생의 순수함은 잃지 않은 아이이다. 천우희는 이런 공주를 잘 표현했다. 예를 들면 공주가 성폭행을 당하는 부분과 나중에 가해자부모에게 쫓겨 두려워하는 부분 등 두려움에 떤 공주를 연기할 때는 실제 공주가 된 듯했다. 반면에 공주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밝고 명랑한 소녀로 돌아간 듯 했다. 그리고 표정이나 대사 말고도 옷이나 머리, 걸음까지도 실제 여학생처럼 소화해 낸 것은 천우희가 공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도왔다.

관객들이 배우의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천우희의 연기가 우수해서 그런 뿐만이 아니다. 영화 속의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탁월했다. '선생님할머니'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영란은 억척스러우면서도 그 안에 공주를 향한 다정함과 관심을 잘 표현했다. 그리고 '은희'를 연기한 정인선 역시 공주를 변화시키며 공주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잘 나타냈다.

이렇듯 모든 배우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고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했다는 것이 이 영화의 큰 장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캐스팅도 훌륭했다고 볼 수 있다.

『한공주』는『한공주』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말하면 단조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울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분위기가 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분위기는 공주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공주의 마음이

어두우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고 공주의 마음이 밝으면 분위기 또한 변화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어떤 효과를 사용하였고 분위기가 변화할 때는 어떻게 연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방법은 소품과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한공주』는 독립영화이다. 실제로『한공주』의 제작비는 3억 원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 장소나 소품 등이 모두 열약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 진다. 그러나 그것이『한공주』만의 매력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을 법한 공간과 사물이 영화의 현실성을 높인다. 그래서 소품과 장소가 주는 현실성이『한공주』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만약『한공주』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큰 세트장과 값비싼 소품 등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긋났을 것이다. 그리고 화려함에 배우들의 연기는 가려지고 따라서 관객의 몰입을 방해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배경음악을 말할 수 있다. 영화에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영화보다 삽입곡이 더 유명한 영화도 있을 정도로 흥행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한공주』에서는 특별한 배경음악이 있지 않다. 감정이 고조되거나 영화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조차 배경음악은 잔잔한 음악이거나 삽입되지 않았다. 배경음악이 있음으로 하여금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악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공주의 감정과 아픔이 느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던 영화의 잔잔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도 공조했다.

영화 속에서 어두운 음악만 쓰인 것은 아니었다. 밝은 노래를 들자면 공주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장면에서 공주가 부른 노래와 친구들과 아카펠라를 하는 노래이다. 이 두 노래는 공주의 내면에 밝은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치유되어가는 공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카펠라 노래는 오히려 어두운 공주의 현실과 대비시켜 사용되어 영화가 더욱 더 비극적으로 보이는 것을 도왔다.

세 번째 요소는 조명이다.『한공주』는 어두운 사회 현실, 피해자의 상황을 이야기 한 영화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배경이 시간적 배경은 저녁 시간대이고 공간적 배경은 어두운 장소, 인적이 드문 곳이다. 예를 들면 엄마를 찾으러 갈 때에도 공주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엄마를 만나고 공주가 자주 가는 수영장도 보통 수영장들과 다르게 밝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러 조명을 비추어 밝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공주의 상황과 비슷하고 또 어두운 영화속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이 점점 밝아질 때에는 화면 또한 밝았다. 햇빛이 비쳐오는 운동장이나 교실처럼 말이다. 그 이유는 위에 배경음악을 밝은 음악으로 설정한 것과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밝은 조명과 분위기로 인해 공주의 밝은 상황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다.

사회적 현실 반영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듯『한공주』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한 사건의 피해자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한 이야기 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담았다는 점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서술하는 형식이 아닌 관객들로 하여금 공주가 왜 저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는지 공감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먼저, 어느 부분에서『한공주』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였고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영화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야 하는 현실이다. 영화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라는 대사로 시작한다. 피해자 공주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상황을 떠나야 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아니라 공주이다.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이미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공주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더더욱 쉽지 않다. 실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공주가 학교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집에서도 쫓기듯 짐을 싸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 쫓겨 다니는 피해자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힘든 공주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주는 피해자이지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배려조차 받지 못한다. 가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심지어 정신적 불안한 상태인 공주에게 어서 진술을 하라고 하는 경찰들의 다그침만을 받을 뿐이다. 공주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은 경찰서에서 뿐만이 아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은 공주가 성폭행피해학생임이 밝혀지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공주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렇듯 공주는 피해자이지만 문제아취급을 받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두 장면에서도 어두운 현실은 반영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취급을 받는 공주는 단순히 공주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성관련 범죄 피해자들이 몇 번씩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들과 한 공간에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장면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표현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장면에서는 공주가 피해자이지만 마치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말한 것이다. 성폭행이 일어난 이유가 마치 공주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도 문제아 취급을 하고 좋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러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세 번째로 성폭행 피해자이자 게다가 청소년인 공주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혼한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아버지는 딸의 탄원서를 판 돈을 가지고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피해 후 보호를 해주거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선생님 또한 형식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공주가 너무 무섭다고 도움을 외칠 때에는 외면하고 만다. 이렇게 공주가 도움 받을 사람이 없도록 연출한 것은 주변에 사회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 그 들 중에서도 청소년의 같은 경우 크나큰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 그들에게는 정신적 치료와 신체적 치료를 비롯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여러 가지 상처로 더욱 더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공주’는 단순히 슬픔과 주인공의 아픔만을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공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영화다. ‘한공주’는 영화에서 실제 현실을 공주의 상황에 대입하여 잘 나타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눈을 돌

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금까지『한공주』에 대하여 구성, 연출,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 언급했다.『한공주』는 구성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아쉬운 부분을 덮을 만큼 다른 구성요소들이 매우 좋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할 만한 소재들로 영화의 질을 높였다.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라고 이 영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출은 크게 배우들의 연기와『한공주』가 가진 분위기 두 가지로 이야기 하였다. 특히 천우희의 연기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한공주』가 가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들이 모여 어둡고 우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밝은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사회적 현실 반영 부분에서는『한공주』가 관객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지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글을 마치며『한공주』를 한 사물에 비유해 보자면,『한공주』는 '반딧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한공주』는 성폭행 피해자의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 하는 영화이다. 이 영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갖게 해 주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두운 현실을 비추는 반딧불이다. 물론 손전등을 비추거나 형광등같이 더 환하게 비추면 좋겠지만, 반딧불이 만한 빛이라도 주위의 관심을 일으키기엔 충분하다. 따라서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사회의 관심을 일으키는 반딧불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용서에 대한 서툰 정의

-영화 '오늘'-

20151109 김의영

용서의 정의에 대하여

용서_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용서의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용서를 하는 방식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 오늘 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용서를 깊게 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화 '오늘'(2011)은 용서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용서를 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은 서툰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신하는 용서

영화는 죽은 약혼자의 피의자를 용서해 준 주인공 다혜(송혜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다혜는 1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약혼자를 잃는다. 피의자는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 소년이었다. 다혜는 주변의 권유로 오토바이 소년을 용서하고 탄원서까지 써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주변의 권유'로 한 용서다. 용서를 주변의 권유로 한다? 어떻게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다. 영화에서처럼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한다고 말하면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용서가 과연 잘 된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말했듯, '용서'를 하는 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영화에서는 용서를 하는 방식이라기 보단 잘못된 용서의 예를 제시하면서 잘못된 용서를 지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용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약혼자를 잃은 '다혜'에게 성당의 수녀님은 용서를 하라고 한다. 아마도 수녀님은 '잘못을 하면 꼭 용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용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영화의 도입부분에서 수녀님은 약혼자를 잃은 다혜, 사형수 아들을 둔 가해자 가족, 그리고 10년 전 딸을 잃은 유가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다. 이유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앉아 있는 세 사람들 중 사형수 아들을 둔 가해자 가족은 사형제 폐지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용서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혜 또한 사형제 폐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10년 전 살인범에 의해 딸을 잃은 엄마는 사형제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수녀님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인 엄마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영화를 보

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상식'이 누군가에겐 가혹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자신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살해한 가해자를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만큼 잔인한 짓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뒤늦게 자신이 잘못된 용서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다혜'에게 있어서도 많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뒤늦게 깨달은 다혜에게 더 많은 상처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영화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용서해준 소년이 잘 살고 있다고만 믿었지 그 후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죄책감은 그 누구도 덜어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혜에게 '용서하라'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다혜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 없다. 때문에 용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화는 '대신하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에 대하여

'오늘'이라는 영화는 영화가 시작하면서 끝날 때 까지 주인공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이 변화하면서 혼자만의 공간에서가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들 개개인을 고려하여 영화를 감상해야 한다.

다혜가 주변의 권유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후 1년이 지난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의 동생인 지민(남지현)이 찾아온다. 지민은 상우와 다혜의 친구인 '지석'(송창의)의 동생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지석을 상우가 데리러 오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면 지석이 어느 정도의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적어도 내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영화 안에서 지석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다. 오히려 다혜가 자신의 용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지석은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더 강해져야지.'라는 말을 던진다. 그리고 그 후 다혜는 지석을 만났을 때 말한다. '너는 상우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그러자 지석은 오히려 화를 내며 무책임한 말을 한다. '나도 상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나도 괴로웠다고.' 영화에서 지석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지민의 오빠이기도 하다. 그는 동생이 잘못한 것이라며 맞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영화 에 등장하는 지석이라는 인물은 정의로운 인물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비겁한'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겁한 그에게 가해지는 벌은 없다. 꼭 벌이 아니더라도 지석 스스로가 느끼는 책임감, 죄책감 같은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한 그의 모습에 보는 내내 답답함이 느껴졌다. 물론 영화라고 해서 권선징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민보다도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는 설정, 마지막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인물의 설정은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때문에 주인공 다혜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혼자서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혼자 지고 간다.

지민은 상우(기태영)를 죽인 오토바이 소년을 용서해준 다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다혜는 성당에서 부탁받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고 지민은 다혜를 따라다니며 도와준다.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다혜와 지민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터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다혜는 자신이 용서해준 오토바이소년의 소식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한 용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있다.
먼저 다혜가 다큐멘터리를 위해 인터뷰한 첫 번째 인물 '연쇄살인범에 의해 아내를 잃은 남편'이다. 이때 지민이 함께 따라간다. 이 남자는 아내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위해 탄원서를 써준다. 다혜는 이 말을 듣고 단지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민이 '다른 집들은요? 다른 분들도 용서를 했데요? 살인범은 만나보셨나요?'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터뷰를 하던 남편은 그저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살인범이 자신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만나길 원치 않는 다는 말을 한다. 이에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다혜에게 말한다. '난 저분이 개무시 당한 것 같아.' 하지만 다혜는 지민의 말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가 시작된다.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았던 엄마를 용서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처음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가족이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두 자식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민은 '가족이라는 핑계로 별별 죄를 다 지어도 되겠네? 하느님이 볼 때 인간들은 애완견 같아. 애완견을 여럿 키우는 주인은 애완견이 다른 개를 죽여도 그 개를 죽이지 않잖아. 하나라도 덜 잃고 싶으니까' 이 말에 다혜는 처음으로 지민의 말에 공감한다.
세 번째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지민이 동행하지 않았다. 살인범에 의해 남편을 잃은 아내의 이야기다. 다혜는 평소처럼 질문을 한다. '아무 대가 없이 용서 해주셨다구요? 무기징역이었는데 10년 만에 출소했다죠. 모범수로.' 이 말에 아내는 표정이 달라진다. 자신도 이 이야기를 처음엔 몰랐다는 듯이 모범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 하냐며, 출소 후에도 자신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었다고, 어찌 세상법이 용서도 대신해주냐고 분노한다. 아내의 태도에 다해는 당황하며 아내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아내의 분노에 조금씩 동요한다. 그리고 일 년 전 자신의 약혼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가 가해자 소년의 소식을 묻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크게 동요한다. 얼마 뒤 가해자 소년이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다혜는 자신이 한 용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식을 알 수 없다니. 영화에 나오는 형사의 말처럼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이 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혜는 성당에서 만났던 10년 전 딸을 잃은 피해자의 엄마를 찾아간다. 영화에서 피해자의 엄마는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이다. 누구처럼 용서를 대신해 주지도 않았고 누구처럼 주변의 권유 때문에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심지어는 지민보다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지민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다혜에게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처음부터 설명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지민 또한 그렇게 솔직한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민은 상우가 죽은 후 1년 뒤 어느 날 다혜에게 찾아간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다혜의 말처럼 단지 다혜가 걱정 되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민은 다혜에게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자신이 더 괴

로워질 것 같아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인자를 용서한 다혜에게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민의 용서는 매번 좌절되고 만다. 이러한 설정은 용서는 자신이 원할 때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의 설정에 대하여

영화를 보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다혜와 지민의 감정 표현 방식이다. 둘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졌다. 친절하지만 차갑게 말하는 다혜, 자신이 할 말은 꼭 하는 지민. 어떻게 보면 영화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데 두 인물들 간의 성격차이가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민이 다친 얼굴로 다혜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맞았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 장면에서 다혜는 지민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것이라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다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민의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지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민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지민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보단 쓴 소리를 하는 장면은 지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지민 또한 다혜가 자신의 상황에 힘들어 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인다는 설정은 다혜를 상처받게 했다. 두 사람의 다른 성격은 이렇게 서로에게조차 상처를 주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각자 상처받았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치유해 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정은 공감할 만 하지만 너무나 다른 성격의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조화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다혜와 지민이 만나면서 영화의 큰 틀이 형성되지만 영화 안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굳이 두 사람사이의 사소한 갈등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등장인물의 대사이다. 영화 안에서 지민은 아직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처음엔 지민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씩 툭툭 던지는 '아이의 시점'에서 하는 대사가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에서 몰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민이 다혜에게 '언니는 심장에 용서라는 마취제를 뿌렸지. 그래서 화도 안내고 미치지도 않았던 거라고.' 말하는 장면 외에도 다혜가 피의자 소년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장면 등은 기껏 실었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 모두 다해의 이런 장면을 보고 정말로 소년이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아, 나를 좀 더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다혜만의 바람일 뿐이고 영화 안에서는 힘없는 피해자의 작지만 슬픔 바람일 뿐이다. 때문에 이러한 장면은 쓸 데 없는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당부라고 생각한다. 영화 안에서 다혜가 좀 더 강한 인물이었다면 차라리 가해자 소년을 욕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소년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설정은 피해자의 힘없는 외침뿐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줄 뿐이다.

영화를 보면 다혜의 이야기가 '주'가 된다. 때문에 관객들은 다혜의 심경 변화를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의 형식은 자칫 다혜의 슬픔을 관객들에게 나누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어떤 영화든지 영화의 등장인물 입장을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관객의 선택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 다혜의 표정을 클로즈업한다거나 다혜의 이야기만 전하려 하는 모습 등을 보면 다혜의 슬픔을 관객이 함께 느끼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며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때문에 영화를 보고나서 느끼는 공감의 정도가 다른 영화들보다 깊었고 주인공이 받는 아픔의 정도를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다소 힘겨울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의 시작은 '성당'이다. 다혜의 용서는 성당(수녀, 신부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그들은 용서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다혜가 자신의 용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달려왔을 때에도 신부님은 진정하라는 말밖엔 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녀님은 힘들어하는 다혜에게 '주님이 주신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발언은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영화의 설정을 보면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은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종교인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인가 의심된다. 물론 사람마다 주관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 말은 우스운 말이 될 뿐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러한 종교적 요소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그들(종교인)의 입장에 더욱 공감할 수 없도록 하였고 오히려 반하는 감정을 자아내게 했다.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관객이 다혜를 보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용서에 대한 서툰 정의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보는 내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아픔에 특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영화를 중립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기도 했다.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못된 용서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용서를 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신하는 용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영화를 보고나서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아픔에만 공감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오늘'이라는 영화를 보고난 후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영화에 적은 분량으로 등장한 '사형제 폐지', '가정폭력', 그리고 '종교적 이야기'. 오늘 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확히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의 영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화에서는 용서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내용을 필요로 했다. 사형제 폐지, 가정 폭력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거운 소재들은 영화를 용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각각의 키워드들이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소재인데 이 영화 안에서 오히려 그에 대해 적은 분량으로만 언급되면서 영화의 주제와 뒤엉켰고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데 혼란을 주었다. 차라리 한 가지의 소재를 갖고 영화의 주제를 소개하려 했다면 영화의 주제와도 잘 어우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너무 많은 소재들로 영화를 이야기하려 한 점은 영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감상한 후

'너무 쉽게 용서해 줘서 미안해' 영화의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이다. 포스터에서 다혜는 상

우가 선물해 준 노란 우산을 쓰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야말로 다혜가 가해자 소년을 용서해 주었을 때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너무나 용서할 수 없었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용서해주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지민이 나타나기까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쉽게 용서해주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려했던 것인지 모른다.

'오늘'이라는 영화에서 피해자 가족인 다혜(송혜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영화에서는 다혜의 감정 변화에 따라 솔직한 바람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온다. 바로 상우가 살아있다는 가정의 장면이다. 상우가 지석의 전화를 받고 데리러 가지만 지민의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 사고를 피하는 장면이 그렇다. 이것은 다혜의 바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누구도 다혜에게 용서하지 않을 권리는 알려주지 않았다. 자신이 한 용서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아파하지만 뒤늦게나마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려는 것을 가정의 장면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늦게나마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하려는 모습은 안타까운 와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적어도 더 이상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숨기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지민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고통스러워한다. 자신을 때린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지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했다. 하지만 용서받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은 어쩌면 용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받을 사람의 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데 용서를 한다고 하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용서는 서로에게 그 용서가 필요할 때, 스스로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한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영화– 다이애나

20151110 김진경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이애나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 그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이애나는 왕세자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세계의 많은 일들에 힘쓰며 영향력을 끼쳤지만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비운의 왕세자비'라고 불리며 이런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녀가 죽고 난 후 몇 년 후에 여러 종류의 책과 영화로도 나왔다. 몇 년 후에 영화가 나온 이유는 실존인물을 다루는 영화나 책은 실존 인물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내야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 그녀를 소재로 한 영화의 이름이 '다이애나'이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는 다이애나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단지 평범한 여자의 삶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실존인물을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에게 '다이애나'라는 영화는 매우 아쉬웠고 오히려 그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글에서 영화 '다이애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영화의 내용

영화 '다이애나'는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왕실에 별거를 하겠다고 요청한 후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시작한다. 그 사실이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화재가 되고 그녀는 어디를 가도 기자나 파파라치가 따라다니게 되고 작은 행동까지도 사진이 찍히고 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된다. 작은 행동들 까지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또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왕세자비의 자리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을 한고 왕세자비의 자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평소 관심 있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의 심장외과의 하스낫이다. 하지만 그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파파라치들이 그녀의 사적인 일들을 모두 알고 그 남자에게 까지 붙어서 두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다이애나는 그 사람에게 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쫓아다니는 파파라치들이 싫어서 점점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로부터 도망을 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주변의 문제들로 그 사람과 이별을 한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둘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고 작은 일로도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둘은 현실을 직시하며 서로 더 이상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별로 힘들어하던 그녀는 그 후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남자와도 전처럼 파파라치에게 시달리자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해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자 많은 국민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꽃을 두고 슬퍼하고 주변 문제로 그녀와 이별하게 된 남자인 하스낫도 그녀의 집에 찾아와서 꽃과 연애를 할 때 그녀에게 들려주던 시를 적은 종이를 두고 돌아서고 화면이 꺼지면서 마지막에 그녀가 살면서 했던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해 변화된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자막으로 나오면서 영화가 완전히 끝이 난다.

내가 글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

원래 실존 인물을 다루는 영화들은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기도, 촬영하기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과연 그 영화 안에 실존인물의 삶을 잘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과연 이 영화에서는 그들이 다이애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담아내었을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잘 표현하였지만 난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잘 표현하기보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하는 그녀의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 표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나 모습 그리고 배경 같은 사소한 부분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을 잘 표현해 준 것에 있어서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과 진실인지 허구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나와서 혼돈을 준다는 점과 이 영화가 나온 시기상도 별로라는 점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이 영화 속에서 잘 표현해준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 (배역과 사소한 부분의 표현)

–배역

영화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배역을 맡은 배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다이애나 역을 맡은 배우의 외모와 머리 스타일링까지 그 여배우는 실제 다이애나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다이애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본 적이 있던 사람이라면 책의 시작에 나오는 다이애나의 사진과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사람이 연기를 하니까 마치 실제 다이애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런 느낌 때문에 영화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배역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들도 영화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영화의 배경이나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도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왕세자비라는 것을 영화를 보는 내내 잊지 않을 수 있게 한 것 같다. 그녀가 사는 곳으로 나오는 집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말투에서 그녀가 왕세자비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 같다.

-놓치지 않은 사소한 부분

다이애나를 소재로 한 다양한 책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수많은 기자와 파파라치로부터 고통받았다는 부분이 서술되어 있다. 영화에서도 그녀가 하스낫을 보기위해 병원을 갔다 오다가 병원 앞까지 따라온 파파라치 때문에 화를 내며 기자에게 전화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부분이 나온다. 또한 하스낫의 집에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평범한 길에는 기자와 파파라치가 너무 많아 도망치듯 다른 길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조금 과장된 것이긴 하겠지만 그녀가 가발을 사서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그와 데이트를 하는 부분에서도 기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저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책에서 말한 그녀가 파파라치에게 받은 고통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다이애나를 소재로 한 책에서 그녀는 자살 기도를 했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영화도 그 부분을 빼먹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하며 종종 혼자 있는 부분에서 외로워하며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그녀가 왕실에서 나와 혼자 살면서도 왕세자비를 포기하기 전 까지 계속 비서가 스케줄을 말해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녀가 아직 왕세자비라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현실을 계속 알려주고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감독이 이런 부분을 빼먹지 않고 잘 잡았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를 보는 데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표현 된 것 같다.

좋았던 점만 있던 것은 아니었던 영화, 다이애나

하지만 좋은 배역과 놓치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 표현해준 영화지만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쉬운 점이 너무 커서 다이애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을 다루었던 이 영화에서 내가 아쉬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나는 내가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잘못 잡은 것 같은 영화의 중점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중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생각하며 비운의 왕세자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녀가 왕세자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끝까지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녀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에서 이런 그녀의 노력을 아예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녀가 자신의 드레스 80벌을 경매장에 팔아 암, 에이즈 환자를 위해 기금으로 내고 지뢰로 인한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 지뢰 퇴치에 힘쓰는 모습들은 영화에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영화의 중점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영화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짧다고 느껴질 만큼 중간에 잠깐씩 보인 것이 다였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잠깐 나오고 바로 다이애나가 경매하는 곳에서 잘 아는 의사선생님을 만나 하스낫을 그 선생님의 병원에 추천하는 등의 애

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간다. 영화 속의 다이애나는 그저 '사랑'에만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평범한 여자 같았다. 영화의 대부분은 그녀가 하스낫과 만나고 이별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영화 속에서 다이애나가 전쟁후유증으로 피해를 받는 나라에 찾아가서 직접 지뢰를 없애는 작업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나오고 바로 그녀가 하스낫과 그 일에 대해서 통화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영화 속에서 다이애나는 파파라치를 피해 하스낫과 데이트를 하기위해 그를 집에 부르기도 하고 담요로 덮어서 몰래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신이 가발을 쓰고 변장해서 길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스낫과 이별을 한 뒤로는 그녀가 이별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도 안타까운 점이다.

다이애나의 노력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되었다는 것은 영화가 끝난 후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 전부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화의 중점은 그녀가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과 그 노력들이 아니라 그녀도 다른 여자들처럼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자였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가 끝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이애나도 평범한 여자들과 다를게 없고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했다는 점이다.

물론 다이애나를 소재로 한 책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새로 시작하게 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책에서는 그 부분이 중점적인 것은 아니다. 책의 중점은 그녀가 이혼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도 세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다. 책은 영화보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영화감독이 영화를 찍기 전에 다이애나의 업적에 대해 중점을 두고 촬영했다면 그녀의 새로운 남자보다는 얼마나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지를 더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 것일까?

영화가 재미를 위해서 사실인 부분에 약간의 픽션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존 인물을 주제로 다룰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하스낫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그녀를 다룬 책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가 그와 이별을 한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긴다. 영화 속의 그녀는 새 남자를 만나면서도 꾸준히 하스낫에게 다시 만나자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 만나는 남자와 찍히는 사진들은 대부분 그녀가 직접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준 후 사진이 찍혀서 기사가 나는 것을 의도한다. 또한 새로 만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스낫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려진다.

하지만 책에서 나타나는 그녀는 새로운 남자와도 진지하게 사랑에 빠졌고 그와의 연애에도 전 남자와의 연애와 마찬가지로 파파라치에게 시달렸다고 나타난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본인이 기자들에게 종종 위치를 알려주어 사진이 찍히는 것을 의도했으면서 마지막에는 파파라치를 피해서 과속을 하다가 약혼자와 함께 죽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문이 생긴다. 책이

사실이라면 영화 속에서는 하스낫 이라는 남자와의 사랑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서 새로운 남자와의 연애를 하면서도 그를 잊지 못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

물론 영화 내에서는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요소나 픽션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추가 하는 게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상 인물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고 실존 인물을 다루는 영화인 것이다. 또한 주인공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안타까워하던 왕세자비였다. 이런 사람들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실존 인물을 다룰수록 픽션으로 넣는 것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인물을 모르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거짓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이애나라는 영화를 본 사람 중에 다이애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다이애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은 그걸 생각했을까? 했다면 감독은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다른 여자들처럼 사랑을 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한 비운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영화를 만든 것일까? 감독이 다이애나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실천한 여자면서 일찍 죽게 된 불쌍한 왕세자비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던 것이라면 내가 본 이 영화는 지금의 상태보다 훨씬 더 다듬어지고 좋은 영화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는 만들어지는 시기도 중요하다.

영화는 내용이나 다양한 면에서 중요하지만 그만큼 만들어지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양한 영화 평론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다이애나를 소재로 한 이영화가 나온 것은 2014년이다. 실존인물 다이애나가 죽은 것은 1997년이다. 그녀가 죽고 17년이 지나서야 이 영화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그녀가 죽고 17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그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마 과거에 그녀를 맹신하듯이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녀가 죽고 13년이 지났을 때 이 영화와 비슷하게 그녀의 마지막 사랑을 다루는 책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 책 또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소제로 책을 내는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영화의 내용이 그녀의 삶에 대한 것보다 그녀를 그저 모든 특권을 누르다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여자로 만들었다. 이런 것은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힘들고 다이애나의 삶을 잘 표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했던 많은 좋은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저 평범함을 원하는 여자인 것처럼만 영화가 표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으로 다이애나의 삶이 표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글을 마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전혀 좋지 못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녀가 이혼 전

부터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껴왔고 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힘들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류의 책보다 훨씬 이 영화에서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의 포스터에 나타난 글귀로 인해 생기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영화인 것 같다.

영화 다이애나의 포스터에는 세계 최고의 '로얄 패밀리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있다.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를 먼저 접한 사람들은 그녀가 이혼하기 전에 힘들었던 왕실 이야기와 보통 사람들이 잘 몰랐을 법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책을 읽었다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영화에서 그녀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애쓰고 갈구하는 모습보다 이혼 전 에 느꼈던 심적인 고통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왕세자비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면 영화는 조금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영화 속의 다이애나는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고 무슨 일을 해도 신문에 나고 뉴스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여성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영화의 대부분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변 사람과 상담하는 부분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화감독이 좀 더 그녀가 이뤄낸 업적에 중점을 두고 화면에서 더 많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영화를 제작했다면 다이애나는 조금 더 멋지고 더 안타까운 왕세자비로 표현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이번 영화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작품인 것 같다. 또한 내가 이 영화를 본 후 다이애나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 것 같다. 책으로 접해 본 다이애나는 정말 비운의 왕세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자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이애나라는 영화는 재미로 보기에는 좋은 영화일 수 있지만 정말 다이애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그저 그녀도 우리처럼 평범한 여자였다,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던 안타까운 여자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닥 좋지 못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대에 하나쯤은 필요한 영화, <베테랑>

20151115 노이지

액션범죄스릴러. 요즘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장르이다. 베테랑 역시 화끈하고 스릴 넘치는 액션이 주 무기인 영화이다. 사실 개봉 전부터 베테랑은 액션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류승완 감독의 연출과 황정민과 유아인의 출연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또한 황정민-오달수와 유아인-유해진의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는 영화 개봉 전 부터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베테랑은 개봉 후에도 역시나 관객들로부터 평균 9.2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그 인기가 날로 고공행진 하여, 개봉 229일에는 천만관객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유아인과 황정민의 명대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많은 패러디들을 탄생시켰을 뿐 만 아니라 2015년 최고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 개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의 끝나지 않은 인기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사실 베테랑의 스토리는 액션범죄를 주제로 한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범죄액션 영화들이 늘 그렇듯, 베테랑도 기업의 부정부패를 주제로 다룬 영화이다. 등장인물 또한 정의감 넘치는 형사들과 악행을 일삼는 기업인들이다. 이러한 단순한 캐릭터들과 영화의 뻔해 보이는 전개로 인해 자칫하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공권력이 기업을 이긴다는 비현실적인 설정 또한 영화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 밖에도 베테랑은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존재한다.

1. 애매모호한 코미디

베테랑은 한국영화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코미디는 순간순간 상당히 예리하게 웃음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천호진과 황정민이 서로 자신의 상처를 자랑할 때나, 체포 작전에서 급작스럽게 춤을 추는 장면들, 그리고 슬랩스틱도 역시 류승완 감독의 코믹 센스를 느낄 법 하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 재벌의 갑질이 시작되면 내가 왜 웃었을까 하는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그 분위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재벌의 갑질을 다룬 장면에서도 코믹한 요소를 추가시켰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캐릭터 중 가장 아쉬웠던 캐릭터가 있다면 바로 유해진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다. 그는 이미 다른 영화에서 명품 코미디 연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가 출연했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베테랑 속에서는 전혀 코미디를 연기하지 않는다. 박해진은 야비하고 욕심 많은 유아인의 측근역할을 맡았는데 영화가 완벽히 진지한 사회 비판물이 아닌 액션스릴러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기를 묻어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 물론 박해진이 그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두 얼굴의 인물인 최 상무를 완벽히 소화해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파렴치한 악역을 연기하면서 중간 중간에 코믹한 연기를 개성 있는 연기로 소화했더라면 영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 캐릭터의 진지함을 살리되, 코믹요소가 합해져 조태오와의 케미가 더욱 돋보였을 것이라 예

상한다. 영화 속 모두가 즐거운 장면에서도 그는 지나치게 진지한 나머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면이 존재한다.

2. 비현실적인 결말

베테랑의 결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선이 악을 이기는 권선징악 (勸善懲惡)이다. 서도철 형사와 그 일행이 재벌 조태오를 검거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사실 배경이 실화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현실성은 존재하는 것이 영화이다. 하지만 마지막 해피엔딩이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사실 현실 속에서 재벌은 아직 권력을 가진 갑일 뿐 이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권선징악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해하고 보려 해도 권선징악의 결말이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권선징악의 결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성격의 결말은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결말만 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아마 베테랑이 진지함 보다는 오락성을 좀 더 추구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의 결말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고 있을 때는 통쾌함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는 것이 조금 속상하다. 일부 관객들은 영화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화려한 액션에 가려진지 오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영화의 길지 않은 여운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영화의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관객들은 베테랑이 재미있으면서도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영화라고 극찬한다. 또한 개봉 전이나 개봉 후에나 베테랑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이토록 베테랑에 열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베테랑의 흥행요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자.

1. 탄탄한 스토리와 근거 있는 장면들

베테랑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가 그 배경이 실화라고 알려진 데 있다. 실제로 이 영화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다. 그 곳에서 상상도 못 할 만큼 어이없는 범죄가 일어났다.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M&M 전 대표 최철원씨가 화물 연대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홍진씨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것이다. 폭행 당시 1대에 100만원, 300만원이라 말한 점, 폭행의 이유가 유홍진씨가 SK본사 앞에서 1인 차량 시위를 했기 때문이란 점과 두루마리 휴지를 입에 물리고 폭행했던 점 등이 베테랑 속 사건들과 완벽히 일치한다. 그래서인지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약간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장면들을 이 배경을 통해서 자연스레 납득하게 된다. 영화를 다 본 후에도 자연스레 갑에게 당한 을들의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사연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뻔 할 거란 예상과 달리 베테랑의 스토리는 흥미진진하고 탄탄하다. 베테랑에는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 익히 봐왔던 재벌가의 악행들이 모두 담겼다. 예를 들어 극 중 조태오와 그 측근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점은 실제 재벌들의 사고방식과 백프로 일치한다. 또한 돈으로 사람을 사서 살인을 하는 무서운 면과 마약, 성범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뻔뻔한 점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모습과 판박이다. 그렇게 탄생한 '조태오'란 캐릭터는 역대급 악역을 보여준다. 잘 만든 오락영화에는 강하고 멋진 악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걸맞은 캐릭터가 바로 '조태오'이다. 조태오가 저지르는 온갖 사고들이 돈으로 무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어이'가 없어하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점이 답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 하지만 '베테랑'은 이 같은 현실을 관객들을 대신해 정면으로 때려 부수어 준다. 유아인의 악역 연기가 빛을 발할수록 황정민의 복수극은 점점 흡입력을 얻는다. 서도철 형사는 뒷감당이 되겠냐는 조태오의 빈정거림을 무시하고 그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갈긴다. 또한 마지막에 명동에서 사람들이 조태오를 사진 찍는 장면은 마치 심판을 연상시킨다. 조태오는 명동에서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서도철형사와 일대 일 싸움을 한다. 그리고 결국 끈질긴 형사에 의해 수갑을 차고야 만다. 이 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 순간 관객들이 조태오에게 느꼈던 분노가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즉,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권선징악의 결말을 통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베테랑의 스토리는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스토리 말고도 배우들의 대사들과 행위들을 통해 관객들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류승완 감독이 말하길, 서도철 형사의 대사 중 "우리는 질서 없게 질문해도 질서 있게 길게 대답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대사는 실제 형사의 말을 빌려온 것이라고 한다. 영화의 명대사 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대사도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사이다. 배기사가 급하게 끼니를 때울 때 트럭 핸들에 바나나 우유를 꽂아 놓고 먹는 장면 역시 실제 기사들이 끼니를 때울 때 흔히 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몇 개월 치 밀린 임금이 고작 4백여만 원인 배기사와 달리 평소 갖고 다니는 지갑에 2천만 원이 있는 재벌과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 서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의 진정성 있는 대사와 실제를 연상시키는 행위들은 류승완 감독의 노련함을 보여준다. 또한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여 영화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든다.

2.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

베테랑의 일등공신은 바로 배우들의 혼이 담긴 연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연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황정민의 출연은 영화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베테랑에서 서도철 형사 역을 맡았는데, 서도철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으로 수사를 밀어붙이는 광역수사대 형사로써 거칠고 투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다. 류승완 감독의 말에 의하면, 서도철 역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황정민을 염두에 두었었다고 한다. 황정민은 <신세계> 정청과 판박이 연기로 조폭이 경찰로 둔갑한 연기를 펼치지만

반복하는 그의 연기는 전혀 식상하지가 않았다. 행동과 말투는 같은 듯해도 표정과 눈빛은 각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려 매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번 영화에서도 황정민은 그만의 솔직담백한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도철과 조태오가 맞붙는 장면에서 황정민의 연기는 극에 달한다. 서도철 형사는 그 장면에서 매우 이성적이고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증거를 시민들이 기록하게 하며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조태오라는 인물의 악행에 화가 나 충분히 주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도철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뒤로 하고 정당방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하는 연기는 그야말로 명품연기였다.

베테랑에서 가장 빛이 났던 배우는 바로 유아인이다. 황정민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가지 않을 정도의 연기로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이 영화의 스토리 상 조태오 일행과 서도철일행의 대립구조가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유아인의 연기는 이 구조의 중심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조태오라는 캐릭터는 '베테랑'의 주인공들 중에 유일하게 베테랑이 아닌 인물로 설정되었다. 다소 허술한 격투기 실력이라든지 기업인으로서의 부족한 경영능력도 베테랑으로 취급되기에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을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에만 치우쳐 서도철을 폭행하고 마는 조태오의 모습은 그가 치밀하고 계산적이지 못한 인물이란 것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조태오가 지닌 악은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이 지니고 있는 냉정한 종류의 절대 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아이같이 매우 순수한 느낌의 악이다.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태오는 정당한 것과 부정당한 것, 선과 악 등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유아인은 섬세한 표정연기와 풍부한 감정연기로 풀어나갔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배 기사를 폭행하라고 지시할 때 그의 평온한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만든다. 유아인은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똑바로 보라며 정웅인의 어린 아들이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꽉 잡는다. 또한 정웅인이 정만식에게 맞는 장면을 아이에게 보도록 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조태오는 악의 구분이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어이가 없네."라는 그의 명대사에는 조태오의 싸 이코패스적인 면모가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의 표정을 보면 그깟 적은 돈 때문에 시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어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조태오라는 인물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에 법원으로 향하는 어떤 죄책감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표정만 가득할 뿐인 유아인의 표정은 조태오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상대를 내려 까는 시선 처리부터 얼굴의 미세한 떨림 하나 까지 제대로 표현해낸 유아인의 연기는 단언컨대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많은 연기들 중 최고였다.

베테랑에서는 주연의 옆에서 묵묵히 열연을 펼치는 조연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오달수와 박해진은 황정민과 유아인을 옆에서 도와주며 서로 대립구조로 나오는데 그들의 연기력은 박수 받아 마땅했다. 주연급 조연들의 연기가 선을 넘지 않으며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이 영화의 힘이었다. 오달수는 서도철의 조력자 '오 팀장'으로 등장해 특유의 재치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유해진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비열한 연기를 제대로 소화해내면서 유아인과의 악당 케미를 만들어 냈다. 피해자로 등장하는 정웅인 역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지만 아들 앞에서 맞는 모습을 보인 아버지의 비참한 심정을 정웅인 특유의 말투와 눈빛으로 표현했다. 특히 장윤주에 대해서는 배우가 아닌 모델이기에 개봉 전부터 불안감이 앞섰다. 하지만 그런 관객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장윤주는 코믹스럽지만 강인한 여경찰 역할을 그녀만의 개성 있는 색깔로 제대로 소화

했다. 또한 큰 키와 긴 다리로 유례없는 액션 신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그 밖에도 유인영, 천호진, 정만식, 진경 등 모든 조연배우들의 연기는 흠 잡을 데가 없이 좋았다. 특히 마지막에 짧게 등장한 아트박스 사장 역할인 마동석은 몇 초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감초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3. 눈을 뗄 수 없는 액션

베테랑의 액션 장면들에서는 류승완 감독의 훌륭한 연출이 돋보인다. 류승완 감독은 액션들을 마치 슬랩스틱처럼 코믹하게 풀어냈다. 또한 액션 속 깨알같이 세세한 포인트들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황정민, 오달수, 장윤주가 조태오 일행을 습격 할 때 장윤주가 보여준 발차기 장면이나 서도철 형사가 조태오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재미와 통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초반부 액션이 황정민의 원맨쇼였다면 후반부는 화려한 액션이 주를 이루었다. 많은 액션 장면 중 차량 추격씬은 영화의 몰입도를 최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시내를 질주하는 롤스로이스의 폭주는 흡사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을 들게 할 만큼 실감났다. 또한 손에 땀을 쥐게 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했다. 영화 후반부 치열한 추격씬 끝에 조태오가 거리에 내몰리고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여 서도철과 싸우는 장면에서는 두 배우의 액션 연기가 빛을 발했다. 두 사람의 치열한 주먹다짐은 누가 이길 수 알 수 없기에 더 흥미진진했다. 맞고 때리고를 반복하며 마지막에 황정민이 유아인을 체포할 때는 관객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정도로 그 몰입도가 엄청났던 장면이다. 베테랑의 액션은 긴장과 완화를 넘나들며 관객들의 심리변화를 이끌어 냈다. 사실 액션영화상 폭력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베테랑의 경우에는 달랐다. 물론 폭력적인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까지 는 나아가진 않는다. 액션연기에 적당히 가미된 코믹 요소가 폭력 장면도 관객들이 웃으며 소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화려한 액션연기와 연출은 극의 재미를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큰 역할을 했다.

베테랑이 흥행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모든 영화가 아쉬운 점이 있듯, 베테랑도 몇몇 아쉬움들이 남는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결말이 주는 씁쓸함과 코미디가 주는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은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다. 사실 나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권선징악의 결말보다는 현실적인 결말의 영화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코미디 보다는 진지함을 더 극대화한 영화를 좋아한다. 하지만 베테랑을 보며 나는 무엇인가 속이 뻥 뚫리는 듯 한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다.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와 뛰어난 액션장면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느낀 통쾌함과 시원함이 왠지 꼭 그런 이유들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는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어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소수결의 횡포가 끊이질 않는다. 힘이 많은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짓밟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소수결의 횡포가 이 세상의 원칙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세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 속 재벌들의 악행은 이를 투영한다. 재벌이라는 소수가 돈이나 권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화가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행위는 언제부턴가 당연시 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극 중 등장하는 정의감 넘치는 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개 경찰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에서 권력, 정치력, 재력 등 많은 것을 가진 대기업에 맞서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뻔히 보이는 권력자들의 거짓말은 증명이 되지 않으며 타당성이 없을지라도 강자의 논리는 먹힌다. 다수가 힘을 모아도 돈과 권력이란 힘을 가진 소수의 재벌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사실 안 그런 척해도 모두가 돈과 권력을 원하고 쟁취하려 애쓴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목숨 위에 돈이 존재하는 사회구조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쩌면 모두가 물질만능주의의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서자로 태어나 언제 형, 누나들에게 자기 지분을 빼앗길지 몰라 벌벌 떠는 조태오나, 뒷수습은 다 하고 있는데도 골프채로 맞아가며 아버지 이야길 듣다가 죄를 뒤집어쓰길 강요받는 최상무나, 자신도 본사로부터 피해를 받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전소장이나, 등장인물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사회의 피해자인 것 같아서 참 속상하고 답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서도철 형사가 부패해버린 현실에 화가 나 외치는 말이다. 나는 이 대사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작게나마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나는 갑질하는 어떤 이들처럼 창피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듯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청춘들에게도, 가족을 등에 업고 살아야 하는 가장들에게도 베테랑 같은 영화가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조금은 비현실적이며 진지함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베테랑이 일상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통쾌함과 즐거움을 선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북돋아 준 영화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베테랑처럼 영화관에 들어갈 땐 지친 마음을 가진 채 들어가더라도 나올 땐 나도 모르게 응원을 받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영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인도의 대표영화, <세 얼간이>

20151116 박지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도영화를 다른 말로 발리우드영화라고 부른다. 발리우드는 붐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인도영화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또한 인도의 영화가 할리우드수준급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영화산업시장하면 가장 먼저 할리우드를 떠올린다. 그런데 인도의 영화산업 또한 할리우드와 비견될 만큼 거대한 시장과 자본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인도의 영화 제작편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한해 제작되는 영화 수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화 산업에서 인도영화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는 인도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할리우드 영화는 눈에 띄고 알아주는 반면, 인도영화는 몇몇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화 수입, 배급사들이 인도 영화를 잘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영화의 길이가 매우 길어 서 타 영화에 비해 하루에 상영할 수 있는 횟수가 적다. 그로인해 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 둘째로 인도영화는 뮤지컬 형태의 영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영화의 잦은 뮤지컬장면은 국내영화의 정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앞의 두 가지 점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인도영화는 흥행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인도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세 얼간이>이다. <세 얼간이>는 인도의 코미디 영화로 역대적인 흥행기록을 가지고 있다.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원작소설 또한 인도에서 영어로 쓰여 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었다. 수많은 인도영화 중에서 <세 얼간이>가 우리나라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살펴보자.

뮤지컬적인 요소와 러닝타임

<세 얼간이>는 인도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인도영화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인도 영화에는 뮤지컬적인 요소인 춤과 노래가 등장한다. 인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로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화의 줄거리 중간마다 삽입되는 춤과 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인해 영화 감상 중 감정이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보인다.

하지만 <세 얼간이>는 근본적으로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깊은 감정이입의 필요성이 적다. 이 영화에서 뮤지컬적인 요소는 줄거리의 진행과 어우러져 영화의 흐름을 상승시켜주는 요소로 쓰인다.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안돼서 처음으로 노래가 나온다. 파르한과 라주가 란초의 행방을 듣고 자동차를 타고 찾으러 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 노래는 란초가 어떤 인물

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친구들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알 이즈 웰'이란 노래와 함께 뮤지컬적인 연출이 돋보인다. 란초가 조이의 실패한 로봇을 고쳐주려는 과정과 신입생들의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춤과 노래는 성공적으로 고친 로봇을 조이의 방으로 올려 보내고 자살한 조이의 모습을 비추면서 끝난다. 흥겹고 밝던 분위기가 조이의 자살로 인해 확 가라앉는다. 결과적으로 학업 때문에 자살했던 조이,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부각된다.

세 번째는 란초와 피아의 무르익어가는 사랑을 뮤지컬적요소를 넣어 연출한 장면이다. 란초의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피아는 란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자신 옆을 아버지를 보아도 란초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렇게 영화에 자연스럽게 노래가 작되며 뮤지컬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피아와 란초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조시키고 한층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둘은 다소 과장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입은 옷과 부르는 노래, 추는 춤에서 인도의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퇴학과 친구의 퇴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던 라주가 자살을 선택하면서 시작된다. 라주의 상태를 호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란초와 파르한의 모습들과 함께 노래가 나온다. "널 포기 할 수 없어"라는 노래가사는 친구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노래가 흐르면서 시간적 흐름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인도영화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러닝타임 또한 타 영화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하 2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길이이다. 도에서 개봉된 <세 얼간이>는 164분으로 개봉하였다. 하지만 영화의 잦은 뮤지컬장면 과정은 우리나라 국내 정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상당부분 압축,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세 얼간이>의 러닝타임은 141분이다. 즉, 2시간 21분으로 러닝타임이 양호한 수준으로 개봉되었다. 영화가 우리나라에 맞게 편집된 것이다.

재미+감동+교훈을 주는 이야기

<세 얼간이>는 일류명문대에 들어간 세 명의 공학도를 주인공으로 이들이 진정한 꿈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란초, 파르한, 라주, 이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란초이다. 영화 속에서의 란초의 가치관과 그를 반영한 대사, 란초라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영화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 파르한은 란초를 "우리는 기계 같았지만, 란초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다음과 같다. 일류명문대에 들어간 파르한과 라주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명문대 학생이 그러하듯이 기계적으로 공부한다. 하지만 란초는 지식을 쌓는 것에 어릴 적부터 흥미를 가졌고, 공학이라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순수하게 원하고 배움을 즐긴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란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기계처럼 공부하지만 란초는 사람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부를 한다. 또한 란초는 공학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만큼, 공학에 대해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다. 그 천재성은 영화에서 란초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선배가 그의 방 앞에 오줌을 누려할 때 순식간에 숟가락과 전기줄 등을 이용하여 선배에게 골탕을 먹인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숙사 안의 물건을 이용하여 공학을 실생활에 활용한 것이다. 또한 그 후 선배가 중요부위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은 관객들의 웃음까지 유발한다. 란초의 대사 중 그의 가치관이 가장 가치관이 잘 반영된 대사가 있다. “너의 재능을 따라가 봐. 그럼 성공은 뒤따라 올 거야.” 이것이 란초의 가치관이다. 실제로 공학에 큰 재능을 보이고 큰 흥미를 가졌던 란초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공학자가 되어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파르한의 아버지는 파르한이 공학자가 돼야 한다고 파르한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버리셨다. 하지만 파르한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큰 기대는 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일을 접어두게 만들었다. 그는 일류명문 공대에 붙어 공부만 열심히 한다. 우연히 대학에서 란초를 만나게 되고 란초에게서 그의 꿈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 공부보다 사진을 사랑했던 파르한은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된다. 파르한이 아버지는 설득하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취직하면 필요할 최신 노트북을 사 놓으셨다. 자신이 비록 남들보다는 가난하게 살겠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던 아들의 설득을 들은 아버지는 노트북을 전문가용 카메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공학자를 시키려고 했던 아버지가 아들의 진심어린 말을 듣고 바로 아들의 꿈을 허락 해 주신다. 파르한이 했던 돈은 덜 벌겠지만 마음은 더 행복할 거라는 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어쩌면 파르한의 아버지가 파르한이 공학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은 아들인 파르한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닐까.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몇 년 동안 접어두어야만 했던 파르한의 꿈은 이제 이루어 질 수 있는 꿈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장면은 충분히 감동받을만한 장면이다.

라주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다. 집에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지참금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있는 노처녀 누나가 있다. 그리고 5년 동안 새 옷 한 벌 못 사 입으신 어머니. 이렇게 가난한 그는 무조건 성공적으로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짊어질 것이 많아 마음이 무거운 그는 항상 신에게 의지한다. 그는 항상 신을 강하게 믿으며 부적을 달고 산다. 이런 그가 란초로 인해 바뀌어 처음으로 부적을 떼고 면접을 보는 장면이 있다. 라주는 면접에서 인생의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과 솔직한 답변으로 면접관의 마음에 들게 되고 면접에 붙게 된다. 솔직한 답변으로 면접에 붙었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론 진부한 이야기지만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만족감을 준다.

세 사람이 다니는 일류명문대에는 바이러스 총장이 있다. 바이러스 총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다. 총장은 경쟁하거나 죽거나 라고 말한다. 경쟁하거나 죽거나 말은 그가 매년 신입생들에게 하는 뻐꾸기 연설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만큼 총장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뻐꾸기 연설에서 볼펜을 들며 이 볼펜은 이전 총장님께서 훌륭한 학생을 찾으면 주라고 하셨다고 말한다. 총장은 이 볼펜을 결국 란초에게 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총장과 란초의 가치관이 극과 극으로 달라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총장에게 란초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란초의 생각,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했고, 란초가 대학에서 일등을 해도 란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이 마음이 변한 사건이 있다. 총장의 큰 딸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폭우로 병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우연히 란초가 마주치게 되고 자신이 발명한 기계와 공학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기지를 사용해서 아이를 성공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죽을 수도 있었던 아이가 다행스럽게 태어난 것을 지켜본 총장은 아이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한다. 그리

고 떠나려는 란초에게 총장은 전 총장이 훌륭한 학생에게 주라는 볼펜을 주게 된다. 이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만큼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총장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 장면이기 때문이다. 총장의 가치관 변화에는 란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보았던 인물들은 영화 속 인물들이지만 한편으로 어쩌면 현실에서도 마주할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이다. 특히 파르한과 아버지의 일화는 현실에서도 꽤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자기의 일이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고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인공들의 엉뚱하지만 한 번 쯤은 따라 해보고 싶어지는 말과 행동들이다. 이륙하려는 비행기에서 아픈 척을 해 비행기를 빠져나오는 파르한의 모습, 결혼식장에 몰래 들어가서 밥을 먹는 행동, 교수가 답안지를 안 받겠다고 하자 자신들의 답안지와 다른 답안지를 섞어버리고 도망가는 행동, 신부의 결혼식 날 신부를 빼내오는 장면 등은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장면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엉뚱한 행동으로 일탈을 하는 주인공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결과적으로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란초는 특허 400개가 있는 유명한 공학자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는다. 아버지의 강압으로 원치 않는 공학도의 길로 들어섰던 파르한은 갈망하던 사진작가가 된다. 교수에게 취직하지 못 할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라주는 취업에 성공한다. 이러한 줄거리는 인도인들은 물론, 모든 관객에게 인생의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뒤따라 올 거라는 영화가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도 부합하는 결말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

영화를 보면 기계적으로 획일적인 인재만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명문대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즐거움 따위는 없다. 배움의 즐거움이 아닌, 학점과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한다. 누군가 또는 어떤 이들이 정해놓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일정한 경로를 달린다. 총장에게 배움의 목적은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같은 공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란초의 배움의 목적은 단순히 그가 좋아하는 공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함에 있었다. 다른 이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암기식 공부를 할 때, 란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응용해 나갔다. 그렇게 배움을 즐기고 남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공부한 그가 당당히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배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의실에서 기계를 정의해보라는 말에 란초는 자신이 이해한 바를 쉽게 설명한다. 하지만 교실에서 추방당하고, 교과서의 정의를 그대로 읊은 학생이 칭찬을 받는다.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기계에 대해 정의 할 때 책에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그것은 기계에 대한 정의를 마치 기계에 입력하듯이 외운 것이지 기계에 대한 정의를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란초가 한 단어를 칠판에 쓰고 학생들에게 정의해 보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제한 시간 안

에 먼저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책을 뒤적인다. 총장에게도 맞혀 보라고 한다. 히지만 총장과 다른 학생들은 제한시간이 끝나고 끝내 맞히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란초의 친구인 라주와 파르한의 이름을 나열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란초는 말한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설레였나요? 호기심이 들었나요? 모두들 미친 듯이 레이스만 펼쳤어요. 이런 방식은 스트레스만 줄뿐이에요. 서커스 사자도 채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자에 앉는 것을 배우지만 그 사자는 잘 훈련됐다고 하지 잘 교육 됐다고는 안 합니다.” 이러한 란초의 대사에는 현재에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

총장의 말로 인해 자살한 학생을 보고 란초는 총장에게 찾아가 그건 자살이 아닌 살인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 장면에서는 인도의 자살률이 1위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만큼 교육제도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을 펼쳐 선두를 달리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교육제도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보는 큰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수능을 보고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수능에 큰 의미를 둔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능 실패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도 매년 존재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쟁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로 인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주입식적인 교육제도와 방법은 비단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 얼간이>가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재도의 문제점을 함께 떠올리고 비판하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의 교육제도도 문제이지만 인생의 성공을 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또한 고쳐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긍정의 힘, ALL IS WELL!

영화에는 “알 이즈 웰”이라는 문장 많이 나온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 잘 될거야”라는 의미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알 이즈 웰은 영화 전반적으로 란초가 많이 말하는 말이다. 알 이wm 웰은 란초의 동네 경비가 동네를 순찰할 때 쓰던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안심하고 잠을 자게 된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경비는 장님이었다. 그것을 보고 란초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란초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알 이즈 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알 이즈 웰 하라고 말한다. 알 이즈 웰이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지만 그걸 해결해 나갈 용기를 준다고 말한다.

영화에서 란초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알 이즈 웰 은 란초에서 시작돼서 란초의 친구인 파르한과 라주도 이제 알 이즈 웰 을 많이 말하기 시작한다. 총장의 큰 딸이자, 피아의 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알 이즈 웰 이라고 말하면 배 속의 아이가 발을 찼었다. 이 장면은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과 맞닿아 있다. 아이를 낳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는 아이의 모습에 다들 슬퍼할 때, 정신을 놓으려는 언니에게 알 이즈 웰 하며 진정시키려 하자 아이의 발이 움직인다. 알 이즈 웰 이라는 말로 움직이는 아이가 결국 미동을 보이며 울음을 터트리는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알 이즈 웰 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크게 각인 시킨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영화는 역시 영화일 뿐, 미화된 현실

영화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 교훈을 주려고 한 만큼 그에 따라 현실을 미화하려는 점도 보였다. 란초가 부잣집 아들 대신에 대학 졸업장을 따는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다. 주인공과 사랑에 빠진 여자가 총장의 딸이라는 점도 영화 같은 설정이다. 아기를 낳아야 하는 데 낳지 못하는 위험할 때에 란초들을 마주친 것도 영화가 감동을 주기 위한 설정 같았다. 또한 란초의 행방을 찾아서 피아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때가 피아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다는 것도 너무 우연적인 설정이다.

배움의 목적이 누구보다 좋은 집, 누구보다 좋은 차,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 이었던 차투르는 란초에게 나중에 누가 더 성공하는 지 내기하자고 했다. 란초를 찾는 과정에서 차투르가 푼수크 왕두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앞길이 핀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란초를 찾고 나서 알고보니까 푼수크 왕두라는 사람이 바로 란초였다. 이러한 우연성은 너무 영화 같은 설정이다. 결과적으로 차투르보다 란초가 더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재능을 따라간 란초가 성공했다는 것으로 영화가 말하고자하는 가치관이 옳음을 끝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영화의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교훈을 주고, 또 감동을 주지만 현실감이 떨어진다. 너무 영화적인 교훈과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연출이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영화의 가치관은 맞는 말이고 좋은 교훈이지만, 사회현실에 있어서 영화처럼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글을 끝마치며

<세 얼간이>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 친구들과의 우정 모두 확인 할 수 있었다. 란초와 피아의 사랑이 있었고, 파르한과 그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란초, 파르한, 라주, 이 세 사람의 우정도 있었다. 특히 혼수상태인 라주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란초와 파르한의 모습이 있는 장면에서 그 셋의 우정이 돋보였다. 란초가 그 둘을 진심으로 위하고, 졸업 후 사라진 란초를 찾는 파르한과 라주의 모습 또한 인상깊었다.

영화에는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우정, 감정들이 들어 있고 그에 따라 마음을 찡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비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었기에 너무 가볍지도 않았고 주인공들의 엉뚱한 행동으로 인한 재미로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런 영화였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암살>

20151118 송예지

-암살, 흥행과 여운

<암살>은 포스터 속 배우진만 보고도 봐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영화였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등 주연부터 조연까지 영화의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한 배우들이기 때문이었다. 영화를 고를 때 출연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편이라 암살은 개봉 몇 달 전부터 학수고대하던 영화였다. 그에 걸맞게 이 영화는 명연기로 깊은 인상을 주었고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남겼다. 특히 전지현의 결혼식장에서의 액션장면은 그 동안 그녀가 연기한 모든 액션 중 최고였다고 평할 만큼 대단했다.

그리고 암살에서의 또 다른 흥행요소로 들 만한 것은 사실성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당대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은 순 제작비 180억이 아깝지 않을 만큼 현실적이었다. 실제로 1930년대의 경성과 상하이를 재현하기 위해 중국의 10대 세트장인 상하이 처둔, 라오싱, 셩창 세트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고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촬영장 스케일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대로 느껴진다. 또 자동차, 총기까지
당대에 쓰인 것을 사용해 사소한 면까지 사실성을 띄게 했다.

이런 이유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독립투사를 소재로 한 영화인만큼 좀 더 한 가지의 주제에만 충실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옥윤의 삶을 중점으로 다뤘지만 대중의 기호성을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를 더했다.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둘 중 어느 하나의 특징도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오락영화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옥윤과 하와이 피스톨의 로맨스는 영화에서 큰 영향도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굳이 있었어야 했을까하는 의문도 들었다. 또 영화에서 각 인물에 대한 설정이나 뻔한 전개와 급한 결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영화를 보고 난 후 바로 느낀 것은 아니었다. 재밌게 본 영화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 그러자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한 요소들이 보였고 이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영화를 다시 보며 느낀 것은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신경을 쓰지 못한 사소한 장면이나 인물의 대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재들은 영화의 구성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짜여 졌나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최동훈 감독의 다른 흥행작인 <도둑들>이나 <타짜>같은 경우에도 배우의 대사 속에 그 캐릭터의 모든 특징을 녹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도 대사를 통해 그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작들보다는 대사가 주는 감동이 적었다. 반면에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이나 암시하는 것들은 전작들 못지않게 표현이 잘 되었다.

이 영화는 개봉 후 역사속의 인물들에 대해 재조명되며 화젯거리가 되었다. 주연인 안옥윤, 염석진, 하와이 피스톨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지만 몇몇의 모델이 된 인물이 실존한다. 특히 안옥윤은 항일투사 남자현지사를 모델로 만든 인물인데 이 영화로 주목을 받게 되었

다. 또 김원봉도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영화로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일파에 대한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에서의 염석진이나 강인국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조국을 바치며 친일활동을 한 것이라며 친일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렇듯 영화의 흥행요소는 분명히 드러나지만 영화의 규모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설정들이 많다. 완전하고 탄탄한 스토리의 구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배우진의 역할이 컸던 영화라고 생각한다. 시대배경에 대한 연출은 섬세함을 잘 보여줬으나 개성 있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배역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이 영화의 최대의 단점인 것이다.

-극중 인물에 대한 아쉬움

배우들의 연기를 가장 기대한 영화였으므로 각 배역에 대한 설정은 아쉬움이 제일 크다. 먼저 주연부터 얘기해보자면 하와이 피스톨을 우선으로 들 수 있다. 그의 역할에 대한 아쉬운 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의 신비로움을 가감시킨 편중된 로맨스였다. 하와이 피스톨은 처음에 의문의 인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설정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는 재치 있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다. 미라보에서 안옥윤과의 유쾌한 만남은 극중 긴장감을 덜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런데 후반부쯤에 하와이 피스톨은 안옥윤과의 대치상황에서 그녀에게 조심스러운 면모를 보이며 헤어질 땐 다시 만나자는 약속까지 한다. 둘의 로맨스는 그저 상업만을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흥행만을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이 마지막에 만나자는 약속도 배경음악이나 주위의 소음도 없이 적막한 가운데서 한다. 안옥윤은 그 약속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갖는다. 그녀의 그런 망설이는 모습은 그 두 사람이 다신 만나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하와이 피스톨은 그 동안의 위기를 잘 모면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는 염석진의 손에 허무하게 죽고 만다.

두 번째로 아쉬운 설정이 바로 이 허무한 죽음이다. 하와이 피스톨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 아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스스로 살해한 만큼 가정사도 복잡하고 살인청부업자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꽤 험난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라보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해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영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체를 숨기는 등 경계심도 풀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그가 조심성이 많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아네모네에서 땅굴로 탈출할 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죽기 전에 하와이는 가보자며 영감과 희망에 찬 대화를 나눈다. 땅굴에서 이어진 맨홀뚜껑에서 나오면서도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은 없다. 마지막을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그동안 하와이 피스톨이 보여줬던 조심성은 왜 연출된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염석진의 부하들을 총으로 다 제압하지만 염석진 단 한 명만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하와이 피스톨의 죽음을 위한 조금은 억지스럽게 만든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카와구치의 죽음으로 또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하와이 피스톨은 돈만 주면 누구든 살해해주는 살인청부업자이다. 극 중에서도 염석진의 사주로 속사포를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그는 죽임을 가려 하지는 않는 인물이다. 그런데 후반부쯤에 하와이 피

스톨이 카와구치에게 조선인을 몇이나 죽였냐고 하자 카와구치는 손가락 셋을 표시한다. 하와이 피스톨은 그게 3 명 인줄 알았지만 한 조선인 소녀의 죽은 이후 그에게 다시 그 질문을 하고 그 숫자 3이 3명이 아닌 300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그러면서 계획에 없던 카와구치 암살을 목표로 하며 호위무사로 위장해 결혼식장에까지 침입한다. 이런 그의 면모는 마치 민족애가 강한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의 초반부모습과 비교하면 그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카와구치의 마지막은 하와이 피스톨이 증오하던 인물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그저 성가신 인물 한 명을 처리하는 듯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개연성 결여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은 김구와 김원봉이다. 이 두 명은 실존 인물로 당대의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연출한 점과 사실과 유사한 역할은 앞서 말한 이 영화의 흥행요소라고 언급했던 사실성에 부합한다. 이 영화에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독립투사를 주제로 한 영화이므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나에겐 오히려 영화의 흥행을 위해 역사 속 인물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며 영화에 대해 조금 반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 영화를 그저 재미만을 위한 영화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실존 인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인가?'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비극을 심화하는 장면들

극적인 장면으로 비극을 심화시키는 것은 최동훈 감독의 다른 영화인 <도둑들>에서도 많이 쓰인 기법인데 이 영화 또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암살 작전에 관련된 사람들은 안옥윤을 제외하고 모두 죽고 만다. 작전을 실행할 사람들은 술집 <아네모네>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이 장면은 그저 웃음을 위하거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면이 아닌 앞으로 끔찍한 비극이 생길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방법은 이미 여러 영화에서도 많이 쓰여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영화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영화들은 초반부에 극중 인물들끼리 장난치고 웃는 장면을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것을 회상하거나 그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더 비극적으로 느끼게 한다. 마찬가지로 암살에서도 다수의 인물들이 죽고 난 후, 영화의 마무리쯤에 즐겁게 춤추며 노는 장면을 삽입하면서 모두가 죽고 나서의 허무함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작전을 실행하기 전 안옥윤과 속사포, 황덕삼은 방 안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을 때 김원봉은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이는 그들의 비극을 뜻한다. 왜냐하면 '역사에 남긴다.'는 것은 작전이 성공한다는 확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전이 성공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는 것은 작전 중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네모네에서의 밝은 모습과 같은 효과로 세 명의 굳은 의지와 성공하겠다는 확신에 찬 미소는 암살 작전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극적인 장치로 안옥윤의 쌍둥이 언니인 미츠코의 죽음을 들 수 있다. 미츠코는 안옥윤과 다르게 활동적이며 말괄량이 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미츠코는 오랫동안 자기의 쌍둥이동생을 궁금해 했기 때문에 안옥윤의 집에 직접 찾아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자기와는 다르게 험한 삶을 살아온 동생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껴 겉옷을 준비해주고 같이 돌아

가자며 안옥윤을 설득한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아버지가 찾아 온 것을 보고 자기가 카와구치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나가지만 말도 못해보고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이 장면은 강인국의 잔인함과 자기의 딸도 못 알아보는 매정함을 나타낸다. 이 때 보여주는 미츠코의 당당한 모습도 그녀의 비극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혼식장 안에서의 액션장면은 극적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우선 결혼식장이라는 공간부터가 성스럽고 행복한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곳인데 안옥윤은 이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작전을 펼친다. 안옥윤은 자신이 미츠코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겨 오다가 결혼식 날 입장할 때 아버지인 강인국에게 '언니는 왜 죽이셨어요.'라고 말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그리고 신랑에게 가까워지자 부케 속에 숨긴 총으로 난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대치상황에서 강인국과 속사포가 죽게 된다. 강인국은 암살 작전의 목표 중 한 명이었고, 속사포는 그 암살 작전을 맡고 있으며 영화에서도 웃음을 이끌어 낸 일등공신이었던 만큼 큰 존재감을 가진 두 인물이 살해당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 둘은 마지막 순간 역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인국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갖 변명으로 안옥윤을 속이려 하지만 속사포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안옥윤에게 따라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둘의 뚜렷하게 반대되는 태도 역시 비극을 심화하고 강인국의 죽음을 더욱 부각하는 장치가 된다.

이 영화에서 극적인 효과를 내는 여러 시퀀스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다. 두 번째 볼 때는 다음 장면들과 결말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보다는 평범하고 짧은 여러 장면들이 주는 많은 효과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번 최동훈 감독의 영화는 인물의 대사로 그 인물의 특징을 잘 담아내는 것은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장면으로 이러한 효과를 낸 것은 앞서 말한 것의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이 영화의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암살의 역사적인 측면과 오락성을 띠는 측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영화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감독이 만들어낸 인물들과 실존한 인물들이 관련이 있다는 설정은 극단적으로 보자면 역사왜곡이 된다. 항상 실제 역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역사왜곡에 대한 대중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역사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체로 대중성을 위해서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중심은 항일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암살>의 가장 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만한 소재는 하정우와 전지현의 로맨스인데 우리나라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장르라고 할 만큼 로맨스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은 설정이다. 하지만 영화장르를 막론하고 등장하는 러브라인은 종종 극의 몰입도를 방해하거나 스토리의 전개를 주제와 멀어지게 한다. 암살의 경우에는 두 개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주인공들이 위험에 처한 긴장감 있는 총격전에서의 난데없는 로맨스는 이 영화의 장르가 무엇인지, 이 장면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했다. 또 결혼식에서의 정신없는 총격전 후 아네모네에서는 안옥윤과 하와이 피스톨의 로맨스만이 있었다고 해도 될 만큼 다른 소재들의 비중은 적었다.

특히 카와구치가 죽는 장면은 정말 큰 감동도 의미도 없이 끝나버린다. 하와이 피스톨은 카와구치에게 접근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결혼식장에 호위한다는 목적으로 잠입에도 성공한다. 조선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고 300명쯤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열을 올리며 그를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에 말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만다. 하와이 피스톨도 극에서 중요한 인물임에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서 아쉬웠는데 카와구치 또한 암살 작전의 목표물이었음에도 별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는 안옥윤과 하와이 피스톨의 러브라인 때문에 둘 사이에 걸친 희생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카와구치의 죽음은 또 한 가지의 의문을 남긴다. 하와이 피스톨은 한 조선 소녀가 지나가다가 카와구치의 발에 물을 쏟자 바로 그 자리에서 소녀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사건으로 그가 조선인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에 찬 그는 카와구치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식장에 잠입하게 된다. 이를 보면 하와이 피스톨은 민족애가 강한 인물로 보이는데 영화의 전반부를 보면 그는 돈만 주면 누구든 죽이는 살인청부업자이다. 게다가 염석진의 의뢰로 속사포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감행한다. 살인에 민족을 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 민족애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카와구치를 처리할 때 그는 증오하던 인물을 살해한다는 느낌이 아닌 그저 성가신 인물을 처리하는 듯 하였다. 이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개연성의 결여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아네모네 안에서 하와이 피스톨과 안옥윤의 멜로가 아닌 하와이 피스톨과 카와구치의 대치를 중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더 나았을 것 같았다. 결국 영화의 상업을 위해 스토리의 개연성은 조금 뒤떨어진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상업을 위한 영화라고 해도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더 표현해냈다면 이 영화는 틀림없이 두고두고 언급되는 훌륭한 독립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 여러 실존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지금 시대에서 다시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화로운 캐스팅에 배우들의 연기력에 비하면 이런 평가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확실히 대작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연출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재미를 느끼는 정말 오락을 위한 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모든 흥행요소를 갖춘 작품이라 칭할 수 있다. 웃음을 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이 영화를 너무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이끈다. 역사를 다룬 영화이지만 너무 진지하지 않게 재미를 가미한 것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아네모네에서 춤을 추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독립투사들의 삶이 어둡고 험난하기만 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한다.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사기를 북돋는 모습으로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밝은 면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독립 운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도 느끼게 했다. 영화의 개봉시기 또한 8.15광복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였고 북한과의 대치로 불안감을 갖던 시기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암살에 대한 총평

암살은 최동훈 감독의 또 다른 흥행작이었던 도둑들과 비교해 여러 평을 듣는다. 그 이유는 도둑들의 배우들이 암살에 대거 출연하였고 어떤 작전을 위해 인물들이 모이고 그 작전을 수행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감독은 비슷한 배우진과 스토리의 전체적인 구성을 연출하면서 흥행의 신화를 다시 써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배우들의 연기가 도둑들에서보다 더 노련해졌다는 평도 많았다. 하지만 도둑들은 배우의 연기와 스토리의 전개를 감상하며 흥미를 느끼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뜬금없는 로맨스의 등장에도 큰 위화감이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물간의 러브라인이 난무했지만 극의 몰입도에 방해가 될 정도도 아니었고 오히려 로맨스가 극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하고, 비극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암살에서는 스토리의 전개보다 앞서 나간 로맨스가 문제가 된 것이다. 도둑들과 다르게 암살은 독립투사를 다룬 만큼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는 내용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행을 위해 마케팅 전략에는 많은 노력을 들였다.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세트장 연출이나 소품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쓴 부분이나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웃음요소까지 많은 부분에서 호평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만큼 연출, 구성면에서의 아쉬움은 더 크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어마어마한 제작비와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캐스팅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만을 높인 셈이다. 결국 최동훈 감독의 독립투사를 기억하기 위한 독립영화로 만들고자 한 의도와 상업을 위해 대중의 기호를 고려한 의도가 충돌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그 주제마저 흐릿해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를 떠올리면 '좋은 독립영화였다'도 '재밌는 영화였다'도 아닌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 하더라.'로 기억할 것 같다.

영화 '인턴'

20151123 이예빈

이 영화를 굉장히 기대하고 보았다. 평소 좋아하는 배우인 앤 헤서웨이가 출연하는 작품이기도 했고, 평점이 매우 좋았기도 했고, 친구의 강력한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앤 헤서웨이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패션회사를 배경한 것으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다. 나는 이 영화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비슷할까 꽤 고민했다. 비슷한 소재에 같은 배우가 나오니깐 말이다. 하지만 웬걸 전혀 다른 이야기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 CEO인 줄스 오스틴과 줄스 오스틴의 회사에 들어간 70세 인턴 벤 휘태거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인 <인턴>. 요즘 흔히 말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영화였다. 일단 주인공 존재의 자체가 그랬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 벤 휘태거는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상상 속의 완벽한 남자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벤 휘태거는 내가 생각하는 신사에 가장 부합하는 남성이었다. 그는 70세의 노년이지만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의 용도는 상대방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다. 사별한 아내와는 몇 년을 살았냐는 질문에는 '겨우' 42년이라고 한다. 이러한 로맨틱한 면모 뿐 만아니라 그의 성품적인 면에서도 반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공 벤 휘태거는 인생경험이 풍부하다. 이러한 점에서 비롯하여 풍기는 그의 성품은 매우 신사적이다. 남이 도움을 청하면 적당한 조언만 해줄 뿐 함부로 넘겨 집거나, 괜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 또한 남이 힘들어 할 때는 매우 효과적으로 위로를 해준다. 줄스가 회사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할 때, 그는 '1년 반 전에 혼자 창업해서 직원 220명의 회사로 키운 게 누군지 잊지말아요.'라는 담백한 말로 줄스에게 위로이자 조언을 해준다.

그의 성품 말고도 그의 인생철학도 내가 배우고 싶은 종류의 것이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노인이지만 그는 과감하게 여유로운 일상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다. 그는 줄스 오스틴의 회사 면접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이 대사 한마디로 벤 휘테커의 인생관 전체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벤 휘테커를 보면 늙는다는 것이 외롭고 힘겨워 지는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 되었다. 그는 더욱 현명해지고 완숙해진 완벽한 노인상 그 자체였다. 그는 아날로그적이고 클래식을 추구하지만 절대 고리타분하거나, '꼰 대'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정말 멋지게 늙은, 내가 나중에 늙어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이다.

존재 자체가 힐링인 벤 휘테거와는 다른 주인공인 줄스 오스틴. 줄스 오스틴에게는 힐링의 느낌보다는 공감과 연민이 느껴졌다. 그녀는 매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끊임없는 체력 관리를 하며, 직원들도 챙겨주고, 박스포장이나 상담 문의 전화도 직접 받는 등 매우 열정적이다. 이렇듯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을 두고 일하는 성공신화를 쓴 CEO지만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다. 그러니까, 그녀는 매우 잘 나가는 워킹 맘이다. 바쁜 그녀를 위해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남편이 배려해주는 덕분에 회사 일에 더욱 몰두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부사이가 미묘하게 멀어짐을 느낀다. 딸이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비꼼을 당한다. 이러한 줄스의 사정을 보고 나는 놀랐다. 우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였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시선이라던가, 당하는 불이익이라던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줄스도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때때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내 모습도 저러겠지 하며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

또한 워킹 맘의 고질적인 고민이 가정과 회사사이의 문제를 보면서도 놀랬다. 영화의 중, 후반부를 차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나는 워킹 맘이 아니지만 정말 공감되는 문제였다. 줄스는 회사일이 좋고, 회사를 사랑하고, 자신의 꿈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 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주변의 시선들도 '여자가 저렇게 까지 바깥에서 나댄다.'라는 시선으로 고깝게 보기 까지 한다. 만약에 줄스가 남성이라면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줄스는 단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저런 고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줄스의 삶을 보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연민이 느껴졌다. 줄스의 캐릭터를 보는 느낌은 그녀의 변덕스럽지만 사랑스럽고 당찬 성격보다 그녀의 상황과 고민이 더욱 와 닿게 느껴져 매력적이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그들의 흥미로운 관계가 이 영화가 힐링 영화인 이유를 보여준다. 인생경험 많은 70세 인턴 벤과 열정가득 고민가득인 30세 CEO 줄스의 관계. 그들의 나이로만 보면 요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관계에서 그들은 이 힐링 영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줄스는 벤을 인턴으로 채용했지만 벤이 줄스의 멘토 또는 친구가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기까지 주로 벤이 줄스의 고민을 들어주고 벤은 줄스의 회사에 다니면서 삶의 활기를 이루게 되는 유쾌함이 돋보인다. 이러한 그들의 관계의 변화 속에서 줄스의 고민, 벤의 인생관 등을 보면서 영화가 끝난 후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이기도 했다.

영화의 구성면에서는 크게 흠 잡을 것이 없다. 벤 휘테커의 자기소개 독백, 그 주요한 내용은 자신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것이었고 마침 노인을 채용하는 줄스의 회사에 채용되었고, 인생경험 풍부한 벤이 줄스의 운전기사 이자 비서가 되어 줄스의 인생 멘토가 된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구성이었다. 그 와중에 줄스가 겪는 개인적인 고민들에 대해 풀어나가는 것도 좋았다.

이러한 스토리 속 영화의 캐릭터들의 특성 상 줄스는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해야되는 캐릭터이고 벤은 신사적이면서 유머러스한 성격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 벤의 새로운 애인 역할인 피오나나 그들의 직장 동료인 저스틴과 제이슨은 중간 중간 영화를 로맨틱하게 또는 유쾌하게 가다듬어 주어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영화 였다. 이 영화의 영상미 또한 만족스러웠다. 영화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유쾌하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영화의 색감 또한 밝고 따스한 색감이 돋보이는 영화였다.

줄스의 캐릭터에 대해 쓰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나는 줄스의 회사와 줄스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되기도 했다. 줄스는 회사에서 자전거를 탄다. 줄스의 회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종을 치고 회사 직원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축하를 해준다.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줄스가 책상 위에 쌓아둔 포장 박스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벤이 그것을 치워 주어서 줄스가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사소한 일로도 말이다. 이러한 회사 분위기가 내가 듣던 회사의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다. 우리나라 회사 분위기하면 보통 상사 눈치보고, 사원들 사이의 관계라 던지 대인관계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는 둥 대체적으로 피곤한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작년에 방영했던 회사를 주제로 다룬 드라마 <미생>과 같이 말이다. 영화이기 때

문인지는 몰라도 인턴 속의 영화는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상상 속의 회사 분위기였다. 자신이 할 일만 하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활기차고 유쾌한 그런 회사 말이다. 그리고 이 영화 자체의 설정이 30세 젊은 CEO가 노인들을 고용한다는 설정인데, 내 기억으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생 경험 풍부한 노인들의 경력을 인정해 고용하겠다는 신문 기사 한 줄을 본적이 없다. 또한 영화 속에서는 학벌이 회사에 고용 되는 것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았다. 일단 CEO 줄스의 학벌부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좋은 학벌은 당연한 것이고, 각종 스펙이 필요한 것에 비해 말이다. 게다가 이과만 취급하고 문과는 취급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신기하고도 부러운 점도 있었지만 정말 공감되는 부분은 일하는 여성의 현실이다. 위에 줄스의 캐릭터 소개에서 썼듯이 이 영화에서 여성이 차별 받는 현실을 잘 보여 준 것 같다.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력, 영상미, 우리나라와 달라 신기 했던 점, 여성으로서 정말 공감 되었던 점 모두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는 이 영화의 장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납득이 가지 않던 부분이 있다.

바로 결말 부분이다.

결말 부분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 자신이 너무 바빠 가정에 소홀한 것이 신경 쓰이는 줄스는 결국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전문 고용인의 채용을 위해 벤과 짧은 여행을 하면서 벤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게 된다. 사실 줄스의 남편은 줄스 말고 다른 애인이 있던 상태였다. 줄스는 그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그녀의 가정과 회사사이의 고민이 더욱 커진 상태였다.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줄tm는 사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비뚤어져버린 자신의 가정이 너무 바쁜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에게 매우 분노하는 한편 가정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남편과 이혼을 해도 딸이 있지만 딸이 다 크고 나면 자신의 삶이 외로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 가족과 보내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벤도 얼마 전 줄스의 남편의 외도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상태였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자책하는 줄스를 위해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준다. 결국 이 영화는 줄스와 줄스의 남편이 화해를 하고 줄스의 고민해소에 도움을 준 벤에게 가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영화가 행복하고 활기 차 보이기만 하면 지루했을텐데, 줄스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설정까지는 마음에 들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 종종 보았던 사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줄스의 마음이 분노와 자책 사이를 오가는 것도 이해가 갔다. 근데 그 자책이 분노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이,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바람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이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일단 자책하는 부분에서 그녀는 남편이 바람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바람나는데 이유가 있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한다. 줄스가 그녀의 남편이 바람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집에서 아이만 돌보고 가사 일을 하니까 자신이 남성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애인을 만날 때는 자신이 남성인 걸 느끼는가 보다 하고 추측한다. 이게 무슨 억지스러운 이해인가 싶다. 아이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개인의 시간보다 아이를 위하는 시간이 많아져 자신이 남자로 느껴질 틈이 없다는 것 도 이해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람 피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한다. 애초에 나는 바람 피는 것에 이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다. 외도는 윤리적으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질타 받을 일인 것에 분명하고, 외도를 하는 순간 그 결혼에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다. 그 두 사람만의 약속 중 제일 중요한 전제는 서로 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전제를 깨놓고도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줄스 같은 상황에서 말이다. 줄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쪽도 남편이고, 그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외도가 그렇게 쉽게 용서 받을 만한 잘못인가 생각되기도 했다. 뭔가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도 그냥 줄스의 회사에 당당하게 찾아와 줄스와 몇 마디 나누고, 끌어안고, 용서 받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외도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네이버 평론을 하는 평론가 중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평론가가 있다. 그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한 한줄 평으로 '재미와 교훈은 중반까지만' 라고 써놓았는데 이번만큼은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반부 까지 멋지게 늙은 벤과 열정이 넘치면서도 고민 많은 줄스의 변화하는 관계를 보면서 흐뭇하고 훈훈하게 보고 있었는데 결말 부근에 가서 외도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훈훈한 척하고 끝나는 결말에 정말 실망스러웠다. 결말에 남편의 큰 잘못을 용서하는 줄스를 보면서 뭔가 이 영화는 무조건 따뜻한 결말을 만들어 내고 싶어 하는구나싶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었던 것이 생각이 날 텐데, 저런 큰 잘못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그들의 쿨함에 진심으로 경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화의 결말은 나의 기본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영화이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예상되는 분위기이긴 했다. 이 영화는 벤 휘태거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밴 휘태거 자신은 아내와 사별을 했고, 퇴직을 했으며, 다 키운 자식들은 어디에 살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독백을 들으면서 나는 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뭔가 훈훈하고 유쾌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겠구나.' 한마디로 뻔하다고 생각되었다. 무언가 전개 자체는 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영화를 다 본 지금도 뻔하다고 생각한다. 결말에서 줄스가 외도 하는 남편 따위 뒤도 안돌아 보고 이혼했으면, 마음고생은 했었어도 자신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줄스와 그런 그녀의 멘토이자 인턴인 벤 휘태커의 훈훈한 관계를 보여주었더라면 더욱 현실적이면서도 인상적인 결말이 아닐까 싶다.

이 영화가 외도를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외도라는 윤리적인 소재가 섞이니까 이 영화의 결말에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외도라는 소재를 쓰는 것 보다는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다 보면 남성보다 부당대우를 받는 것이나 차별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 그것을 줄스의 주된 시련으로 삼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로와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인 벤 휘태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말 부분 말고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줄스의 회사가 있던 자리가 마침 벤이 수십 년간 다녔던 회사의 자리였다는 것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인 것 같다. 무언가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한 부자연스러운 설정 같이 느껴져 과하게 생각됐다.

또한 줄스가 자신의 엄마의 흉을 보는 내용의 이메일을 실수로 엄마에게 보내, 그 이메일을 지우기 위해 벤 휘테커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을 시켜 엄마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해 이메일을 지우게 하는 장면이 있다. 매우 즐겁고 유쾌한 장면으로 기억한다. 물론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몇몇 부분 때문에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불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 됐다. 상당히

억지스럽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느껴졌다. 자신의 엄마 집에 무단 침입을 해 이메일을 지우는 것을 시키는 상사나, 이런 것을 먼저 발상해낸 벤 휘테커나, 중간에 엄마의 집에 경보장치가 울렸는데도 무사히 빠져나오는 장면이나, 분명 줄스는 바쁘고도 예민한 사람인데 회의 중에 엄마의 집에 무단 침입한 직원들과 통화를 시끄럽게 하는 장면이 매우 과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게 하기 위한, 단지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 영화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면일 뿐이라고 생각 되었다.

그러고 보니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였는데, 저 장면 빼고는 코미디라고 생각 되는 장면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코미디 보다는 드라마 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 비판을 해두긴 했지만 주인공 벤 휘태커가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전화번호부 회사의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줄스의 회사에 다시 취직해서 일한다던가, 퇴직한 노인인 벤이 청년시절 처음 회사에 출근할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 준비를 한다던가,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벤의 마음 같은 것에 대해 나의 앞으로 있을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 많아 좋았다. 또한 벤의 행동을 이나 인품을 보면서 젊었을 때도 그는 현명하고 로맨틱했으며 신사적이었던 그가 더욱 성숙해져서 고귀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벤 휘테커처럼 그는 영화 속 인물일 뿐이지만 지금부터 현명해져서 나이 먹어서도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영화였다.

줄스 오스틴이라는 인물도 비록 마지막에 그녀가 한 결정에 대해 납득 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하는 영화 속에서 겪는 고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바쁘게 살아 성공신화를 이루는 그녀가 부럽고 대단해 보였다.

이런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들 속에서 배울 점 많고,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같았지만 정말 따뜻해지다 말고 한순간에 식혀 버리는 결말 때문에 나는 이 영화에 대해 큰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평점이 좋았던 것 치고는 꽤나 실망스러웠고, 남들이 다 보니까 영화를 봤다가 그저 그랬다는 느낌이 물신 들었다. 그래도 꽤나 훈훈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내어 가족과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 나에게는 정말 잔잔하고 무엇인가 교훈이 있다가 없어지는 느낌에 훈훈하고 간간히 유쾌한, 결말이 찝찝한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영화로 캐릭터만 매력이 있던 영화로 느껴진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보면 생각이 바뀔 것 같기도 하다. 먼 훗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날에 이 영화를 보고 줄스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벤 휘테커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결심처럼 저렇게 현명하고 멋지게 늙어왔나 점검해볼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은 여성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벤처럼 은퇴하고 나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노인의 심정을 느끼는 것을 보고 깊은 공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쓰는, 늙어서는 어렸을 때 썼던 이 평론을 보고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을 꺼내 읽어 보면서 나도 많이 변했구나 느끼거나 아니면 나는 참 한결 같다고 느끼거나 둘 중 하나 일 것이다.

결말 부분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영화이긴 하지만 소설 <어린왕자>처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새로운 느낌을 맛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운 할머니, '집으로'

20151126 이제훈

영화 '집으로'는 2002년 4월 5일에 개봉한 가족영화이다. 영화의 구성인물은 크게 상우와 상우의 외할머니로 이루어져 있다. 상우는 형편이 어려워진 어머니에 의해 외할머니 댁에 남겨진다. 상우의 외할머니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글도 읽지 못하신다. 그런 외할머니께서는 손자를 챙겨주고 싶어 하시지만, 상우는 전자오락기 말고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또 외할머니께서 상우에게 김치도 찢어주시고, 상우가 좋아할까 옛날 사탕도 꺼내주시지만 버릇없는 상우는 모든 걸 뿌리치고 외할머니의 고무신에 오줌을 싸기도 한다.

도시 문명에서 자란 상우는 닭요리하면 후라이드 치킨만이 떠오른다. 상우는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지만, 외할머니께서는 그것이 뭔지 조차도 알지 못하셨다. 그래서 상우는 온몸을 써가며 후라이드 치킨을 설명한다. 문득 가방에 있던 햄버거와 치킨 그림이 떠올라 간신히 설명시켜 드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할머니께는 닭요리 백숙일 뿐이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손자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은 후라이드 치킨이 아닌 백숙이었다. 상우는 끝내 물에 빠진 닭은 싫다며 울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와 함께 두 인물의 갈등은 이어진다. 상우는 삭막한 도시의 문명. 산업화 신세대를 나타낸다면 할머니께서는 시골의 정, 할머니의 전통, 자연 구세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 장면에서는, 집에 벌레가 들어왔는데 상우는 깜짝 놀라서 뛰어다니며 빨리 죽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이 벌레를 죽이지 않고 밖으로 던져준다. 이 작은 부분에서도 조차 우리는 시골 할머니의 따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작은 벌레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게 죽이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영화 '집으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 마디로 손자를 아끼시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뿐이다. 소박하게 그 외에는 딱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작품을 지루한 영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바로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관람객들이 그럴 것이다. 본인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손자를 예뻐하시는 할머니의 사랑을 왜 그 땐 감사히 여기지 못했는지, '집으로'는 그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나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은 바로 상우의 버릇없는 행동과 외할머니의 너그러움이다. 손으로 김치를 찢어 밥 위에 올려주시는 할머니, 된장찌개, 계란찜, 나물 반찬만을 해주시는 할머니, 왜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싫고 맛없게만 느껴졌는지, 상우의 행동에 내 어릴 적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차라리 화를 내주셨으면 좋았을 손자의 철없는 행동에도, 너그럽게 따뜻한 사랑만을 주시던 할머니의 모습들을 영화 '집으로'가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한다. 상우가 아무리 짓궂게 굴어도 상우를 위해 채소를 팔러 나가시는 할머니 뒷모습. 소박한 영화지만 이보다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을까.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투정부리고, 철없이 굴었던 경험은 거의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본인 역시 그러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데 나는 할머

니를 모시고 가야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키워주신 것에 효도는 해드리지 못할망정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 영화 '집으로'의 상우 역시 할머니에게 못할 행동을 한다. 할머니에게 마음대로 말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 또 집에 갈 버스를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안 온다면서 자기 먼저 타고 가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릇없는 손자 역할을 배우 유 승호가 잘해주었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우 역의 유 승호뿐만 아니라 상우의 외할머니 역할을 맡으신 김 을자 분자 할머님의 연기 또한 일품이라고 생각한다. 김 을자 분자 할머님께서 해주신 연기는 마치 평소의 삶을 그대로 영화 안에 옮겨놓은 것 같았다. 구부정한 허리로 다니시며 손짓과 표정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시는 할머니. 연륜처럼 많게만 느껴지는 할머니의 주름. 시종일관 손자를 예뻐하시는 그 따뜻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경험이 있다면 추억속의 그리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화든 책이든 음악이든 자기의 상황이나 정서와 잘 맞는 작품을 만나면 그 감동은 남이 느끼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커지는 것 같다. 영화 '집으로'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온 내게 특별한 영화였고 보는 내내 나를 많이도 울린 영화였다. 영화 '집으로'의 이 정향 감독은 바로 이러한 관객들을 목표로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단점을 말하자면 바로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따듯함을 전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화 '집으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어머니께 자기 자식은, 자기의 배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똑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격한 매질도 서슴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에는 여기에 비할 수 없는 포용, 즉 너그러움이 있다.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할머니의 아들딸인,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만이라는 이유로 그냥 예쁘게 바라봐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할머니를 업신여기고 막말을 해도 할머니께서는 그냥 싱긋 웃어주시고 품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영화 '집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할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다.

상우는 이런 할머니의 사랑을 작품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 상우는 그제야 할머니께 마음을 열고, 자신이 서울로 되돌아갔을 때의 할머니를 걱정한다. 눈이 어두우셔서 할머니 혼자서는 바늘에 실을 끼우지 못하실까 미리 실들을 다 끼워놓는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실 때나 자신이 보고 싶을 때를 대비해 그림편지를 그려놓는다. 상우도 '보고 싶다'를 '보고다'라고 쓸 정도로 어린 나이이고 한글이 서투르지만, 할머니를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어른 못지않음을 느꼈다. 이렇게 영화 '집으로'는 할머니와 손자의 만남이라는 소박한 이야기를 다루지라도 화려하게 꾸며진 영화를 넘어서는 감동이 밀려오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영화 '집으로' 자체의 내용도 물론 훌륭하지만 배우의 선택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다. 배우 유 승호는 '집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서울이 보이느냐' 등의 작품에서 당당히 주연으로 활동했던 배우이다. 때문에 작품 속 인물 '상우'를 소화해내는 연기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김 을자 분자 할머님이다. 김 을자 분자

할머니께서는 전문배우도 아닌, 촬영 현장인 충북 영동에서 호두농사를 지으며 혼자 사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연들까지도 그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물들인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갸우뚱해지고 놀랍기만 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온 상우의 모습과 대비되는 시골적인 모습들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 배경장소이다. 도시의 서울과 한적한 시골을 마주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번잡하고 화려한 서울.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 한참을 헤매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산 속 시골마을. 이 두 곳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나타나는 장면은 없지만 상우의 소지품, 군것질거리 등과 시골의 배경과 소품 곳곳에 그런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시대적 배경이다. 21세기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최첨단 문명의 혜택 속에서, 한시도 문명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상우와 예순이 넘으셨을 주름진 할머니께서 등장하고 있다. 상우의 외할머니는 상우와 같은 21세기에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방식은 옛 조선시대와 닮았지 현대 문명과 가깝지는 않아 보인다. 21세기와 19세기의 시대적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흔히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있다” 혹은 “재미없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좋은 영화라고 평하는 영화들엔 보통 감동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사실 감동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 할 때가 있다. 감동이라 함은 너무나 많은 느낌들을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영화는 한 인간의 성공담을 그려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이뤄내어 감동을 주기도 한다.

반면에 영화 '집으로'에는 이런 감동이 없다. 급격한 반전도 없고 누가 죽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 감동적이다. 이야기는 조용하고 잔잔하게만 흘러간다. 처음 상우의 버릇없는 말이나 행동들에 조금 과장됨을 느끼지만, 여전히 이야기는 천천히 여유롭게 흘러간다. 어느새 영화에 빠져들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정을 가득 채워놓는다.

이 영화에서 노인들의 외로움, 도시 아이들의 물질만능주의 및 도시화로 인한 비인간화와 무도덕화 등이 문제들도 그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손자와 외할머니라는 세대 간의 차이와 도시와 외지마을의 차이를 통하여 그 속에서의 갈등을 통하여 서로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급격한 근대화는 가족의 형태, 역할, 위치 등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즉, 교육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등이 퇴색되어 다른 체계로 이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으로’의 상우도 어머니에 의한 교육의 기회가 상실됨으로 하여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고, 상우는 외할머니와 많은 삶의 교육을 주고받게 된다. 어떻게 삶의 교육을 얻게 되는 것인지 손자와 외할머니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손자의 입장에서 받는 교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로, 손자는 배터리도 팔지 않는 외진 시골 마을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놀 수 있으며, 어떻게 지내는지를 깨달아 간다. 또한 햄, 콜라, 치킨 등의 음식들만을 먹던 아이는 더럽게만 보이던 외할머니의 음식에 적응이 되어가고, 초라하고 더럽게만 보이던 집안 환경에 어느덧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우가 경험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시골 마을에서의 일상생활을 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웃어른 공경에 대한 가치를 외할머니와 마을사람들을 통해 내면화 하게 된다. 자

신밖에 모르던 전형적인 도시의 이기적인 아이로 그려진 상우는 어느새 웃어른에 대한 배려와 공경을 배워나간다. 그리하여 혼자만 놀고, 혼자만 먹으며 자기밖에 모르던 상우가 어느샌가 편찮아하시는 외할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외길에서 뵙게 된 마을 할아버지를 위해 길을 비켜서는 행위를 보인다.

셋째로, 외할머니와 마을 또래집단을 통하여 양심을 발달시켜 나간다. 상우가 바뀌는 모습을 영화 중반기를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비춰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못하시는 외할머니께 '병 신'이라고 놀리고, 집안 내부를 빨간 크레파스로 낙서해놓은 아이는 어느 덧 양심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인다. 외할머니를 위하여 바늘에 실을 끼워두고, 자기가 하였던 빨간 크레파스 낙서를 지우기 위해 하얀 크레파스로 덧칠을 해놓는다. 배터리를 사기 위해 외할머니의 비녀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을, 외할머니께서는 꾸중은커녕 녹슨 수저를 비녀로 사용하시는 외할머니를 보며 상우는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마을 또래집단이 상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우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된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심이라는 덕목을 발달시켜나간다.

넷째로, 외할머니와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획득하여 나간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왔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과 잘 들으시지 못하시는 외할머니께 '병 신'이라 놀린다. 그렇게 불편함을 겪으시는 것을 오히려 타박하던 아이는 어느새 외할머니의 감정과 비언어적 수단에서 나오는 수화와 눈빛을 읽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까지 한다. 이는 외할머니와의 삶을 통하여 그 방식을 터득하고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험적으로 외할머니와의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앞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외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우는 경험하게 된다. 외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못하시는 외할머니의 눈빛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깊은 애정에 상우는 변화한다. 비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었던 자기에게 절대적인 배려와 애정 그리고 사랑을 받고 상우는 변화한다. 비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었던 상우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애정과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은 전반기에는 한 곳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후반기 장면곳곳에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특히 외할머니와 헤어지는 장면에서 상우가 외할머니를 위해 밤새워 일을 하는 모습에서 절정으로 느낄 수 있다. 눈이 잘 보이시지 않는 외할머니를 위해 모든 바늘에 실을 뀌어놓는다. 말씀을 못하시는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시거나, 자신이 보고 싶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카드에 엽서를 정성껏 마련해 놓는다. 여기에서도 글을 잘 읽지 못하시는 외할머니를 위하여 글과 그림을 동시에 써놓는 장면을 통하여, 외할머니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상우가 배우며 변화한 것처럼 외할머니께도 분명 변화하거나 배우신 것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상우를 통하여 그 또래 도시의 아이들의 생활방식을 파악하게 된다. 인스턴트 푸드와 불량식품을 즐겨먹는 아이들, 사람과의 대면보다 혼자 전자오락과 같은 기계와 노는 이 시대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둘째로, 상우에게 한글을 교육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워 아프거나, 상우를 아니면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전화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상우는 글을 가르쳐드린다. 외할머니

께서는 상우에게 간단한 한글을 교육받는다. 그러나 한글은 외할머니께는 마치 그림과 같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일회성 과제로 그치게 되지만 외할머니께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셋째로, 외할머니께서도 손자와의 생활을 통하여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외로움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손자와 어디든 함께 하며, 손자에 의해 간호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영화 '집으로'는 거창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지만 감동과 여운을 주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렇게 그 배경과 인물간의 영향을 세세하게 분석해본다면, 결국 이 영화는 산업화와 도시화와도 관련이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장면들을 표현하며, 비인간화, 이기주의화에서 벗어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배려, 공경, 사랑만이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어울려 살기 위한 올바른 가치와 도덕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외할머니께서는 말씀을 하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손자 상우에게 많은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인물이다. 상우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영화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교육은 꼭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작품을 통해 들었다.

요즘 비싼 과외비나 학원비를 들여서 가르치는 자녀의 교육들은 오로지 대입만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진정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여러 덕목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요즘 시대이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사이의 어떤 교류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들이 배워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인물 '상우'와 같이 너무 버릇없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습관화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상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식당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 놀고 있어도,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잘 모른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부모들 중에는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나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랑을 배우기가 어렵고, 사랑으로 무언가를 배우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영화 '집으로'에서 외할머니께 맡겨지기 전의 손자 상우는 어리광을 부리고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 고집이 센 아이였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에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는 자상하게 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부모를 통ㅇ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도 어른에 대한 예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버릇없는 말투 심지어 '병 신'이라는 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 외할머니시지만, 그런 손자에게 무관심하거나 야단만치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미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준다. 그런 모습을 통해 늦게라도 상우는 자신의 잘못과 불손을 알고 반성하게 된다. 그런 사랑이 결국 상우도 변하게 만든 것이다. 처음에 상우가 자신의 전자 오락기를 위해 배터리를 사달라고 조르고, 외할머니께서 쉬고 계신데 방안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노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것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남의 것을,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자신의 일을 하느라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으로'의 할머니와 같은 사랑과 이해일 것이다.

어릴 적만 해도 굳이 약속을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항상 놀이터에 있었다. 학교를 마치면 언제나 해지기 전까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곳은 그 때의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신나고 즐거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린 꼬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안에서 컴퓨터나 오락 등의 게임에 매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어린이날 갖고 싶은 선물 중에 전자 오락기 같은 것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도 덕목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상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골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그것보다는 혼자서 전자오락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들과 어울려 놀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워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초반부에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은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본인에게도 할머니께 죄송스러웠던 말과 행동들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해해주셨다. 그땐 왜 이런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효도는 해드리지 못할망정 할머니께 감사하단 말씀조차 못 전했는지, 돌아가신 할머님의 그리운 모습이 떠오르는 작품이며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클래식 – 순수한 사랑

20151132 주서현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동아리에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영화 '클래식'이 기본바탕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난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나는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사랑의 정확한 의미는 지금도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에 사랑보다 더 추상적인 순수함이 더해진 순수한 사랑이란 어린 나에게 너무 이해하기 난해한 주제였다. 이런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가 어린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때의 신선한 충격을 되새겨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금 그 때의 설레었던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 설레었던 마음을 안고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이 영화의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영화의 편집만큼 중요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이다. 배우들의 연기를 이야기 한 다음, 이 영화에서 분위기를 돋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정겹고 예스러운 배경과 감성을 자극하며 몰입도를 높이는 OST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했던 연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면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을 이야기 해 보자. 또 비판의 시각으로 영화를 다뤄보기로 하겠다.

줄거리

지혜는 어렸을 때 아빠를 일찍 여의고 지금은 해외여행 중인 엄마(주희)와 단둘이 산다. 다락방을 청소하던 지혜는 우연히 엄마의 비밀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 주희의 첫사랑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밀 상자를 보게 된다. 지혜는 엄마의 순수한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된다. 국회의원의 딸인 주희는 시골에서 준하(조승우)를 만나게 된다. 주희는 준하에게 강건너편 귀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 그곳에서 주희와 준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오게 된다. 마에 도착하기 전에 주희가 준하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준다. 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준하의 친구 태수(이기우)의 정략결혼 상대가 주희란 것을 알고 놀란다. 태수는 주희에게 편지를 주기 위해 준하에게 대필을 요구한다. 준하와 주희는 태수 몰래 만나게 된다. 집안사정상 둘이 이어진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 둘을 위해 태수는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준하는 월남전에 참여하게 된다. 전쟁 중에 목숨 걸고 목걸이를 구한 대신 눈시력을 잃게 된다. 서로 중년이 된 후, 다시 이 둘은 만나게 된다. 3년 뒤에 준하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이 들의 사랑이야기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같은 대학에 다니는 지혜(손예진)와 수경(이수인)은 연극 반 선배 상민(조인성)을 좋아한다. 하지만 호들갑스런 수경이 상민에게 보낼 편지의 대필을 부탁하고, 지혜는 수경의 이름으로 상민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다. 지혜의 편지로 맺어진 수경과 상민이 가까

워지면서 지혜는 괜한 죄의식에 상민을 멀리 하려 하지만, 우연하게도 자꾸만 마주치게 된다. 상민과 지혜는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혜가 엄마의 사랑이야기를 해주고 상민이 아버지에게 받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지혜와 상민은 주희와 준하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루게 된다.

영화의 편집

이 영화는 엄마의 사랑과 딸의 사랑이 반복해서 나온다. 즉,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것이 이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결고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결고리를 손 편지로 설정했다는 것이 순수한 사랑을 만들어 낸 것이 다. 과거에서 준하는 태수를 위해 대필을 한다. 현재의 지혜는 수경을 위해 대필을 한다. 이 둘이 손 편지를 대필한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갈 때,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하지만 이 둘의 연결에 너무 신경을 쓴 탓일 까. 넘어갈 때마다 잠깐씩 구분을 못할 때가 있었다. 넘어갈 때마다 조금의 변화를 주면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의 색깔 변화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로 넘어갈 때마다 하늘의 색깔을 현재보단 약간 노란 빛이 나게 바꾸면 조금 더 예스러움이 나타날 것 같다. 현재로 넘어갈 때는 과거의 하늘에서 파란 빛이 나게 바꾸면 도시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뒤의 배경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다. 과거는 더 정겹고 예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현재는 덜 정겹고 예스러우면서 도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배우들의 연기

영화의 편집에서 과거와 현재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다. 배우들의 연기는 이 편집효과를 더욱 더 빛을 내게 도와준다. 먼저 엄마인 주희와 딸인 지혜의 역할을 맡은 배우 손예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손예진은 1인2역을 했다. 1인 2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한 역할의 설정이 강하게 띄다보면 다른 역할을 할 때도 그 설정이 보이게 된다. 이 2역의 중심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손예진은 주희의 역할을 할 때는 틈 하나 없이 주희가 되고 지혜의 역할을 할 때는 틈 하나 없이 지혜가 된다. 여기에는 옷이나 머리 모양을 다르게 하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이나 분위기는 사람이 만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희와 지혜를 세밀하게 연기한 손예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1인 2역을 어느 한 역에 치우지지 않고 잘한 것은 대단하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감정 연기였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감정 연기는 주희와 준하가 나중에 커서 만났을 때 준하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열하는 장면이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장면에서 같이 울게 된다.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관중들에게 슬픈 감정을 세밀하게 전하는 것에서 인상 깊었다. 또 어떻게 그런 슬픈 감정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다. 반면에, 지혜는 주희의 딸이니까 서로 닮았기 때문에 연기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는 준하의 역할을 맡은 조승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주희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월남전에 참여 하기 위해 기차에 오른 장면이 떠오른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주희의 말을 듣고 간절하게 주희를 바라보는 장면. 기차가 떠나면서 주희의 모습이 사라져 갈 때 까지 바라보는 장면. 월남전에서 목걸이를 되찾고 시력을 잃은 장면. 중년이 되어 만났을 때 자신이 맹인임을 주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리 와서 예행연습을 했다는 대사. 이 장면들이 지금의 조승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손예진의 슬픈 감정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조승우의 맹인 연기를 보고 소름이 더해진 감동을 받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 조승우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다. 감정들이 섬세하고 깊어서 영화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이 둘의 연기에도 놀랐지만 영화를 찍을 당시의 나이를 알고 더 놀랐다. 손예진은 22살이었다. 조승우는 24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세밀하고 섬세한 감정을 연기했는지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더 순수한 사랑을 연기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말해보자면, 이 영화 '클래식'안에 조승우가 있었기에 손예진이 존재할 수 있었다. 반대로 손예진이 있었기에 조승우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민을 연기한 조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한다. 영화를 보면서 '조인성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했다. 조승우와 손예진의 연기를 보다가 조인성의 연기를 보면 갑자기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어책 읽는 듯이 한 연기가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사랑을 자극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또 조인성의 국어책 읽는 듯이 한 연기가 조승우와 손예진의 순수한 사랑을 빛내게 해준 하나의 매개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예스럽고 정겨운 분위기

영화 '클래식'을 이야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분위기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현대에서 많이 수 없는 예스럽고 정겨운 분위기가 시선을 끌었다. 각박하고 살기 바쁜, 빠른 현대를 보다 느리고 여유가 있고 예스럽고 정겨운 분위기를 보니까 삶의 안정을 찾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소똥에서 벌레 찾기, 숲 속, 강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 경운기 뒤의 공간, 현대 교복과는 차분한 느낌의 교복, 아침 조회, 두발검사, 등등 옛날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스럽고 정겨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분위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소품들이나 뒤의 배경은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다. 볼 때마다 정겨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겨운 느낌을 받는 이유는 '예스러운 것'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소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영화를 보는 내 자신이 더 순수한 아이로 변하게 해준다. 그리고 순수한 아이가 되면서 더 몰입하게 되었고 주인공들의 사랑이 이루어짐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또, 지금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더 정감이 간다.

OST의 영향

예스럽고 정겨운 분위기가 영화에 몰입하게 도와줬다. 그렇다면 OST는 관중들을 주인공이 되게 하여 감정들을 실제로 겪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싶다. 주희와 준하의 사랑이 이뤄지지 못하고 태수의 자살시도를 보면서 떠오는 곡이 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다.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이 영화의 OST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영화를 보다가 이 곡이 나올 때 소름이 끼쳤다.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장면을 보니 더 안타깝게 만들었다. 또 요즘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슬픈 노래라 치고 틀어주는 OST하고 비교를 해보자. 요즘의 슬픈 노래들은 그다지 슬프게 다가오지 않는다. 슬프다고 해도 왠지 모르게 빠르게 느껴오는 템포. 하나 같이 똑같은 가수들의 우는 듯이 한 목소리. 그 반면에 이 영화의 OST는 빠르지도 않고 말하는 듯이 내뱉는 목소리가 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 그리고 김광석씨가 부른 이 곡을 평소에 좋아하는 JYJ의 김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을 듣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 안타까움과 아픔이 더 세밀하게 느껴졌다.

영화의 연출

이 영화의 연출을 보면 현대에 스마트 폰에만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영화의 편집에서 언급했다시피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손 편지로 설정한 것 때문이다. 요즘 디지털 시대가 돼서 손 편지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정겹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연락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설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연락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설렘은 스마트 폰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스마트 폰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영화의 연출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멈추지 못한 점이 있다. 바로 섬세함이다. 그냥 지나칠 법도 한 배경이나 소품, 장면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섬세하게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주희와 준하가 중년이 돼서 만나는 장면이다. 어느 남자 아이가 탁자 위에 올려져있는 피아노 조각을 가져는 장면이다. 준하는 주희에게 자신이 맹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 날 미리 와서 예행연습을 했다. 하지만 남자 아이가 피아노 조각을 가져가면서 주희에게 들키게 된다. 여기서 어느 한 장면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감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선을 아무렇지 않게 관중들이 눈치재지 못하게 깔아놓는 것에 감탄을 했다. 또, 준하와 주희가 귀신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바람 소리나 노숙자로 무서움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진짜 귀신을 등장시킴으로써 재미를 유발한다. 더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에서 다시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잠깐 나온 집안에 걸려있는 달력, 작은 소품, 우체국 현판이나 간판, 주희 방에 장식되어 있는 못난이 삼형제 인형, 유리로 된 서울우유 병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룬 연출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큰 배경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작은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보였다. 감독의 세밀한 의지가 영화가 지금까지 사랑

받을 수 있게 한 빛이 아닐까하고 과감하게 말해본다.

소설 '소나기'

주희가 준하랑 같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비 맞는 장면이 많다. 그리고 다음 날 주희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프게 된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소설 '소나기'가 떠오른다.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이 많다. 시골을 배경으로 한 것, 연약한 여자주인공, 시골의 정겹고 예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는 남자주인공. 등등. 이런 공통되는 요소들이 영화와 상호작용을 이뤄서 더 관중들에게 순수한 사랑을 자극하게 한 것이다. 이 소설은 보통 중학교 국어시간에 배운다. 이 소설을 배우는 시기인14세에서 16세까지는 아직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 사랑을 한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사랑이다. 이 또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이다. 만약에 영화가 '소나기'를 모티브로 했다면, 관중들에게 이 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의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인 순수한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감독의 뜻이 더해진 것이다.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

영화를 보고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주희와 준하의 사랑이 이뤄졌다면? 이 둘의 사랑 이 이뤄졌다면 어떤 사람은 '영화의 주제가 잘 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순수한 사랑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와 상민의 사랑이 이뤄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유발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럼 이 또한 너무 아픈 사랑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주희와 준하의 사랑과 지혜와 상민의 사랑은 연결고리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주희와 준하의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면 현재는 지혜와 상민의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주희와 준하의 '자녀'라는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을 하듯이 지혜와 상민의 사랑도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반면에 상민과 수경의 사랑이 이뤄졌다면? 지혜는 상민과 수경의 사랑에 힘을 넣어주며 씁쓸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관중들은 그 씁쓸함을 느끼고 지혜를 안타깝게 봤을 것이다. 주희와 태수의 정략결혼이 이뤄졌다면? 이 또한 지혜처럼 준하는 씁쓸함을 느끼고 관중들에게 안타까움을 자극했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든 영화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다. 관중들에게 무한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니까 참 여러 방면으로 의미가 있는 영화이다. 영화 안에서 너무 아픈 사랑에 가슴 아파하다보니 예쁜 사랑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의 시각

이 영화를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 까?'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태수가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준하와 주희의 사랑을 위해 자살시도를 한 장면이다. 또, 사랑 때문에 손목을 그었다는 상민과 수경의 연극의 대사이다.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의 사랑을 위해 꼭 자살시도를 해야 했을까? 남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꼭 손목을 그어야 했을까?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이 영화 안에서의 모든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매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왜 그래야만 했을 까'하고 생각한다. 또 태수가 자살 시도하는 장면에서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비판할 수 있다. 당시 어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식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다. 아마 태수의 자살시도는 친구의 사랑을 위해 한 것임과 동시에 당시 사회적 배경을 지적하기 위한 작가의 속임수가 아니었을 까 싶다.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이유도 이 생각에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다.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도 영화 '클래식'하면 조인성과 손예진이 같이 겉옷을 우산삼아 비오는 캠퍼스를 뛰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개그 프로나 예능에서도 많이 패러디한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줬기 때문이다. 1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봐도 전혀 12년이 지난 옛날 영화 같지 않다. 늘 예스럽고 정겹게 다가온다. 오히려 요즘 출생의 비밀이나 재벌 2세와 서민의 사랑과 같은 방식의 내용만 접하다가 가끔 식 이 영화를 볼 때면 '순수한 사랑'을 접하게 돼서 힐링받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또,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이 있다. OST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이 좋은 일이었다면 '추억'이고 좋지 않았던 일이었다면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아프지만 되돌아 볼 만큼 간직하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다시 봐도 여러 감정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생각을 깊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다. 영화 '클래식'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배우 손예진, 조승우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